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2월 6일(음력 10월 16일) 수요일 (주간) 제 606 호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공공도서관 불교서가 '썰렁'
(書架)

대출 사례 *저조* 도서구입예산 *부족* 도서기증 *미약* 등 '복합 원인'

불출협 "내년부터 기증 · 납본 확대 모색"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는 김성우(40 · 부천시)씨. 김씨는 집 부근의 시립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다. 그에게 도서관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만 거의 공부방 개념이다. 불교관련 글을 주로 쓰는 김씨의 경우 도서관에 갈 때 필요한 책을 집에서 가져가 읽는다. 가끔 자료실에 가보지만 참고할만한 불교책은 거의 없다. 처음 그곳을 방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책장은 군데군데 텅 비어 있었고 그나마 꽂혀 있는 불교서적은 500여권에 불과했다. 책 종류도 전문서적보다는 일반출판사에서 펴낸 명상서와 읽기 쉬운 불교 산문집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에 가도 불교코너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의 불서코너가 썰렁하다. 책이 많지 않으니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불서코너가 이용객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뭘까?

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에 의하면 2005년 한해 발행된 서적은 총 4만 3595종. 500여 공공도서관의 1년 장서 구입비는 120여억원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한 곳당 한해 24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와같은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공공도서관들이 연간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의 15~20%정도 밖에는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도서관에 가도 보고 싶은 책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이용자들의 불평은 클 수밖에 없다.


서울 J도서관 불교서적코너. 서가엔 빈공간이 많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출판사에서 의무적으로 납본을 받는 국립중앙도서관이 4866권, 국회도서관이 2685권 등의 불서를 소장하고 있다. 서울 남산도서관 1147권, 서울 정독도서관 729권, 경기 시흥시립도서관 470권,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433권, 광주 중앙도서관 343권, 전북 익산시립도서관 252권, 대전 신탄진도서관 184권, 경북 고령도서관 49권, 경북 점촌도서관 44권 등이다. 소도시 도서관으로 갈수록 불서소장은 줄어들고 있다.

서울 N도서관의 한 사서는 "도서관 당 불교도서 비치는 '도서관법'에 의거 봉사대상 기준인구(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 · 읍 · 면의 인구)에 따라 정해져 있다"며 "장서구성비율은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맞춰지지만 종교서적의 경우 불교 기독교 기타종교 등이 '종교'하나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 신간위주로 잘나가는 책을 구입한다"고 밝혔다.

또, 불자들의 책 안 읽는 풍토가 도서관의 불서비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불서를 대출하는 사례가 드무니 불서 비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도서관 측의 설명이다. 서울 J도서관의 대출담당자는 "종교서적을 구별해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 내기는 어렵지만 불교서적의 대출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사정도 엇비슷했다.

도서관마다 희망도서 신청서를 비치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지만 불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불교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불서의 경우 기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교계 출판사는 책을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 1권씩 겨우 2권을 보내는 정도다. 그러나 일반 출판사의 경우 납본용 도서를 150권이나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를 기증한다고 해도 쉽게 받아주지도 않고 자칫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출판문화협의회 차원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불서'를 기증하거나 납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불교출판문화협회 김시열 사무국장은 "내년부터는 협회 차원에서 불서구입비용을 협찬받아 공공도서관 등에 불서를 납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그나마 희망적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11월 30일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도약을 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건강한 몸 · 마음으로 군포교 매진을 … "

군승의 날 기념법회 성료…정인악씨 후원회장에 위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는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하림각에서 제38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종회의장 자승,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타종을 시작으로 이날 법회는 순직 군승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군포교 현장 소개, 표창수여, 후원회장 위촉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육군본부 군종실 장성화 법사와 불교신문사가 총무원장상을, 육군 제7사단 백암사 김종봉 법사가 종회의장상을, 육군 제9사단 호국 백마사 이익수 법사가 교육원장상을,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최명천 법사가 포교원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해온 현대불교신문사와 보덕학회, 불교TV, 화랑선원, 제주 무량정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날 법회에서 남양사 대표이사 정인악 회장을 군불교후원회장으로 위촉해 향후 군포교 후원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더욱 건강하게 가르치는 군법사에게 성원을 보내고 격려를 해 주어 모든 사부대중들이 자타일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중앙신도회가 장병들의 수계증을 순금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약속하고 1차분 1천 300만원을 보시했다. 또 김연숙 불자가 공군사관학교 법당 교육관 건립불사 기금으로 1억원을 희사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오는 16일 마감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 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6년 12월 16일 ■ 당선작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41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몽골 소년 한국불자 품에서 '눈' 뜨다…병불련 망막수술 '자비행'

몽골의 14세 소년이 11월 30일 서울 영등포 김안과에서 '망막 수술'을 받았다. 서울에 들어온 지 4일만의 일이다. 한국 입국 이후 곧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가 수술을 받기까지 소년의 옆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김안과 손경수(53) 박사.

손 박사가 소년과 인연이 된 것은 지난 9월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이원철 · 동국대 한방병원장)의 몽골 해외의료봉사 때다. 당시 바트솜보르 소재 국립 양로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손 박사는 1년 전 소에 받혀 실명을 한 소년을 진료하게 됐다. 한쪽 눈은 이미 시력을 잃었고, 다른 한 쪽마저 거의 실명상태인데다, 눈이 찌그러지기 시작해 그대로 두었다가는 얼굴형체마저 일그러질 상황이었다.

손 박사는 의료봉사를 마친 날 열린 평가회에서 소년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털어놨고, 병원 불자연합회가 방법 물색에 나섰다. 그러자 몽골 고려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금강선원(주지 활안)이 소년의 항공료와 체제비 일체를, 김안과는 수술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소년이 눈을 뜨게 되기까지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병원불자연합회는 바트솜보르 주민들에게 '희망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리고 한국불교의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시방세계 9면
강원 청소년 2200명 '애니' 관람

도반의 향기
이청자 국립의료원 봉사자 17면
빛고을아카데미 지상중계 4면
성열 스님 '쌍림열반상'
진각종 스리랑카 포교 현장 8면
사찰홈피 '특성화' 어떻게? 10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월운 스님 '능엄경' 24~25면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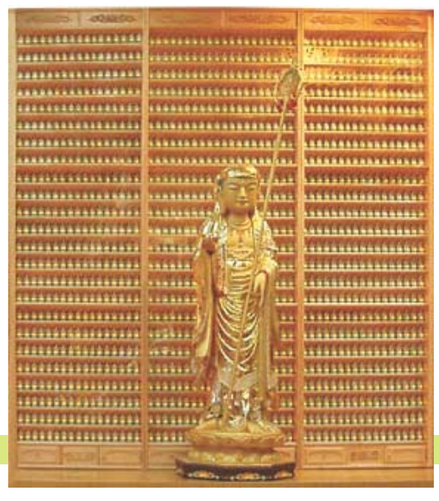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병술년 동안거 결제 법문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은 벼랑도 문도 없다

조계종 해인총림 등 5대총림과 90여 선방에서는 12월 5일 병술년 동안거를 결제했다. 조계종 제방 선원에서는 방장 · 조실 스님들이 결제법어로 2000여 수행자들의 3개월간 이어질 용맹정진을 격려했다.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동산 양개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닥쳐오니 어떻게 피하리까?"

이에 선사가 말했습니다.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그러자 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가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입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추우면 추운대로 네 놈을 얼려 죽일 것이고, 더우면 더운 대로 네 놈을 쪄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여름의 더위는 간 곳이 없고 이제 반대로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삼동결제가 되었습니다. 중생의 분상에서 더우나 추우나 그 근심은 이래저래 끝이 없습니다. 사실 추운 것이나 더운 것이나 알고 보면 그 도리가 그 도리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닥쳐온다는 것은 생사(生死)가 오고간다는 말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은 생사가 이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하니 그 생사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겠냐고 하는 말입니다.

동산선사는 "왜 추위나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그 납자는 마치 사냥개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처럼 연거푸 섬돌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안목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소견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놈은 얼어 죽거나 쪄 죽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이 한개가 아니라 백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대중들이여!

추위도 더위도 없는 좋은 곳은 벼랑도 없고 또 문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몸과 목숨을 둘 수만 있다면 영원히 근심이 없어지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추위와 더위가 있어 그대들의 목숨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안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안거 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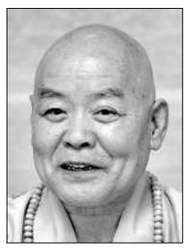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가 이 산승에게 "더위는 그만두고 추위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피하리오?"라고 묻는다면 그 자리에서 "피해서 무엇하리오"라고 매정하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후략〉

부지런히 정진하되 물러서지 말라

태고종 종정 · 태고총림 방장

혜초 스님



〈전략〉

자종영취분등후(自從靈鷲分燈後)
직전해동휘고금(直傳海東輝古今)
육조선풍적사가(六祖禪風嫡嗣家)
근학정진일불퇴(勤學精進一不退)
광겁무명당하멸(曠劫無明當下滅)
탈하구혜착신화(脫下舊鞋着新靴)
일곡탄금주월명(一曲彈琴奏月明)
사해향풍종차기(四海香風從此起)

영취산에서 갈라진 부처님의 법등이 해동으로 전해져 고금을 비추네

육조의 선풍이 흐르는 적손의 집안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되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라 / 광겁의 무명을 당장에 떨쳐내어 / (중생의) 헌 신발을 (여래의) 새 신발로 갈아 신고 / 한 곡조 거문고 소리로 밝은 달을 노래하니 / 사해의 향기로운 바람이 여기에서 일어나도다.

최상승의 관문 똑바로 뚫어라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불신충만우법계(佛身充滿于法界)
부처의 몸이 우주에 충만한데
만상지중독로신(萬象之中獨露身)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드러난다.
초초공겁무인식(迢迢空劫無人識)
가없는 공의 흐름을 아는이 없으니
혁파여금혁저인(覈破如今覈底人)
看破하라 看破하는 나는 누군가
조의명명백초두(祖意明明百草頭)
조사의 뜻 만물에 역연할진데
기구명리기구영(豈求名利豈求榮)
그 어찌 명리 따위에 마음을 쓰는가
약요부경염노안(若要不經閻老案)
염라의 심판을 안 받으려면
최상문중맥득통(最上門中驀得通)
最上乘의 關門을 똑바로 뚫으라

옛 사람은 마음이 영리하여 겨우 한 마디를 들으면 문득 배움이 끝났다. / 이러한 까닭으로 배움을 끊은 한가한 도인이라고 부른다. / 요즈음 사람들은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하고자하여 널리 글과 그 내용을 추구하여 그것을 수행이라고 부르지만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함이 도리어 장애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 / 오직 아이에게 많은 우유를 먹일 줄만 알고 소화하고 소화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니, 三乘의 수도인들은 다 이 모양이다. / 모두가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하는 구나. / 이른바 지식과 이해도 소화하지 못하면 독약이 되니, 모두가 태어나고 죽음의 길을 향함이요, 眞如의 길에는 이러한 일은 없다. / 그므로 우리 왕의 창고에는 이러한 칼은 없다고 하셨다

12월 1일 현재까지 발표된 결제법어입니다. 전문과 이후 발표되는 총림의 법어는 **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함께 뛰며 '법우애' 만끽했어요

원주불교축구단 군부대 찾아 축구 · 줄다리기로 '화합'



원주불교축구단 회원들과 육군 제3139부대 장병들이 축구시합 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원주불교축구단(회장 정두환)이 축구를 비롯한 운동경기로 군포교를 시작했다.

원주불교축구단은 11월 26일 육군 제3139 부대에서 '국군장병 포교 및 위문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군 장병과 원주불교축구단 회원 40여명, 조계종 포교사단 원주지역봉사팀(팀장 전승호)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영내에 위치한 군법당 청룡사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법회에서 원주불교축구단 지도법사 현각 스님(성불원 원장)은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법문했다.

이어 원주불교축구단은 영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와 줄다리기로 군장병들과 호흡을 함께했다. 특히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원주불교축구단에서 준비한 각종 먹거리로 장병들을 위로했다. 행사는 원주불교축구단과 군장병들이 서로 어깨를 걸고 '사랑으로'와 '만남'을 노래하며 마무리됐다.

정두환 회장은 "내년 5월부터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며 "축구를 매개체로 해 포교와 신행의 즐거움을 찾는 재가불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불교축구동호회는 생활 속의 불교와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하며 지난 8월 발족했다. 지난 10월에는 원주지역 종교인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종교인들간 친목도모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송년 · 후원의 밤

본사와 함께 군부대에 찬불가 노래방 기기를 공동으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회장 성행)가 12월 7일 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2006 좋은벗 풍경소리 송년법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02)723-9836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알 리 는 말 씀

대한불교 불입종은 금번 제3대 종정 추대와 관련하여 다소의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하여 현 종정을 포함한 집행부는 종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전국의 사부대중은 숙지하시고 본연의 생활에 정진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래

1. 대한불교 불입종 前종정 우경조스님은 2006년 3월 18일사직한바 있음

우경조 前종정께서는 2006년 3월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의 의사를 표하시고 총무원장인 경암스님에게 종단인장 일체를 내리시며 "오늘부터 종정직무대행을 하라,"고 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구이언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경조스님께서는 2006년 7월 19일 창종조 태허 홍선 대법사의 열반추모재때 느닷없이 후임 종정을 추대하겠다고 하시며 종법인 종정추대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우도명에게 종정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정 경조 스님은 2006년 3월 18일 사직하였고, 나아가 위촉장을 받은 위 우도명은 종정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고 일단 종정인 경조 스님은 후임 종정을 위촉함으로써 완전하게 종정직에서 물러나게 된것입니다.

2. 새로 임명된 우도명은 종정될 자격이 없음

구 종정추대법제 제1조에 의하면 종정에 위촉이 되려면, 첫째 연령 40세 이상이고, 둘째 법계1급 대법사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 종도규제법제32조에서 대법사 법계는 종정이외는 두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 종헌 · 종법상 종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종법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법사란 법랍이10년 이상이고, 학덕을 겸비한 자 또는 종단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구 종도규제법제31조)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조 前종정께서는 무자격자를 종정으로 추대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는바 이는 종정추대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당연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3. 종정 유고 사태

전 종정 경조스님이 2006년 3월 18일 사직한후 2006년 7월 19일 후임 종정이라고 하면서 무자격자를 위촉하였다가 반발에 직면하자 이를 철회하였는바 이는 종헌 제10조 단서 조항의 종정의 위촉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구 종정추대법제4조에 정한바와 같이 종정유고(사직에 의한 결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종정 유고에 따른 긴급비상종회의 개최 등

위와같이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이 사직을함으로 인하여 종정의자리를 비워두는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종정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총무원장을 포함한 종회의원 스님들은 2006년 7월 21일 19:00시 부산시 소재 보명사에서 긴급비상종회를 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2006년 3월 18일자 종정 직에서 사직한 것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아울러 무자격 종정을 추대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것에 대하여 종정자격정지를 의결하고, 후임종정으로 박혜경 스님을 추대하였으나 위 박혜경 스님은 신병을 이유로 사양하는 바람에 2006년 8월 16일 총무원에서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2006년 7월 21일 비상종회의 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한 후 새로운 종정으로 면철스님을 추대하고 아울러 총무원장에 경암스님을 재신임을 의결하였습니다.

5. 새로운 종정이 추대되고 종회가 소집된 경위는 위와같은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바 있는데 前종정인 경조스님은 2006년 11월 8일 불교계 신문지상을 통하여 "7월 19일 창종조 태허 홍선 대법사의 열반추모법회 때 본인의 제자인 도명스님에게 종정 유고 후의 종단 안정 책무를 수행하는 취지에서 종정유고 후라는 분명한 단서를 붙여 위촉장을 수여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였지만, 위 공고문과 같이 종정 유고후의 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종헌 · 종법에 없는 불법임에 분명합니다. 종정 추대법 제4조에서 종정이 유고시 총무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종헌 · 종법을 위반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경조스님은 비상종회가 불법으로 소집된 것처럼 억지를 부리지만, 비상종회 소집의 계기는 종정이 사직함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종정의 자리를 비워둘수 없어서 2006년 7월 19일 송화사에서 종단 임원, 원로의원, 종회의원 등이 긴급 비상종회 개최를 발의하고, 2006년 7월 21일 부산소재 보명사에서 재적의원28명중 25명이 참석하여 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8월 16일 제3차 중앙종회 및 전국승려회의를 총무원에서 개최하고 재적의원28명중 24명이 참석하여 비상종회에서 결의한 7항을 추인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 종회는 종헌 · 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하여 종정권한이 없는 경조스님은 종회에서 총본산으로 지정한 송화사를 제적하고 재신임한 총무원장 경암스님에 대하여 재해임, 채탈도첩 운운하는 협박을 자행해놓고 불교계 신문에 공고문 까지 게재하여 대한불교 불입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혼란 속에 빠진 불입종 재건에 앞장선 총무원장 경암스님이 마치 해종행위를 한 것처럼 왜곡해 공고함으로써 선량한 스님들과 신도들을 다시한번 분노하게 하였으니 이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6. 이에 경조스님께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경조스님은 분명히 3월 18일

본인이 사직 했으면서도 무자격 종정을 또 추대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스님들의 분노를 사신바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그간 행한 스님의 행위에 대하여 돌이켜 보시고 참회정진 하기시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대한불교불입종의 큰 스님을 잃는 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종권탈취를 음모하는 무리들과 어울려 계속하여 해종행위를 한다면 불입종단으로서는 종헌 · 종법에 따라 아예 대법사인 법계를 삭탈하고 제명 처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7. 전국의 대한불교 불입종 사부대중 여러분!

대한불교 불입종은 前종정 경조스님이 이미 사직함으로인해 새로운 종정이 추대되고 총무원장이 재신임되어 안정속에 접어들었습니다.

종단 소임자들은 앞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이 대한불교불입종의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불교 불입종은 우리나라 불교계의 한 축으로 명실상부한 종단이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오니 부디 흔들림 없이 집행부에게 두터운 신임을 당부 드립니다.

대 한 불 교 불 입 종

종 정 면철
원로원장 정관 총무원장 경암 호법원장 현각 종회의장 월정
교육원장 지학 포교원장 혜경 종회부의장 상운
서울, 경기 종무원장 지철 부산, 경남 종무원장 법륜
임 원 : 만호, 인전, 성해, 묘성, 법진, 혜광, 효운, 인수, 선률, 대원, 해월, 대덕화, 자비심, 연화, 석운, 성원, 진성, 화산, 원덕, 혜련, 관음, 무상신, 송광, 수진, 오륜, 성혜옥, 견성, 송묵, 법천, 묘훈

불기2250(2006)년 11월 28일

사찰경영연구 2차 세미나 '사찰 재정위기 해법은?'

사찰 중장기 계획 세워라

바야흐로 사찰도 경영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나 현실은 경영은커녕 수입예산조차 세울 수 없어 '특별회계'가 설정되고, 인건비부터 절약하다보니 신도와 인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 · 효림)는 '사찰 재정 운영 진단 및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30일 제2차 사찰경영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살림' 대표는 '사찰재정의 대안과 해법'을 주제로 현 상황을 점검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개최한 '사찰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는 사찰의 재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찰 후원회 조직 정기적 회비 확보를
종무행정학과 설립해 인재 양성해야

이에 따르면 불자들은 시주금을 1년에 2번 이하로 내고(1989년 기준), 전체 불자 중 4.6%만이 주1회 이상 종교행사에 참가(1995년 기준)하는 등 불교 신행층은 매우 얇다. 반면 2006년 조계종 사찰 세입부를 살펴보면 사찰 재정 수입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불공수입과 불전수입, 시주금처럼 예측 불가능한 수입원이었다.

김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사찰 사업계획을 설정하는 한편, 신도들이 찾기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사찰을 재편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4~5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장기비전을 설립해 종무원과 신도회에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정웅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사찰에도 '작은 돈을 깐깐하게 운영하는' NGO단체들의 회비확보구조와 운영방법을 도입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사찰신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를 벌여 월1회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찰 후원회 등을 조직해 정기적인 회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불우이웃 정기후원'이나 '노스님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이 기금 자체의 성격을 분명히 해 후원금을 내는 신도들에게 '가치의식'을 분명히 심어주고, 예 · 결산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등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약 20% 정도의 일정액은 기금을 조성한 재단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면서 사찰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사찰 종무행정을 현재의 7직에서 신도 중심으로 맞춰 개편할 것, 종단도 '도심 · 농촌, 전통사찰 및 포교당' 등으로 사찰로 분류해 경영전략을 개발할 것 등의 제안이 쏟아졌다.

인재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대부분의 스님들은 예산회계법을 모르는 등 재정회계에 무지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며 "특히 종립대 및 승가대에 '종무행정학과'를 설립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목탁소리

조직개편 그 후…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1월 13일 종무회의를 열고 팀 자율행정 강화와 종무행정 효율화를 위해 중앙종무기관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팀제로의 직제 개편 이후 1년만의 일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현재 운영중인 2~3명 중심의 소규모 팀제를 4명 이상의 팀제로 확대해 기존의 28개의 팀을 18개의 팀으로 재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종무행정 교구이양 TFT팀, 어린이포교팀을 신설해 총무원장 스님이 천명한 어린이 포교 등 종단 전략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조직 개편을 통해 재천명했다.

이와함께 차장이 팀장을 겸임해 중앙종무기관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학 연구소와 포교연구실을 연구 중심으로 전환해 종무행정 보다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직제를 개편한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의 지속성과 종무원의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이번 조직 개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지난 5월 전체 종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제개편 설문조사다. 하지만 단순히 인식조사에 불과한 내용이지 조직 운영상의 합리적인 지표를 통해 그동안 실시해온 팀제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월 18일 조계종 정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된다. 조직 개편보다 향후 조직 운영이 더 중요하다. 늘어나는 종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종단의 전략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중앙종무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을 기대해 본다. ■김두식(취재부 기자)

어린이포교 기획 · 집행할
단체협의회 19일 발족

조계종이 실시하는 어린이포교사업을 평가하고 전문적으로 기획 및 집행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역량이 결집된다. 11월 30일 어린이포교단체 실무자 및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 청소년포교팀 등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모여 어린이포교단체협의회(회장 동범 · 이하 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어린이포교 역량 극대화를 위해 △어린이포교 지도자 양성 △포교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어린이포교에 대한 행정적 제도 마련 △단체 연대활동 강화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한달에 한번 정례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또 12월 19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봉행한다.

협의회 참여단체는 (사)동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총 10곳이다.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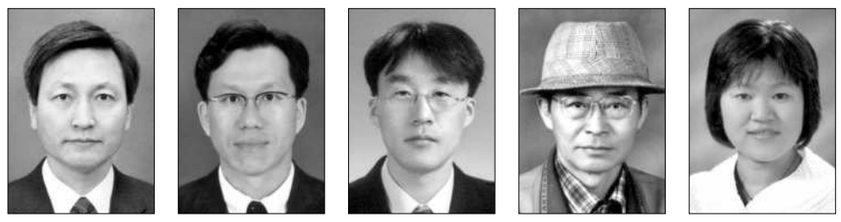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강원교직자協 회장 재임



강원 교직자협의회는 11월 30일 공주 동학사에서 총회를 열고 우진 스님(통도사 강주 · 사진)을 비롯해 회장단을 연임시켰다. 우진 스님은 1980년 사미계, 91년 비구계를 수지했고 통도사 중강 등을 역임했다.

강원교직자협의회는 11월 29~30일 동학사서 열린 연수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교직자의 사명과 자세'와 허달 한국화인케미칼 상임고문의 '사회 변화의 흐름과 불교의 역할' 주제 특강 등을 들었으며, 〈치문〉〈선요〉〈도서〉 교재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남동우 기자



박홍우 씨 백동하 씨 백승봉 씨 이광표 씨 장혜정 씨

현직 부장판사 · 교수 등 국제포교사로

이메일 · 웹캠 이용 시험친 加교민 등 27명 합격

조계종 포교원이 11월 29일 발표한 2006년도 국제포교사 선발고사 결과 현직 부장판사가 합격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박홍우(55)씨는 사법시험 22회 출신으로 82년 춘천지법 판사 부임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회장 출신인 박씨는 사법연수원 다르마법우회 지도교수, 서초반야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캐나다에서 이메일과 웹캠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 브리티스콜롬비아 부동산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백동하(46)씨는 화계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무불선원에서 참선을 수련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 백씨는 서광사 참선수련모임 '서광수련회'를 결성했으며, 서광사 학생부 · 청년부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

백승봉(35)씨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방외국어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 대원여고 · 외고 교사생활을 한 뒤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고령 합격의 영예는 이광표(64)씨가 안았다.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연구실장과 방송통신교육연구실 전국방송통신 교육분야 연구원을 역임한 이씨는 공주 갑사에서 템플스테이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현재 동국대 불교학전공 4학년에 재학중인 장혜정(23)씨. 장씨는 길상사 어린이 법회 간사 출신이다.

합격자 27명은 12월 9일 오후 2시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리는 국제포교사 11기 품수식에 참가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총장 후보 보광 스님 · 이황우 · 오영교 前장관

12일 이사회서 최종 결정

동국대 제16대 총장 후보에 보광 스님(선학과), 이황우 교수(경찰행정학과), 오영교 前 행자부장관이 추천됐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지홍, 이하 총추위)는 12월 1일 학교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광 스님, 이황우 교수, 오영교 前 장관을 차기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세 후보는 각각 24표씩을 얻었다.

동국대 제16대 총장은 12월 12일 오후 3시 학교 본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11월 28일 학교 본관에서 제223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 중 4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토록 하는 등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교회-동사무소 손잡고 '복지선교'

성북구 종교편향 '물의'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종교계와 손을 잡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구성한 '교(敎)-동(洞)협의회'가 개신교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북구 관내 30개동 전체에 구성된 '교-동협의회'에는 불교 사찰, 가톨릭 성당, 원불교 교당이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성북구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수)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의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범불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범불교대회는 12월 14일, 20일, 22일 오후 2시 성북구청 임시청사앞에서 열린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도 11월 30일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박봉영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조계종 중신회 22일 행사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12월 22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전통이 젊음으로 하나되는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행사를 펼친다.

행사는 서울 · 경기지역에서 4만여명이 동참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팥죽 나누기'를 비롯해 새해달력 나눠 주기, 퓨전국악 · 비보이 · 난타 공연 등이 펼쳐지는 문화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제4회 학술 세미나

◆ 주 제 : 불교학 관련 &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 일 시 : 2006년 12월 11일(월요일) 오후1시 - 6시40분
◆ 장 소 : 서울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02-392-3234
◆ 주 관 : 영산재 보존회, 옥천범음대학,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불교음악연구소

진행순서

[등 록] 12월 11일 12:40-12:55 [개회식] 12월 11일 13:00-13:30

● 사회 : 영산재 보존회 스님

- 개회인사 조환우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장, 봉원사 주지)
- 격려사 김구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영산재 보존회 총재)
- 격려사 마일운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옥천범음대학 학장)
- 격려사 이기봉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영산재 연수원장)
- 특별초청 인사 - 홍윤식
(동국대명예교수, 한국전통예술학회회장,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발 표] 12월 11일 13:00 - 18:40

● 진행 : 법현스님(동국대 한국음악과교수, 영산재 기획, 홍보부장)

13:30 - 14:00
1.불교와 법 - 불교와 인간(이명복 동국대학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박형석(변호사)

14:00 - 14:30
2.연극적 측면 - 불교의례와 연희적 측면
(김흥우 동국대연극과 명예교수)
● 지정토론 : 김영렬
(전KBS PD, 호치민케이블TV 대표, 연출가, 동국대 외래교수)

14:30 - 15:00
3.국문학적 측면(김갑기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진영(충남대 국문학과 교수)

15:00 - 15:30
4.범패 관련 - 반 짓소리 연구(장휘주 박사, 서울대 국악과 박사)
● 지정토론 : 서한범(단국대 국악과 교수)

15:30 - 15:40
휴식(다과)

15:40 - 16:10
5.티베트 불교 의식의 수행적 의미 -
악樂, 가歌, 무舞 등의 개별적 요소에서 종합 의례까지
- 최로덴(명중)박사, 인도국립박물관 박사,
티벳불교고등연구소 객원 연구원
● 지정토론 : 김현남 박사(원광대 한국문화학과 외래교수)

16:10 - 16:40
6.한국 무용 관련 - 불교와 무용관련
(이애주 서울대 체육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이병옥(용인대 무용학과 교수)

16:40 - 17:10
7.전승적측면 - 영산재 전승관련(김종형(능화)박사
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지정토론 : 윤소희(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17:10 - 17:40
8.한 · 일 불교음악 관련(이미향 박사 일본용곡대 졸업 박사)
● 지정토론 : 황준연(서울대 국악과 교수)

17:40 - 18:40
종합 토론 좌장 권오성(한양대 국악과 명예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8강 : 쌍림열반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원담 스님(서울 조계사 주지) / 11월 29일

'제행무상' 아는 불자의 삶은 늘 활기찹니다

인간분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잠들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11월 29일 '쌍림열반상'을 끝으로 2개월에 걸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1100명이 등록해 매주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는 광주지역 30여 신행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와 강사진을 갖추고 진행된다. <관련기사 15면>


11월 29일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의 '쌍림열반상' 주제 법문을 끝으로 2개월에 걸친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오늘은 이번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좌인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입니다.

현대들어 서양의 식자층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인류문명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명상이 바로 인류문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지식인과 지성인들이 동양, 인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찾아 스승을 정하고 명상, 요가를 배우고 돌아갑니다. 이런 인도에서 이천오백 년 전 부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계 · 정 · 혜 열심히 닦아라"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부처님만큼 당신의 삶이 드러난 분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35세 때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 당신이 뱉으신 말 한마디까지도 전부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재세시 당신의 행동, 말씀 하나하나를 제자들이 보고들은 것을 장로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모아서 경전을 결집했기 때문입니다.

<유행경>을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일 년 전부터 사바세계와 인연이 다 되었음을 예측 하시고 인연들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왕사성에서 쌍림열반을 하신 쿠시나가라까지 일 년 동안 쪽 걸어가시면서 인간 붓다의 모습과 법의 붓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하루는 쉬어가자며 자리를 깔아 달라고 하십니다. 요즘과 달리 그때 80세는 굉장히 연로한 연세입니다. 부처님 재세시 인도사람 평균 수명이 20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누워계시니 아난이 보기에 얼마 안타깝겠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계와 정과 혜를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자 중에 계정혜(戒定慧) 삼학 열심히 닦으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첫번째 말씀이 계정혜 삼학을 닦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님들과 불자들이 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교가 융성하는 시기를 보면 그 나라의 스님과 불자들이 계율을 잘 지킬 때입니다. 계율을 모두 지키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몇 가지 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반듯합니다. 자기 계율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반듯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뒤집혀져 있습니다.

다음에 정(定)을 닦으라고 합니다. 계정혜 중에 계율을 잘 지키면 우리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배어나옵니다. 반듯한 사람들은 자체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인류문명사적으로 명상문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불자에게 삼매는 불교의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삼매를 가지도록 늘상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삼매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축원문에만 올라있는 불자이지 부처님이 말한 법의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데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할 것이 정의 세계, 삼매의 세계입니다. 절을 하든, 경전을 독송하든 주력을 하든 참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삼매로 가는 과정이라면 그 분은 제대로 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겠고, 삼매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수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부처님이 무수한 경전에서 자기 마음의 헐떡거림을 멈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 마음이 헐떡거려서 생기는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있으면 내 삶이 중생의 삶을, 흔히 말하는 업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게 있으면 두 번 시기 질투 할 것 한 번 줄어들고, 다섯 개 가지려고 하는 것 한 개로 만족할 수 있고, 나중에는 백 번 저지르려는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업을 짓지 않는 이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았는데 업을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늘상 삼매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행이, 나의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나의 마음이 삼매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으면 틀림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혜(慧)인데, 수행적 의미의 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종교에 기독교, 가톨릭교, 힌두교 이렇게 교(敎)를 붙이는데 불교는 꼭 불교라고 하지 않고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불교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고 법의 길을 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지혜를 중시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중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절대로 욕심이 많은 자리, 시기와 질투가 많은 자리 즉 헐떡거림이 많은 자리에서는 좋은 지혜, 아름다운 지혜, 따뜻한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을 잘 닦고 있으면 혜가 따라서 드러난다고 하신 겁니다.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삼매를 잘 닦고 있으면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 헐떡거림 멈춘 자리에 지혜 드러나

반듯하게 자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고요함을 익힙니다. 그러면 따로 닦으려고 하지 않아도 혜는 스스로 와서 법의 세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 때 아난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이제 가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때 부처님은 두 번째 가르침을 주십시다. "제행이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부처님 말씀에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게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불교가 어렵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어렵게 가르치거나 어렵게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행이 무상하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해 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자의 삶이겠습니까. 부처님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집착하며 제행이 무상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비불자의 모습이고, 제행무상을 알고 서 있는 지점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불자일수록 삶이 활기찹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면서 흘러가니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 스스로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귀의 법귀의 하라"는 마지막 유훈입니다.

자기에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처와 한 치의 차이도 없이 똑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듣는 우리는, 나는 중생이라고 생각하며 늘상 부처님에게 치대는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내가 여래가 되고 내가 여래인 것처럼 너도 여래가 되고 너도 여래라고 무수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내 스스로 부처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존귀하지 않은데 어떻게 옆의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거나 존경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존귀할 때 다른 것들도 다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꺼풀만 벗기면 모두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길을 잘 좇아 가면 가장 귀한 세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꼭 자귀의 법귀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을 보면 잔잔한 소설 같습니다. 부처님은 참으로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열반에 들기 전날 밤까지 계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 · 친구 · 이웃 등은 엄청난 인연

불법 만나기가 힘들다는 말을 절에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끝을 빛의 속도로 가면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천억 광년을 가야한다고 합니다. 눈 깜짝하면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가는 빛의 속도로도 엄청난 세월을 가야 은하계 끝을 갑니다. 그러니 우주세계에서 보면 지구는 먼지 티끌만한 작은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지구는 45억년쯤 되었다고 하는데, 우주의 시간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량수입니다.

무시무종이라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바늘침하나 딱 떨어지는 지점보다도 작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이 넓은 우주 속에 긴 시간 속에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의 얼굴을 보세요. 엄청나게 힘든 인연으로 만난 인연인데 우리는 그 인연을 과소평가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이 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쓸 것입니다. 이 인연을, 이 삶을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남아있는 삶도 가볍고 무시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가르침을 틈틈이 챙기면 남아있는 생,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인연으로 다같이 보살과 아라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워싱턴 보림사주지

경암 큰스님 송년 법회

송구 영신을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생의 번뇌를 어떻게 소멸하는가? 란 주제로 설법하실 美國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 큰스님을 초청법사로 모시고, 송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부디 함께하시어 설법을 들으시고, 人生無常의 인연을 깨달으시어, 새 해 정해년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합니다.

◆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낮 12시 ~ 3시
◆ 장 소 : 한국일보 송현클럽 12층 (전화 : 02)724-2914)
◆ 연 락 : 02)913-6311, 010-2410-7652, 017-709-5525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美國 워싱턴 보림사 한국 분원 · 아란야 국제 불교 총림 · Washington peace University 설립 추진 위원회 一同


지율스님의 손.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대법원 판결 비판 토론회

"역사 비판 아직 남아"

환경 운동가들 한자리
지속적 연대 방안 모색

최근 천성산 터널 구간 공사 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율 스님이 곧바로 항고하기로 하고 항소이유서 작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토론회를 부산의 <공간초록 www.spacechorok.org)>에서 연다.

12월 15~16일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향후 환경 운동의 실천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을 안고 '2006년, 생명의 대안은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환경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진행됐던 새만금, 천성산, 을숙도의 법정 공방이 모두 대법원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환경 운동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의 희망적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세 사안의 현장에서 함께 했던 활동가의 소회를 듣는 시간으로 새만금-고은식, 천성산-박영관-을숙도 박중록, 김음정 활동가 등이 그간의 활동에서 환경운동의 현재와 새로운 실천과 희망의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는 '대법원 판결문, 한국사회의 현재'라는 주제로 법률 전문가, 시민, 지율 스님 등이 발제자로 나서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비판의 시간을 갖는다. 인제대 강제규 법학과 교수, 이계삼 밀양 밀성고 교사가 법원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지율 스님이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법'이라는 발제를,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한국 사회의 현재, 국토 생태계의 미래'라는 발제를 이어간다.

지율 스님은 "인간의 법정에서는 패소로 끝이 난 듯하지만 자연과 역사의 엄중한 비판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새만금의 짱뚱어, 천성산 도롱뇽, 을숙도의 고니가 우리에게 건넨 이야기들을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불교사회복지협 사례발표회

우수 기관 · 직원에 시상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회장 혜총)는 11월 29일 부산 크라운 호텔에서 제6회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 스님, 두송복지관 관장 지현 스님 등을 비롯 부산불교계 복지관 종사자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의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김연하 개금복지관 팀장, 임수영 선재어린이집 원장, 이현정 화명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13명이 상을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공창복지관 송선명 복지사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 6일제 가정아동들의 가족기능 강화 및 심성개발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보현어린이집 시미선 주임교사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천미희 기자

"깨달음 향한 정진 늦추지 말길"

대불청 부산지구 현각 스님 초청법회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선원장 정여)과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는 11월 25일 부산 여여선원 법당에서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현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을 초청법사로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현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물질적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서양에서 오히려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을 갈망하고 있다"며 "불교의 철학과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공존을 가져다주는 진리이므로 스스로 깨달음을 향한 정진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법문했다.

현각 스님의 법문에 이어 1시간여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불교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른 기도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각 스님은 "불교는 깨달음 향한 정진의 종교다"며 "기도를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힘을 주는 것일 때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천미희 기자

화명복지관 지역 어르신잔치

11월 28일 화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정) 강당에 모인 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은 새로운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화명복지관이 개관 2년 만에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 '황금시대'를 마련하면서 이성식 북구청장, 송찬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장, 안기석 부산노인대학 협의회 고문 등 지역의 어르신들이 환한 웃음을 띠며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관장 유정 스님은 "이렇게 많은 아버님, 어머님을 모실 수 있어 기분이 너무 좋다"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근심걱정 잊으시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금정문화원 회원들의 경기민요, 승산한국춤회 회원들의 공연, 금화혜인대학 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천미희 기자

실상문학상, 양은순씨 본상 수상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이사장 혜총)는 11월25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제 9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부산여류시인협회 회장 양은순씨(사진)가 본상을 강민수 시인과 정옥금 시인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양은순 씨는 수상소감에서 "본인에게 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로 표현하는 경이로운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다례와 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전법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 부산 보광정사서 창종법회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총무원장 지홍)는 11월 25일 총무원이 위치한 부산 금사동 보광정사에서 창종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보살계 수계법회에 이어 봉행된 이날 창종법회는 창종선포, 창종 설립 경과보고, 총무원장 지홍 스님의 창종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지홍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부처님의 대승불교 사상으로 중생세계에 이익을 주면서 교화하는 보살행으로 수행의 지표를 삼아야 한다"며 "전종도들이 대승불교의 사상을 근간으로 중생세계가 다하도록 중생교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는 2005년 9월 창종준비모임을 가진 이후, 2006년 10월 13일 창종 발기인대회를 갖고 종정에 혜관 스님, 총무원장에 지홍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2005년 12월 경남지역 종무원을 개원했으며 2006년 5월에는 중부 종무원을 개원했다. 현재 전국에 60여 사찰이 대한불교조계종대승불교에 등록돼 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한정인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회장

우연은 없다고 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삶의 행로가 자연스럽게 불교로 흘러온 사람이 있다. 대한불교청년회 울산경남지구 한정인(41 · 정행) 회장의 삶이 그렇다.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석왕사에서 6개월을 산 것이 인연이 돼 불교를 알게 됐고 1989년 직장을 따라 울산으로 옮겨 왔을 때 그는 노동운동 대신 불교운동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타향인 울산이었지만 '불교'가 있어 그에겐 울산은 살만한 도시가 됐고 내면세계를 키워준 고향이 됐다. 그래서 그는 울산 불교를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청년 불교가 한창 불붙었던 시절에 불교 운동을 시작했으니 지금의 침체된 불교 현실이 더욱 안타깝다.

울산에 오자마자 몇날 며칠을 헤매며 찾아간 곳이 해남사였다. 곧바로 해남사울산불교청년회에 가입해 사물놀이팀을 만들어 활동했다.

"그때는 법회인원이 120명이 넘었어요. 신이 났죠. 그러나 노동운동을 하던 눈으로 봤을 때는 조직관리나 지도자 양성이 너무 안 돼 우려도 컸습니다." 한 회장의 우려는 그리 머지않아 현실로 드러났다. 청년회 활동이 침체되기 시작하더니 법회 인원이 현저히 줄었고 지금 울산에서 청년회 법회가 열리는 곳이 3~4곳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나 한 회장에게 포기나 절망은 없다. 노동운동 당시부터 '강성'으로 통했던 그는 불교를 통해 성품은 많이 유해졌지만 아직도 될 때까지 하고야 마는 근성을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회장은 '지칠 줄 모르는 무한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통한다. 청년 불교의 침체를 말하는 시점에서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을 쉼 없이 해나가기 때문이다.

"청년 불교가 무너지면 한국불교의 '허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청년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기에 한 회장은 물러날 수 없다. 마치 전쟁터에서 생명을 내걸고 앞으로 전진 하는 병사처럼 청년불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에 임한다.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법회 프로그램 개발이 미래 청년 불교를 일으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는 한 회장은 "앞으로 중앙과 지역의 연계, 지구와 지회의 연계하고 지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쉬고 있는 지회의 법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 회장은 취임 직 후 조직의 말단 챙기기에 나섰다. 각 지회 순회 법회를 시작한 것이다.

될때까지 하고 마는 '무한에너지 지닌 사람'

창원 · 거제 등 순회하며 '활성화' 함께 모색

울산은 물론 진주, 통영, 마산, 창원, 거제까지 지회순회를 하고 돌아오면 새벽 1,2시를 훌쩍 넘기곤 했다. 그러나 한 회장은 쉬지 않고 지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를 열었다. 청년 불교 운동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임원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활동이 청년포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지금은 활동을 접었지만 2000년 초에는 울산불교신행단체연합회의 사무국장을 맡아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포교지 월간 '불향'을 만드는 중심에 있기도 했다. 그가 말하는 청년 불교운동의 종착지는 '회향'에 있기에 그는 울산과 경남의 불교 발전에 청년들이 제 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는 결코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뿜어내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현몽을 통해 이어진

인연 따라 불광사에 온 흰색자라 구경하러 오세요

얼마 전 우리 불광사에는 세계에서 두 마리뿐으로 추정되는 희귀한 '하얀 자라' 한 마리가 있어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불광사에 보호 중인 이 자라를 보기위해 하루 수백 명이 사찰을 찾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희귀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봉스님(불광사 주지)이 지난달 말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서 데려온 이 자라는 1년 5개월 된 암컷으로, 길이 20cm 무게 400g의 체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몸체는 물론 머리, 다리 등 전체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55)364 -4747
경남양산시 웅상읍 주진리 656번지

청봉스님은 "꿈속에서 용궁에서 왔다는 흰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자신을 위해 불광사에서 기도하여 좋은 곳으로 보내 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간절히 애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에 무심결에 TV를 켰는데, 뜻밖에 YTN TV뉴스에서 흰색 자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구요.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해 보니 수천만원을 호가한다는 말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꿈에 흰색 자라가 나타나 '스님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절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시며 흰 자라의 등에 올라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꿈에서 두 번이나 부탁하는 자라를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일찍 자라가 있다는 충북 청원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직접 가서 흰색자라에게 사과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물어물어 힘겹게 찾은 흰색자라 주인에게서 뜻밖에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들도 스님과 비슷한 선몽을 받았는데 '흰색 자라를 팔면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스님이 데려가서 흰자라가 현몽한 대로 기도한 후 좋은 곳에서 살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흰 자라가 우리 불광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흰 자라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SBS TV 생방송 투데이프로그램과 언론사에 화제기사로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구경하러 오고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기바랍니다.

2006년 12월 좋은날

천성산 불광사 신도일동

추운 겨울 자비의 손길로 '따뜻'



보현의 집-외국인 근로자 위로
경주장애인복지관-김장 보시
영남불교대-결식아동돕기 등

11월 26일 구미 마하붓다 보현의 집이 주최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 나라 전통음식을 공양하고 있다.

병술년의 마지막 달. 추운겨울을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자비의 손길이 지역 교계 곳곳에서 펼쳐져 훈훈함을 더했다.

구미 외국인 근로자 상담지원센터 마하붓다 보현의 집(대표 진오)은 11월 26일 집 앞 잔디 마당에서 구미지역 외국인 근로자 120여명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열었다. 경주장애인복지관(관장 종광) 재가복지센터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역저소득 재가 장애인 70여 가구에 전달할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12월 2일 옥불보전 4층 법당에서 '25242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가졌다.

또, 12월 1일에는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영천 수덕예식장 지하 수덕뷔페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찻집을,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대화예식장 커피숍에서 재가 장애인 월동비 지원을 위한 일일 찻집을 각각 열어 훈훈한 정을 나눴다.

특히 지난달 26일 마하붓다보현의집에서 열린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각 나라 고유의 음식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미지구 협의회(회장 최재옥)가 후원한 목도리가 전달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로운 타국에서 따뜻한 모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국의 악기와 노래 연주로 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스리랑카의 근로자 리샤트(25)는 "엄마 같은 분들이 따뜻한 목도리를 목에 걸어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3년째 개최하고 있는 결식아동돕기는 초·중·고 대학생불자들이 뜻을 모아 주변의 관심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겠다는 뜻으로 '동무들아 함께 가자 희망등대로~'라는 구호 속에 다양한 먹거리 장터와 각종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영남불교대학은 "25242란 2003년도 대구광역시 결식아동 통계숫자"라며, "지금은 결식아동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급식 등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과 후나 방학기간에는 여전히 굶는 아이들이 많다"며 "모든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세상을 바라보고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날까지 이 행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불교대학은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결식아동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나눔은 곧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은해사 일일찻집에서는 점심 저녁 공양시간인 12시와 19시에 영천국악연예협회원들의 공연도 펼쳐져 병술년 한해를 마감하며 은해사 사부대중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맑고 향기롭게 10주년
2007년 사업계획 발표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본부장 고경순)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원의 밤 행사를 11월 24일 맑고 향기롭게 대구법당에서 개최했다(사진).

외부인사 초청없이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과 15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했다. 행사는 삼귀의, 실천강령제창, 본부장 인사, 덕조스님 축사, 10년간의 활동사진영상 상영, 모범회원 상패수여, 차기본부장에게 임명장 수여, 케익절단, 006년사업보고 및 2007년 사업계획발표로 진행됐으며, 고경순 본부장이 내년에도 본부장을 맡기로 하고 임명장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대한불교선종 스님 7명 배출

대한불교선종(총무원장 회범)이 2001년 창종 이후 첫 수행자를 배출했다. 대한불교선종 총무원 영흥사에서 11월 25일 제1회 사미·사미니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사미6명 사미니1명 등 7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또, 600여명의 재가불자들에 대한 대승보살계 수계식도 봉행했다. 수계식에는 대한불교선종 종정 도원 스님과 원로의장 효담 스님, 총무원장 회범 스님을 비롯한 종도 스님과 재가불자등 700여명이 동참했다.

종정 도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무릇 계는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법규이니 사부대중은 위로는 삼보사중의 은혜를 갚고 밑으로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라"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영불회 새회장 이관호 교수
지도법사 정법 스님 위촉

대구 영남대학교의료원 불교신행회(이하 영불회)는 이관호 교수(호흡기 알레르기 내과)를 회장으로 하는 제7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11월 29일 병원 내 법당에서 고불식을 봉행했다.

영불회는 이날 정법 스님(지산선원)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영불회 회원과 불자자원봉사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1994년 창립된 영불회는 1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분기별 의료봉사활동과 춘계수련회, 해외의료봉사활동 등을 펴고 있다. 배지선 기자

일연선사 탄신 800주년 기념
제1회 군위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일연선사의 탄신 8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군위 삼국유사 전국마라톤대회'가 11월 25일 군위군청 앞 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삼국유사>의 집필지(인각사)인 군위를 알리고 일연선사의 생애와 정신을 재조명,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군위군과 군위군의회가 주최한 것이다.

전국마라톤협회(회장 장영기)와 인각사(주지 상인) 주관으로 열린 이날 마라톤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28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미8군 캠프헨리 19지원사 소속 미군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대회에서 하프 30대 남자부는 폴란 캐스트(Paul Lancaster, 미군)가 1시간 15분 52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하프 여자부는 안젤라 잭슨(Angella Jackson, 미군)이 1시간 24분 28초로 1위를 기록했다.

배지선 기자

선광사 태안지장전 고불식

대구 동구 선광사(주지 예산)는 태아영가 천도를 위한 전문공간인 태안지장전 건립불사를 위한 고불식을 11월 28일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장 법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선광사 3층에 들어설 80여평 규모의 태안지장전은 태아영가 천도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내년 봄에 개원할 예정이다.

주지 예산 스님은 "태아의 영혼을 달래고 참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태안지장전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집보다 절이 더 좋아요

대구 염불선원

대구 염불선원(주지 성범)은 일흔 넘긴 어르신 십여 명이 스님과 함께 수행정진하는 절로 유명하다.

1996년 입적한 수산 스님을 따르던 어르신들이 모여 여생을 부처님 전에서 수행정진하며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11월 29일 사시예불시간에도 극락보전에서는 어르신들의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연 중 한번 있는 미타참회기도 기간이라 수십 년 전부터 수산 스님을 따르던 전국의 어르신들이 찾아와 여느 때보다 많은 대중들이 동참했다.



저렴한 생활비로 노인들 불편함 없도록 숙식 제공
법문 자주 듣고 법담 나누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오전 11시 30분, 사시기도가 끝나자 극락보전에서는 50여명의 어르신들이 나왔다. 연세가 70~80은 족히 넘은 어르신들인데, 수행정진하며 스스로를 가꾼 탓일까? 연세의 많고 적음을 떠나 법복을 정갈히 갖춰 입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아름답다. 게다가 얼굴에는 부드러움과 인자함이 가득했다.

"공양 시간이에요. 공양하고 가세요."

어르신들의 말씀에는 조용함과 따뜻함이, 행동 하나하나에는 오랜 기간 정진해온 빛이 역력하다.

류법명화(85세)보살은 염불선원에 들어온 지 19년이 됐다. 젊은 나이에 혼자되어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는 법명화 보살은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왔단다. 그러다보니 효자로 소문난 두 아들이 있는데도 집보다 절이 좋아 이곳에서 살게 됐다.

염불선원은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요사채와 스님들의 요사채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2000년 새롭게 건립한 재가불자들의 요사채에는 1층과 2층에 20개의 방사가 마련돼 있는데 한 평 남짓한 방에는 화장실과 옷장이 달려 있어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돼 있다.

"월 20만원 생활비로 따뜻한 방에 세 끼 공양이 제공되고, 무엇보다 스님법문을 자주 들을 수 있고 하루 세 번 진행되는 정근 기도에 동참해 스스로의 길을 닦아 나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다. 어르신들은 새벽3시에 일어나 새벽정진과 사시예불 저녁정진에 참가하고 낮에는 도반들과 법담을 나누기도 한다.

염불선원은 재가자들이 정토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년 전 수산 스님이 창건했다.

성범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모든 범부중생은 누구나 서방정토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토에 나겠다는 원을 세워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며 염불삼매에 드는 수행을 한다면 성불하게 된다"며 "이것이 바로 근기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성불에 이를 수 있는 큰 길이며 정토수행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東谷堂 日陀대종사 열반 7주기 추모대재

귀의 삼보 하옵고
동곡당 일타 대종사님의 열반 제 7주기 추모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 및 여러 사부 대중께서는 두루 참석하시어 분향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일시 : **2006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음 10월 22일)
◆장소 : 충북 단양 **광덕사 백만불전**
◆주최 : 동곡문도회
◆주관 : 대한불교 조계종 도락산 광덕사

문의처
단양 광덕사 종무소 043) 721-4700
● 주소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산30-1번지

문도 대표 包山 慧印



“사찰순례 하고 농민 살리고”

도선사 신도 3000명, 송광사 참배 · 직거래장서 특산물 구입

조용하던 산사에 시끌벅적한 장이 섰다. 11월 29일 오후였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일주문 앞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 것이다.

순천시와 지역 농협이 간이천막을 치고 쌀, 김치, 뽕잎차, 친환경 밥, 산나물 등 30여 가지 지역 특산물을 펼쳐놓았다. 손님은 서울에 사는 불자들이다.

이날 서울 도선사 신도들이 사찰순례차 송광사를 찾았다. 대중이 무려 3000여명으로 송광사 창건 이래 최대였다.

이들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함께 전국 사찰을 찾아 기도정진하는 ‘108순례 성지순례단’으로 통도사, 해인사에 이어 세 번째 순례길이었다.

농산물 시장은 사찰 참배와 기도정진이 끝난 오후에 시작됐다. 천막마다 농민과 순천시 나승병 부시장,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귀경에 앞선 불자들은 너나없이 양손에 먹을거리를 사들고 나섰다.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맨 오른쪽)과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순천지역 농업관계자들로부터 특산물을 구입하는 모습.

친환경 밥을 구입한 도선사 신도 무위행보살(63 · 인천)은 “사찰순례 때마다 지역 특산물을 찾는데 믿음이 가지 않았다”며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찰에서 선물을 받아가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번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요청으로 송광사와 순천시, 지역 농협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송광사 참배에 앞서 혜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촌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며 “사찰참배 뿐 아니라 농산물 장터를 활성화시켜 농촌 살리기에 불자가 앞장서자”고 말해 사찰순례 때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뜻을 밝혔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도 “사찰에서 열리는 농산물 장터는 도시와 농촌사찰, 도심 불자와 지역민이 상생하는 자리로 새로운 사찰순례 문화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농산물 장터에서 순천시와 순천농협은 송광사와 도선사에 쌀을 선물했고, 혜자 스님은 지역 복지시설에 성금 108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도선사 순례단은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108참회정진, 발원 등 기도정진을 하고 국사전-수선사(선방)-응진당-관음전-승보전 참배로 송광사를 순례했다.

이로써 ‘도선사 108성지 순례단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괘불이 내걸린 야단법석은 아니지만 사찰과 지역주민,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을 향한 ‘장터법석’이 되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절에서 엄마랑 절하고 싶어요”

원각사 어린이법회 김경희양 급성골수염 백혈병으로 투병



광주 원각사 어린이법회에서 참선을 잘하는 김경희(11 · 사진) 어린이. 경희양이 지난달 급성 골수염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화순 전남대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희양이 어린이법회에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몇 차례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고 골수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보다 경희양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 듯 들어가는 치료비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경희양은 “하루빨리 엄마 손잡고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고 싶다”며 천진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광주사암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11월 29일 경희양 돕기 모금운동을 펴고 성금 208만 5150원을 모금해 경희 양에게 전달했다. 후원 광주은행 019-107-319286 예금주 원각사 (062)223-3168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본부, 1400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스님)는 11월 27일 화순 전남대병원장실에서 생명나눔 투병지원 치료비 1400만원과 헌혈증서 1000매를 전남대병원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남대 병원에 전달한 성금은 서울 동국대에서 개최한 자선음악회와 지역본부장 취임식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3명에게 치료비로 전달된다. 이준엽 기자

여래종, 최고위원 추대법회



한국불교여래종은 11월 30일 총본산 금강대약사사에서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 추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300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주 의천 해원 동진 법제 만오 스님이 최고위원으로 추대됐다.

이에 앞서 여래종은 창종 41주년을 맞아 11월 26일 금강대약사사(주지 명안)에서 ‘국태민안 세계평화 기원대법회’를 열었다. 여래종 종도의 원력과 개혁의지를 담은 창종기념비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참가대중 500여명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2007년 원만회향되기를 발원했다. 이 자리에서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은 “불교를 홍포하고 종단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모든 종도가 힘을 모아 나가라”고 당부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네꿈을 펼쳐라’ 고교생 특강 호응

청주불교방송이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섯차례의 특강을 열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명사초청 방송강연회-네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열린 특강은 11월 28일 오창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주 대성고, 제천고, 청주 세광고, 충주여고 등 5개 학교에서 열렸다. 프로야구 송진우(한화 이글스) 선수를 비롯해 민용태 고려대 교수, 전여옥 국회의원, 정봉규 지엔텍 회장, 최동철 스포츠 평론가가 강단에 올라 그들의 인생관과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태고종 충북교구 ‘의식개혁운동’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원장 월담)은 11월 28일 원무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태고종 충북교구는 내년 소속 사암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두고 △의식개혁운동 △애종심 고양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속 사암의 분담금을 각각 50%씩 상향조정해 재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호남에 미륵대불 ‘우뚝’

담양 용화사, 기념 전시도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11월 26일 호남 최대규모의 석조 미륵대불을 조성하고 점안 및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안식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과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사암 스님과 이정섭 담양군수, 허경렬 담양경찰서장 등 지역 기관장,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불교영산회 주관으로 펼쳐진 점안식에 이어 주지 수진 스님은 “종정을 역임한 묵담 스님의 유훈에 따라 국민통합 경제부흥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미륵대불을 모셨다”며 “바른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불제자가 되어 용화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용화사는 미륵대불 점안을 기념해 ‘연담사기전’ 특별전을 2007년 1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우토로 교포 돕기 음악회



무등산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환경과 평화를 기원하며 음악회를 개최하는 무등산 풍경소리가 일본 우토로교포돕기 음악회를 가졌다.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와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무등산 풍경소리는 11월 25일 광주 5 · 18 기념공원에서 48번째 음악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야기손님으로 초청된 5 · 18기념재단 이홍길 이사장과 배지원 우토로 국장은 “60년이상 우토로에서 살아온 동포들이 계속 살수 있도록 관심 갖고 격려하자”고 호소했다(사진).

한편 일본 교토에 자리한 우토로는 일제 강점기에 군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살고있는 해방되지 않은 마을(www.utoro.net)이다. 최근 65세대 200여명의 재일 조선인이 강제 철거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이준엽 기자

“한국불교 위대함 믿어라”

충북불교대 현각 스님 초청 특강

‘푸른 눈의 납자’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이 충북 청주를 찾아 참나를 발견하는 공부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11월 29일 충북불교대학(학장 각의)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사진)에서 현각 스님은 500여 대중에게 “불교는 일방통행의 가르침이 아니라 큰 의심을 갖고 대화식으로 의심을 풀어 스스로 참나를 찾는 공부”라며 “내면 보다 밖의 모습에 치우쳐 살고 있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서양의 종교와 정치, 교육의 한계를 느끼던 중 은사 숭산 스님을 만나 출가한 인연을 소개하며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온 세상이 그런 모습인 줄 착각하듯 자기의 참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국불교의 위대함을 믿고, 환자가 약을 먹고 치유하듯이 선(禪)을 약으로 삼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043)263-2369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2007학년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서울 · 부산]

모집과정
• 입문과정 (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 대 학 과 정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 대학원과정 : 주간 및 야간반 00명 [주2회 출석]
• 통 신 과 정 : 대학 00명 / 대학원 00명 (※대학원은 월 1회 의무 출석)

지원자격
• 대 학 과 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인,직장인환영)
• 대학원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법사,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2월 1일 – 2007년 2월 28일
• 대학, 대학원과정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카드결제 됩니다 (할부가능)
▣ 장학혜택 : 부부(가족)입학시 : 50%. 성적우수자 : 50%, 스님 : 30%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외한은행 : 630-005063-139 [예금주:대한불교진흥원]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7-1072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 의
•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02)707-1072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특 전
• 불교학과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해 법사품수식을 거쳐 법사자격증을 드립니다.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불교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상담, 청소년상담,가정상담등)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1급불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 02)707-1072 / Fax 02)3273-1618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 051)583-7811
www.buddhaschool.or.kr

진각종, 스리랑카 현지 포교 팔 걷었다

국민전체의 70%가 불자인 나라 스리랑카에서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11월 28일 의미있는 두 가지 행사를 개최했다. 회당학회가 켈레니아대학교 불교팔리대학원에서 주최한 '제4회 국제학술대회'와 네곰보 진각복지센터(JGO) 부설 유치원에서 진행된 졸업식이다.

진각종은 이번 학술대회를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의 유사성, 특히 각국 밀교의 뿌리를 조명하고 각국의 활발한 불교학 연구를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또한 2004년 개원한 네곰보 진각복지센터(JGO) 부설 유치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배가 증원된 1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진각종이 스리랑카 포교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본격 나선 것이다.

진각종 회당학회, 스리랑카서 국제 학술대회

"밀교 번성 흔적 탄트라 새긴 유물서 확인"
"바닷길로 전파"…양국 불교 유사성 조명



진각종은 11월 28일 스리랑카 켈레니아대학교 불교 팔리대학원에서 '제4회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밀교의 뿌리를 조명했다. 사진은 회당학회장 혜정 정사가 주제발표하는 모습.

'제4회 국제불교학술대회'를 시작하며 대회장인 혜정 정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유사성을 찾고자 열었다"며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켈레니아불교팔리대학원과 한국 정통 밀교종단인 진각종 회당학회 사이의 만남이 보다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상가 틸리카라트나 학장(켈레니아대학교 대학원 불교팔리학과)은 "스리랑카는 초기불교를 비롯해 모든 시기와 형식을 아우르는 불교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불교를 알고 스리랑카 불교를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남인도의 대승불교와 밀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회당학회장인 혜정정사가 '남인도에서 금강지와 불공의 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비롯, '스리랑카에서의 밀교'(에머리투스 켈레니아대 교수), '해로를 통한 밀교문화의 전파와 특징'(신상균 위덕대 교수·무외 정사), '초기불교와 밀교의 상호관계성'(올리버 아베나야카 켈레니아불교팔리대학원 교수), '진언의 형성에서 파릿타의 역할'(진각대 허일범 교수), '스리랑카에서 밀교발생의 배경 요인'(나비리탄카다와라 켈레니아대 교수) 등 6명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혜정 정사는 "부처님 열반 후 수행자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고 결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나 이같은 전통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편이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인 밀교"라고 밀교 성립배경을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또 "중국에 밀교를 전하고 초석을 닦은 이는 금강지와 불공으로 이들의 고향인 집사자국(지금의 스리랑카)은 밀교경전결집을 회향한 장소이기도 하다"며 "집사자국이 밀교의 발상지에 속하는 예로, 현재 스리랑카에서 법회할 때 석가모니불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28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밀교의 만다라형 사원건축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외 정사(위덕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중기밀교가 전파된 근거를 인도네시아 자바의 대표적인 유적 '보로부두르 대탑'과 밀교의 전래승인 금강지(제5조) 불공삼장(제6조)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무외 정사는 또 "해로를 통해 밀교가 전파되는데 인도네시아 자바와 수마트라섬이 중계지였다"며 "보로부두르 대탑은 자바의 밀교가 어떤 것이었느냐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임과 동시에 만다라도의 입체화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리버 교수도 "부처님은 의식과 의례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초기불교가 밀교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말했다.

또 나비리탄카다와라 교수는 "스리랑카에 밀교 사상을 소개한 담마류지는 밀교 교단으로부터 발전했고 인도의 팔라바라마로부터 스리랑카에 밀교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에머리투스 교수는 '스리랑카에서의 밀교'를 주제로한 발제에서 "일부에서는 12세기에 스리랑카 전역에 밀교가 번성했다는 학설을 부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밀교의 번성 흔적은 탄트라가 새겨진 탑과 탄드라적 불상, 불교건축물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글·사진/스리랑카 콜롬보=김주일 기자

"밀교 아우른 학술연구 전념"

interview 켈레니아 불교팔리대학원 아상가 학장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교와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전통을 아우르는 학술적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켈레니아불교팔리대학원 아상가 학장(사진)은 국제학술대회 후 가진 인터뷰에서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교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상가 학장은 "스리랑카에는 밀교 유적들이 산재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종파는 남아있지 않으며 전통과 유적 등은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스리랑카 밀교를 실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상가 학장은 또 "불교 팔리대학원은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상좌부 불교의 중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갖고 불교학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각종을 한국의 대표적인 밀교종단으로 알고 있다는 아상가 학장은 내년에 한국에서 근무한다. 연세대학교 불교사회학 교환교수로 재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켈레니아대학교 불교팔리대학원은 1875년 승가대학으로 시작해 1959년 영국학제를 받아들여 현재 불교관련 대학중 최고 핵심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켈레니아대학교에는 현재 700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불교팔리대학원에는 300명이 수학하고 있다.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팔리대학원에는 60명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100여 명의 외국학생 중 한국학생 10명이 공부하고 있다.

콜롬보=김주일 기자

"잠자는 밀교 깨우는 계기로"

interview 진각종 회당학회장 혜정 정사

"스리랑카의 묻혀진 밀교를 드러내고 잠자는 밀교를 깨우고 싶었습니다."

11월 28일 스리랑카 콜롬보 켈레니아 국립대학 불교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스리랑카 불교국제학술대회'를 연 진각종 회당학회장 혜정 정사(사진)는 이번 학술대회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혜정 정사는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 "우리나라 불교는 해로나 육로를 통해 들어오면서 다양화되고 변화된 것이 대승불교 또는 통불교로 인식되어 왔으나 스리랑카 불교는 처음 들어온 불교가 변함없이 내려오면서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초적인 불교가 지금 시대에 맞도록 생활화되었다"며 "생활불교를 표방하는 스리랑카 불교가 소승불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또 "스리랑카 불교가 소승불교로 잘못 알려진 부분을 연구를 통해 밝히고 싶었다"는 "한국의 회당학회와 켈레니아 불교팔리대학원과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불교적 학문과 수행의 성과를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당학회는 지난 2000년 한국에서 몽골, 일본, 인도 학자 등이 참여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회 중국(시안 법문사), 3회 일본(고야산)에 이어 올해 스리랑카에서 4회째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회당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밀교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콜롬보=김주일 기자

JGO센터 부설 유치원
최고 시설·프로그램 자랑

2회 졸업생 100명 배출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11월 28일 2006년도 졸업식을 거행하고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스리랑카 JGO센터 부설 유치원(원장 겸 지부장 무오)은 11월 28일 '2006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100명의 졸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며 유치원 졸업을 아쉬워했다.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경제적 문제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현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 근간으로 현대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스리랑카의 몇 안되는 유아교육기관이다. 회성 정사(진각종 총무부장)를 비롯해 호당(문사부장)·지정 정사(재무부장) 등 한국대표단과 유치원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졸업식은 환영식 점등식 인사말 치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성 정사(총무부장)는 치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은 스리랑카의 희망찬 미래"라며 "유치원에서 배운 것처럼 늘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스리랑카의 큰 기둥이 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스리랑카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2005년 1월 정식 개관해 그해 12월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6년부터는 정원을 기존의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네곰보 가따아나시 지역 아이들의 학교 입학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네곰보 지역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유치원으로 자리매김한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2006년 2월에는 한국국제협력단과 NGO지원사업 약정을 맺기도 했다.

스리랑카 네곰보=김주일 기자

토황토 배찜질기

제품구조설명
1. 원적외선세라믹보드
2. 황토세라믹 볼
3. 열선
4. 단열제
5. 온도과열방지장치
6. 전기휴즈
7. 케이스
8. 융싸개

토 황토 배찜질기의 특징
1. 국내 최초 축열식 배전용찜질기
2. 직접가열 축열식 충전시스템
3. 고 기능성 황토볼 사용
4. 원적외선 이중방사
5. 사용 시 유해전자파 무
6. 제품사용의 편리성
7. 저렴한 전기료
8. 인체 공학적인 설계
9. 전기안정된 제품 설계

전화 주시면 즉시 물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증 후 결재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 보장

배만 따뜻하게 하십시오. 오장이 튼튼합니다.

배전용찜질 용도 이외에 허리, 가슴, 어깨, 손, 발, 무릎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쑥베게
밤새껏 쑥향을 맡으며 푹 주무십시요.
• 규격 : 가로 55㎝×세로 35㎝
머리가 맑아지며피로감이 사라져 몸이 참 개운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웃 짓고 물염하며 사시는 맑고 밝은 김순옥 보살님의 솜씨입니다.

초특가!! 1+1+1+1=4개를 98,000원에 드립니다.

조계종 9대 종정 큰스님 친서화 부자되라는 글
• 규격 : 가로 29㎝×세로 24㎝
※ 금장도금, 고급 양장 케이스
※ 단체 주문시 보시 가격에 드립니다.

돼지 액자
불자님 각 가정마다 행운을 기원하며 큰 스님께서 친히 내리신 친서화입니다.
내년은 정해년 돼지해
내년은 100년만에 찾아온 금돼지 해 입니다.

쑥방석
천연 우리 쑥 100% 천연 황토물염 쑥향이 가득합니다.
• 규격 : 가로 50㎝×세로 50㎝×높이 5㎝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 마음이 개운하며 머리가 참 맑아집니다.
- 30分만 앉아 있어도 방안에 쑥향이 가득하며 실내의 잡냄새가 제거됩니다.
- 혈액순환을 돕고 발한작용을 촉진시키고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큰마을 사람들
전남 순천시 석현동 896번지
주문전화 : 061)755-4879
농협 : 601063-52-099899 예금주 : 박미숙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5,8219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강원도 청소년 2200여명이 서울 온 까닭은?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 용전중학교 학생들은 출연 배우들과 무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사진 가운데 왼쪽부터 월정사 포교국장 자월, 재무국장 법상, 총무국장 적천 스님, 이경순 평창교육청 교육장, 배우 전수경씨, 유희성 서울시 뮤지컬 단장, 문수청소년회 사무국장 해량 스님.



진부중학교 학생들이 공연 시작 전 팸플릿을 보고 있다.



진부고등학교 학생들이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디카로 사진부터 찰칵찰칵.

월정사 문수청소년회, 지역 중 · 고생 초청 뮤지컬 '애니' 관람

#진부고 학생들, 경복궁 경회루 배경으로 사진 '찰칵'

11월 29일 낮 12시 30분 경. 경복궁 주차장으로 관광버스가 연이어 도착했다. 잠시 후 감청색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버스에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조금 추워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들 얼굴은 생기발랄함 그대로다.

이들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위치한 진부고등학교 학생들. 평창 월정사 문수청소년회(총재 정념 · 월정사 주지)가 마련한 네 번째 문화예술탐방 뮤지컬 '애니' 관람을 위해 아침부터 서울을 향해 달려온 것이다.

1학년 4개 학급과 2학년 4개 학급 등 모두 220여명의 학생들이 경복궁 앞마당에 들어서자 주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아이들은 주머니에서 디카와 폰카를 꺼내 삼삼오오 모여 사진부터 찍기 시작했다.

경복궁 내부로 들어선 학생들은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근정전을 신기한 눈길로 둘러봤다.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사신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를 배경으로 멋진 포즈를 취하기도 했고, 사정전 앞에 있는 해시계인 앙구일부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경복궁을 둘러보는 불교학생회 총회장 주연이의 마음은 뿌듯하기만 하다. 동아리 차원에서 2주에 한 번씩 법회를 하지만 오늘 같은 '특별법회'를 자신들이 마련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불교학생회 부회장 도성이에게도 월정사는 일종의 든든한 '빽'이다. 최근 뮤지컬이 인기인데, 친구들에게 뮤지컬 관람을 선사해 준 월정사 덕분에 목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타고온 버스도 월정사에서 지원한 것이다.

경복궁을 둘러본 학생들은 뮤지컬을 보기 위해 서둘러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동했다.

#"친구들과 뮤지컬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세종문화회관 앞은 오후 1시 30분경부터 관광버스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뮤지컬 '애니'를 관람하러 온 2200여 강원도 내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실은 차량들이 속속 도착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세종문화회관은 평창중 · 고등학교, 봉평중학교,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진부중 · 고등학교, 강릉사천중학교, 명현학교, 강릉 제일고등학교, 관동중학교, 강릉오성학교 등 강원도 말씨를 쓰는 학생들로 순식간에 '점거'됐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 위치한 용전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 등 전교생이 14명에 불과하지만 고급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단체로 서울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은 공연이 시작되자 뮤지컬 관람 재미에 푹 빠져들었다. 고아원 원장 해니건이 애니를 비롯한 고아들을 괴롭히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고, 세계적 갑부 워벅스씨가 애니를 입양하려고 하자 자신들 일인양 마냥 흐뭇해했다. 특히 보상금을 노리고 애니 친부모임을 자처하던 해니건 원장 남동생 일당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박장대소를 하며 즐거워했다.

공연이 끝난 뒤 용전중학생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 출연한 배우들과 악수를 나누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사실 평일에는 뮤지컬 공연이 없지만 세종문화회관측과 서울시뮤지컬단측의 도움으로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무대가 선사된 것이다.

공연을 보고 난 뒤 2학년 동윤이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워벅스씨와 고아들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된 마지막 장면이 감동스러웠다"는 동윤이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1학년 현숙이는 "친구들과 뮤지컬을 직접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며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심신 힘겨울수록 문화양식 더 절실"

강원도 청소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본분 외에도 수해라는 천재지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심신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화 양식이 더욱 더 절실할 것"이라는 월정사측의 배려로 오늘 하루만큼은 활짝 웃을 수 있었다. **글=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interview 문수청소년회 사무국장 **해량 스님**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에게 고급문화 체험 기회 제공"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에게 고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수청소년회 사무국장 해량 스님(사진)은 2004년 문수청소년회가 창립된 후 인성교육, 스키캠프, 청소년 지도자 양성교육 등 '맑고 지혜로운 청소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끌고 있다.

문화예술탐방은 첫회 40명으로 시작했지만 2회 800여명, 3회 1200여명 등 회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우리학교도 참가기회를 달라"는 항의 아닌 항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해량 스님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해량 스님은 "이런 기회가 많아질수록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 질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열침의 효능—Health Belt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5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혈압계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해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안녕하세요. 건강지키미 금강닥터사입니다. 다년간 건강제품에 열정을 바쳐온 본사에서는 북한에서 소량만이 생산되는 북한 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한 기능성건강치료기 온열복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을 발산시켜 착용시 복부(오장육부) 깊숙히 강력한 복사에너지와 원적외선을 전달하여 뜸과 같은 열침을 맞는 효과가 있으며, 체내의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만성위염, 소화불량, 생리통, 변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좋게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오늘날 각종 질병치료에 온열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암 등의 치료에도 온열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이에 상응되는 의료기타 할 수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오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암예방과 전이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스님 불자님들 에서도 온열복대 체험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비교내용 | 금강약돌 온열복대 | 유사품(세라믹, 맥반석 등)
전기열선온도 | 95~100℃ | 70℃ 미만
접촉외부온도 | 1시간이내가~80℃, 1시간후 40℃ 유지 | 50℃ 미만
원적외선 | 절대영하 40℃)에서 98%, 50℃에서 99% 이상 방사된다.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원소가 60여종 포함되어 있다. | 절대영하 40℃)에서 방사율이 90%가만 되며, 90%이하일 경우는 신체의 혈을 오히려 뺏기게 된다.
음이온 | 1cc당 1000~1500개의 음이온이 나온다. | 일반 1cc당 500개만의 음이온을 낸다.
금강닥터 (02)723-0099 ※2006년 12월 7일 부터 – 12월 10일까지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모든제품을 체험하세요!

인터넷 불사 '특별함'이 생명


해인사


백양사


월정사


조계사


한마음선원

■ 경쟁력있는 사찰 홈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매일 잠을 자고 밥을 먹듯 이미 일상이 되어 버린 인터넷. 그 안에서 만나는 사찰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찰과는 다른 세계다. '한국불교 1번지'로 통하는 조계사가 인터넷에서도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실제 사찰규모나 명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한 사찰은 1000여곳에 이른다. 전체 사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꾸준히 콘텐츠가 생산되는 등 활성화된 홈페이지는 100여곳에 불과하다.

사찰 홈페이지가 처음 생겨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사찰 홈페이지는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찰의 현황만을 보여주는 수준이었고, 게시판 기능을 갖춘 단계를 거쳐 사찰과 방문자, 방문자와 방문자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단계로 진화했다.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한 홍보로 활용되던 홈페이지가 지금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포교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그럼에도 사찰과 스님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사이버포교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목적있는 콘텐츠로 구성하라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콘텐츠다. 어떤 내용으로 꾸며졌느냐에 따라 고정적인 방문자를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달라진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콘텐츠를 구성할 것인가'도 방문자의 유형과 회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우선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이다.

콘텐츠의 구성은 홈페이지를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조정하기 쉽지 않다. 한다고 해도 다시 개편해야 하므로 이중적으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기획할 때부터 개발업체와 함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사찰과 신도와의 소통을 위주로 할 것인지, 법문이나 커뮤니티와 같은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또는 단순히 사찰홍보를 위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목적이 결정되어야만 주타겟층을 예측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다.

사찰 사이트 가운데 방문자수가 많은 평창 월정사, 합천 해인사, 장성 백양사 등의 홈페이지는 이 원칙에 따라 개발돼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다. '다른 사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의 접근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꾸준한 업데이트로 경쟁력 강화해야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할 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홈페이지의 생명력은 관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찰 홈페이지 가운데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홈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등 마인드 부족에 원인이 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찾는 방문자는 많지 않다. 두 바퀴가 모두 있어야 수레가 굴러가듯 좋은 정보와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되었을 때 자주 찾는 팬이 생긴다.

'사이트 순위정보 랭키닷컴'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다피아, 조계종, 달마넷 등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에 방문자가 많은 것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금, 인력, 홍보,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야 한다. 개발비용과 관리비용은 사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되, 50:50의 원칙을 유념해두는 것이 좋다.

불교계 실정 잘아는 업체 선정을

사찰에서 홈페이지를 개발할 때 생기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비용이다. 홈페이지 운영은 사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투자라는 점을 상기하고,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질 높은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마인드가 요구된다.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발업체 선정이다. 업체마다 비용 산정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비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불교계에서 종단과 사찰 등 각종 홈페이지와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들은 일반업체와 달리 불교계의 실정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도움말주신분들
김대광 다나&C(bulsa.net) 대표이사, 이계복 마하넷(mahanet.net) 대표, 최대종 다나인포메이션(danah.co.kr) 대표, 박기수 다나인포메이션 전략기획팀장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7

장면 전환효과로 영상 연결

동영상 파일 만들기

프리미어에서의 영상 편집 작업은 촬영한 동영상을 불러와 트랙에 위치시키고 다른 영상을 다시 불러와 장면효과 등을 적용하여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익히기만 해도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가능하며 프리미어 사용법을 좀 더 상세히 안다면 일반 가정의 홈비디오로 촬영한 영상은 쉽게 편집 할 수 있을 것이다.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캡쳐를 마쳤다면 프리미어에서 File 메뉴에서 Import - File을 실행하여 Import 대화상자가 표시된다. 캡쳐된 영상이 있는 곳을 찾아 열기를 누르면 프리미어로 영상을 불러올 수 있다.

프리미어로 불러들인 영상 파일은 화면 좌측 상단의 Project 창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Timeline 창에 드래그하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한 화면이 된다. 만약 불러온 영상 파일 가운데 일부분만 사용하고 싶다면 Monitor 창으로 드래그 해서 사용할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표시해 이를 Timeline에 드래그 하면 된다.

Timeline에 위치한 동영상의 표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화면 하단의 시간 표시단위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으로 여러 시간이 표시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편집하는데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영상 편집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동영상 파일을 이용하여 편집 작업을 진행한다. 서로 다른 영상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 장면 전환 효과를 넣어 자연스럽게 영상을 연결해야 한다. 동영상이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장면 전환효과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팔레트에서 Dissolve -Additive Dissolve를 선택해 나타나는 효과를 Timeline 상으로 드래그만 해오면 자동적으로 효과가 적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디졸브로 한 화면이 사라지고 동시에 다음 화명이 표시되는 효과다. 프리미어 6.5 버전에서는 장면 전환 효과를 109개의 폴더와 75개의 장면전환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영상을 붙이면 영상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영상물이 된다. 여기에다가 소리를 삽입한다면 완전한 영상물이 탄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원하는 파일을 저장해야 하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File 메뉴에서 Export Timeline - Movie를 실행한다. 이때 Export MOvie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동영상 파일의 이름과 저장경로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Settings 버튼을 누른다.

파일의 크기나 품질을 조정하기 위해 File Type 옵션을 Microsoft AVI로 선택하고 Next 버튼을 누른다.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 Frame Size 수치값을 자신이 원하는 값으로 변경을 하고 OK 버튼을 누른다. 실제로 저장된 경로를 찾아가 파일을 클릭해 보면 자신이 편집한 영상이 새로운 파일로 저장되었음을 쉽게 알수 있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 고려불화 달력

고려불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명품달력 '고려불화, 그 찬란한 꽃'은 고려불화의 대가 혜담 스님이 재현한 작품을 달력에 영인한 것입니다. 달이 지난 후 액자 또는 12폭 병풍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월관음도, 아미타불9존도, 지장삼존도, 관세음보살도, 미륵하생경변상도 등 12폭의 성보를 가정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격: 5만 5000원

고유가 시대의 확실한 선택!

신일 신개념 온풍기 따끈이 Ⅱ 출시

추위걱정, 난방비걱정, 공해걱정, 기술의 상징, 신일 "따끈이"가 해결

6~7평형



높이 846 x 가로 390 x 폭 330 m

※유사제품 주의
신일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신일의 자회사 제품이라고 판매하는 곳이 많으므로 전화로 신청해 받으시는 것이 A/S도 걱정없고 안전합니다.

난방비 걱정마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사상최고로 치솟는 고유가로 겨울난방비 걱정과 어떤 난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
이같은 고민과 걱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기 온풍이 "따끈이"가 국내 대표적 모터기업 신일산업(주)에서 출시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기 온풍기 "따끈이"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온풍기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신개념 온풍기로 실내를 즉시 따뜻하게 하고 겨울철 밀패되어 혼탁한 실내공기를 정화하고 상쾌하게 하는 투톱필터와 최첨단 리모콘기능이 집약된 차별화된 신개념 온풍기로 평가 받고 있다.

소음없고 실내공기 정화작용까지

신일산업의 기업정신인 고객 제일주의와 고장없는 신일 선풍기가 묵묵히 알려주듯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으로 금번 출시된 전기온풍기 "따끈이"도 신일산업의 기업정신이 숨쉬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디자인과 색상도 세련되어 어는곳에 놓아도 품위가 있으며 이동과 설치 및 작동이 간편해 7평정도의 거실, 사무실, 점포, 식당, 작업장, 컨테이너박스등에 설치하면 적격이다. 전화로 신청하면 전국 어디곳이나 편안히 다음날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가격 195,000원

기술로 차별화된 신일 신개념 온풍기 "따끈이" Ⅱ

전기가 있는 곳이면 작동 즉시 온풍이 나오면서 쾌적하고 따뜻합니다

간편한 설치! 간편한 이동! 간편한 작동! 세련된 색상!

따끈이Ⅱ 전국 신청전화 (02)741-4477

전화로 받으실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전국 어는곳이나 편안히 다음날 받아 즉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195,000원 아래의 농협구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택배비 포함)
고객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032-12-193445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어려운 일들이 묘하게 풀리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다고 하여 신통묘통하게 만사가 형통 된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지갑이 출시 6개월 간에 숫한 화제를 낳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 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어 친지가족들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등 믿음의 지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 보병과 지갑을 가지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건장상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여성이 진보라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가정이 번영하며 후손들이 성공한다는 행운의 뜻이 있어 제일 인기다. 또한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신 분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까지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준다.

-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여성용장지갑 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넌)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범천명리강의실

기문둔갑	12월 4일(월)낮2-5시첫강의
육 효	12월 5일(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12월 6일 (수)낮2-5시첫강의
사맹격법주	12월 7일 (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1기 불교 마음 수련생 모집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에 마음을 찾으면 육신 또한 평안하리라....
일시 : 2550년 양 12월 5일
1. 일주일반 : 10명
2. 일박이일반: 10명
선착순 접수 후 2기 편성
접수 및 문의011-9371-8080
팔공산 묘적암 불교 마음 수련원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
011-591-5277

법화경 특강
1. 셋째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2.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 3층
3. 회비 만원 법화경(삼만원)증정
053)952-8711
017-501-8711
불교해동대학원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무료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후원불자님을 기다립니다
(중원의 최고 명사지)
제왕스님 합장
010-9443-7881

사주 명리 확실하게 배우실 분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작명 · 적성 · 기타
주1회 (2시간 30분씩)-6개월 완성
(기초에서 격국 용신 임상까지)
스승을 잘 만나야 대가가 될 수 있다
용산구 동자동 갑을빌딩 주차장 앞 한국명리교육원
02)756-4845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심리상담을 통해 중생의 실제 고통을 원력으로 꽃피울 한국-스리랑카 불교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도량을 제공해 주실 거룩한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경기)
스님1 : 심리치료사, 상담심리박사과정
스님2 : 스리랑카, 산스크리트석사과정
011-436-7529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사찰운영 맡기실 분
역학 · 침술
▷비구승
010-9386-2323

30년간 역학 공부한 스님입니다. 보살님이 운영하는 어려운 사찰이나 시내 포교당에서 무보시로 도와드리며 불사 이루어 드립니다
010-5574-5662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노년을 서로 의지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남은 여생 건강하고 즐거운 실버생활을 활력있게 살 수 있는 분. 생활능력은 기본 이 세상다할때까지 동반자의 배필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당사자 女 60여세 자녀 無 위선과 사기성 전화는 사절
010-4789-8987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40세 이하)
▷전북 군산
011-9409-8820

공양주 · 처사 모십니다
055)322-8323(김해)
017-590-8323

참신한 불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1-622-0108

공양주 모심
▷서울 정릉 보덕선원
50세 전후
02)914-4235

신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내외 가능
전북 순창 청정도량
011-603-8450

행자(女) 모십니다
나이 제한 없음
▷대구 팔공산
053)981-3181
011-825-3181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 모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조그만 암자
054)373-0383
010-4528-9807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60대)
▷경남 마산
055)271-3054

신심있는 종무소 보살 모십니다
▷PC가능 유경험자 우대
삼천지장보궁 영명사
054)482-1390

거제도 바닷가 조용한 토굴입니다. 무보시로 함께 하실 경험있는 공양주 보살님과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50대)
055)633-6108

공양주 모십니다
(정릉)02)919-0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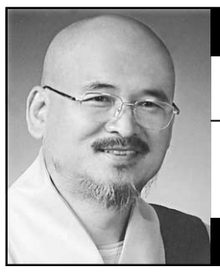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환영
(정릉)02)917-3363

공양주 구합니다
▷정릉
02)919-0480

평생 도반 신심으로 수행중인 을미생 비구승입니다. 함께 정진하며 수행하실 인연 기다립니다
018-406-3073

처사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조계종 사찰
054)533-3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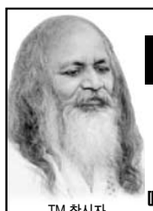
공양주 구합니다
▷부산 괴정동
011-509-0124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바로 쓰게 1:1로 쉽게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근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가장 쉽고 탁월한 깨달음의 길!
초월명상 (TM) 소개 강연
- KBS <마음>, SBS · YTN 등 매스컴 집중보도 -
고혈압 · 불면 · 우울 · 스트레스 해소법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불안 · 노이로제 해소
지능 · 집중력 증가 / 전체 두뇌 개발 / 삼매경 체험
TM 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때: 월(月) 14:30 목(木) 19: 30 TEL: 서울598-3152
곳: 한국초월명상센터(이수역 8번출구에서 200m, 태평빌라 204호)
● 미국 6천여 의사 실시 및 권유 ● 일본 150여 기업 조석으로 시행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이 1,000일 기도중에 11면 42수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시어 33자 10M로 불상을 목불로 조성 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현몽가피를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기도 발원 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불자님께서 이번에 조성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 큰 신심을 내시어 큰인연 공덕을 지어주시고 무량복덕을 성취하여 수명장수하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십시오.

11면 42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시주문

11면	한분	200만원
42수	1손	200만원
천수	1손	20만원
본불	1분	3,000만원
남순동자, 해상용왕	각 1분	1000분
관음 천불	1분	20만원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 용각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온라인 : 농 협 729-02-117074(예금주:유재하)
국민은행 622-24-0064-982
우 체 국 700435-02-005878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음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전국성지순례 영가천도 · 무병장수 상담환영
각종테이프 준비되어 있슴. 활용하셔요.
대불정능엄신주, 태아영가천도
지장경, 약사여래경, 영가천도
매주 토요일 철야 기도함
단계별 능력에 맞춰 개인별 특별지도
참회 · 정진 · 발원 · 회향
기도와 회양 보시와 불공 방법은 중요함
대불정능엄신주 독송하는 불자님 테이프 꼭 활용하십시오. 초보자에게는 중요함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 정 대 행 : 각 암 대종사 ● 원 로 의 장 : 청 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 정 원 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 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개발해 20세기 전반기에 약손요법, 氣주입법, 氣치료법으로서 일본의 대중사회에 일대 유행을 일으켰던 대체요법 보완요법의 체계입니다. 바로 氣요법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1980년 부터 미국에서 붐을 일으키면서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후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특히 여러가지의 심신상과성 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내용
- 자기치료법 - 타인치료법
- 원격치료법 - 마음의 버릇 치료법
- 영성향상법 - 면역력강화법
- 동식물에 대한 氣 주입법, 종합요법 등

▶ 교육 후 1개월 내외 무료복습 · 보충 교육제도실시

인터넷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방향으로 10분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 법당: 20평
- 요사: 35평
- 부지: 760평
- 가액: 21억

- 위치: 경남
- 법당: 30평
- 요사: 120평
- 지장전: 200평
- 부지: 2700평
- 가액: 25억

- 위치: 경남
- 법당: 24평
- 요사: 170평
- 부지: 500평
- 가액: 19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상담 후 결정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3호선 홍제역 1분내 위치함 3층건물에3층, 대로변 인접
- 법당 20평, 옥탑방 숙식가능 삼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850만원(집기 일체 포함)

02)720-2230
011-252-6116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중구 대구역 번개시장앞
- 4층 약 25평 외 옥상, 마당있음
- 시설: 냉난방, 보일러 시설완비 (청동아미타부처님 모심)
- 가액: 보증금 없음 1년 선세 24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900만원 즉시법회가능

053)426-4162
010-8200-205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 건물: 5층에 3층
- 평수: 50평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15-633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장호원
- 부지: 500평
- 법당: 27평
- 요사: 2동 45평
- 가액: 3억 6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 2억 2천만원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디밭

016-367-2112

사찰(급)안내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사찰역사 320년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상의 위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소재
- 평수: 50평
- 시설: 삼존불, 신중 산신 최상의 음향시설 시스템 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포교원건물(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내
- 대지: 121평
- 총건평: 150평
- 건물: 3층 건물
- 가액: 3억 3000만원

010-5688-4991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 대지: 45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 2000평
- 법당: 25평(2동)
- 요사: 100평
- 가액: 18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경기부근사찰과 교환원함

- 여주 이포대교 부근 파사성 산자락 대지 160평, 조립 24평
- 영월, 신림에서 25분 국도, 넓은 냇가 접 전 840평, 구옥을 황토 등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위 물건을 적당한 경기인근지역 사찰과 교환 원함 (약 2억 5천만원) 필요한 경우 웃돈 가능

010-3730-52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 평수: 2층 34평, 3층 20평
- 2층: 법당, 종무소, 접견실
- 3층: 방 3
- 가액: 보증금 1천 1백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888-0130

포교당안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강릉쪽대지교환

가액: 약 6억원 가량

전통 사찰과

교환 원합니다

018-260-78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1-258-1147

사 찰 안 내

〈 토 굴 〉
- 위치:부산시내바닷가
- 20평,30평,40평
- 1500만원~1억까지
- 아주다양함
- 바다전망 특별 빼어남

〈 사 찰 〉
- 부지: 3만3천평
- 위치: 삼랑진 정남향(양명) 산세 계곡물 철철 주변경관 특별 빼어남
- 가액: 4억

〈 포 교 선 원 〉
- 위치:구미시청근처
- 법당 및 요사 95평
- 어린이 법회
- 불교대학
- 가액: 2억 3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포교당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내
- 평수: 30평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주차시설완비

010-7207-33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최고의 위치
- 시설: 상가건물2층(단독주택과 같음) 옥불부처님, 신중 산신
- 평수: 60평
- 가액: 보증금 300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1-395-1434
011-9269-8445

사찰안내 (부산근교)

- 경남 양산 120평-2억 3천
- 부산 철마100평-2억 2천
- 경남 김해 2000평-5억 5억
- 부산 120평-3억5천
- 부산 250평-8억
- 부산 280평-10억

011-855-6699(남문)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보개산 각연사 밑 마을
- 대지: 500여평, 주택 30평 밭 1,500여평
- 가액: 2억 8000만원 (조절가능)

043)832-6144
010-3356-614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433-1106
010-7440-3347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77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2채, 창고
- 가액: 2억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010-3138-489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작은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광역시
- 총 평수: 10평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신중탱화, 산신탱화, 산신불
- 법당 비품
- 법당, 주방겸 거실, 화장실1
- 법당시설비: 400만원(가격절충) 전세 400만원, 월 15만원

010-2309-9102

토굴안내

- 위치: 경상북도 고령 가야산 자락
- 평수: 대지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 5000만원

018-541-1890

암 자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하동
- 대지 전 합해 480평
- 법당 11평, 방 5, 수세식화장실 2
- 가액: 9500만원
- 조용하고 마을과 인접한 곳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대나무숲 포교와 참선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지

011-526-1824

사 찰 안 내

- 위치: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가창골
- 대지: 339평, 전 425평
- 2층건 60평 단층건 45평, 각 1동
- 가액: 2억 5천만원 (융자 8500만원 포함)

018-514-60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포교당 2층
- 평수: 70평(법당 ,방 2칸, 부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신규 종단 등록 가능함

042)531-0026~7

포교원안내

신축 불사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경기도 안성시 2층 건물
- 법당 10평, 방 2개, 주방 및 화장실
- 옥상 20평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650만원
- 특징: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앞 철학하시는 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 위치

017-297-4097

사찰안내

- 위치: 경남남도 사천 사천시에서 5분거리
- 대지: 241평
- 법당 2층, 건물 30평
- 공양간 30평, 창고 10평
- 요사채 3층 60평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55)852-2518
011-571-4554

토 굴 안 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 평수: 20평
- 임법당, 방 2개, 욕실 2개 산신각 모시져있고 마당있음
- 가액: 전세 2,000만원
- 시설비 600만원

02)936-0069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 부지 430평중 대지 290평
- 법당: 40평, 요사: 60평 지장전 20평
- 가액: 1억 2천 5백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011-9567-5300

사찰안내

- 위치: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대지 591평, 법당 18평
- 요사채 23평 (화장실3, 방3, 큰 거실1)
- 조립식 건물
- 가액 : 1억 5000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
- 평수: 대지 150평, 요사 2동
- 건평: 54평
- 삼존불, 16나한 봉안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선세 180만원
- 시설비: 약간 절충

010-6374-0034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3층 법당 40평 다다미방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삼존불,탱화,신중탱화,산신탱화
- 전세 500만원/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절충가)

몸만 오시면 됨. 시설완비

010-5710-173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녕
- 부지: 550평
- 법당: 20평(단청필)
- 요사채: 30평
-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 가액:1억 8천 5백만원

010-6727-889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유어면
- 목조기와 한옥촌집 (기둥은 둥글고 법당은 아직 꾸미지 않았음)
- 대지: 198평
- 본집 · 마당 · 부속건물
- 가액: 3천 5백만원

011-9517-4130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동구) 산
- 대지 2,000평 (공원부지)
- 법당 40평(주지실,공양실)
- 산신당, 용왕당 등
- 가액 : 5억원

010-4741-3446

암 자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 인근
- 대지: 420평
- 법당 13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5~6평
- 가액: 1억 3천만원

011-511-0926

사찰및휴양지터안내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 악양 구자산 계곡

-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 평수: 2500평
- 가액: 평당 5만원 (상담 후 조절가능)
- 용도: 사찰, 휴양지, 별장 등

055)883-1272
011-588-1272

사찰안내

- 위치: 경상남도 사천 진주에서 20분거리
- 목조 건물 전통사찰
- 산신각, 대종각, 대불 모셔져 있음, 용왕당이 영험도량
- 대지: 3500평
- 가액: 7억원 (절충가능)

055)852-2518
011-571-4554

불교용품판매점(만물상)

- 위치: 충남공주지역
- 평수: 약 20평
- 주거가능 방 1, 주방, 현 성업중
- 집기 및 불기용품 일체, 건물포함
- 가액: 6300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 같이 수행하며 공부하실분 , 행자구함

010-8828-300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토당공원옆
- 건물: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64평
- 인테리어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031)938-1954
017-304-2260

10여년된포교당

- 공찰 주지 취임 관계로 양도함
-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합 5000만원
- 전체평수: 30평

010-3723-0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산세수려, 전망최고
- 평수 : 700평
- 대웅전,요사채,산신각(목조), 나한전,용왕당,미륵당 스님친견실등 집기일체 완비
- 즉시법회 가능, 주차장완비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55)973-5054
011-863-06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 평수: 약 60평
- 가액: 절충
- 건물: 4층건물에 3층 즉시법회가능

010-9760-9761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방촌동
- 건물: 2층 건물 1층
- 건평: 35평
- 시설: 방 2개, 법당1, 부엌1 집기류 일체
- 가액: 시설권리금 600만원 보증금 無, 월세 無(즉시입주가능) (2007년 7월 1일부터 30만원 월세)

010-4732-6748
010-9890-1720

포교당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서2동
- 건물: 5층 빌딩
- 대지 120평, 건평 350평
- 포교전법도량, 광주 최고 중심지 교통 편리. 아파트 1만세대 입주예정 포교당 최적지
- 가액: 8억 5천만원(절충가능) (3억 2천 융자포함)

※계율있는 스님 기다립니다

011-603-8450

멋진밀양사찰안내

- 위치: 부산 대구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언양 울산 30분
- 대지: 514평, 건평 약 100평
- 산신각, 일천관음등 및 연등법당, 잘 꾸며져 있음
- 황토집 2채 20평, 주차 15대
- 법당 뒤 대밭 조성되어 있음
- 대지 전체 돌담되어 있음
- 가액: 2억 6천만원, (3억 8천이나 사정으로 급안내)
- 사천땅 계곡있고 7,350평-9천만원. 평당 2만원

010-5572-1501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료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 건물: 삼존불, 산신각 별도 요사채 방 4칸
- 법당: 65평
-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사정상 급 안내함

053)783-0106
016-528-3736

암자전원주택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 200M아래
- 평수: 총 9800평 중(관리지역)
- 대지 130평, 30평 양옥 (2005년 10월 준공)
- 전 250평, 산지 전용 허가 108평 70년 이상 소나무 가득 지하암반수 200M
- 용도: 별장, 식당, 팬션, 산장 예술가, 최고의 명당
- 가액: 3억 7천 7백만원

010-6471-771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남대구 대명2동 영선시장 후문 교대전철역에서 도보 5분거리 메르디앙 아파트 후문
- 건물: 60평 단독 한옥집
- 시설: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탱화 법당1, 방 3칸
- 가액: 보증금 · 시설비 합 1500만원, 월 35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벽

010-4581-1267

사찰.별장(터)안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10분거리)
- 임야(부지) 3700평(관리지역)
- 대지: 200평
- 판넬 31평 지어져있음, 지하수 풍족.
- 도로진입(200m), 전기시설, 창고(30평)
- 솔밭속 평풍바위(500M) 가 둘러져 있고 자연연못(200평) 냇물천이 흐르고 사찰부지, 별장용으로 최적지임.
- 가액: 1억 7000만원

011-9513-281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시 목동 사거리 남부시장옆
- 3층건물중 3층, 약 53평
- 법당, 방2, 부엌, 목욕탕, 베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존불과 탱화가 잘 갖추어져 있음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621-9216
02)2645~4200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 대지: 466평, 건평:44평 (1층- 방5개, 주방, 욕실 , 2층법당-삼존불상, 탱화 3종 등 별도절충)
- 가액: 1억 9500만원
- 사찰 및 기도원, 개인 · 단체요양원, 별장주택. 계곡 있고, 경관좋음
- 4차선 계획도로 인접, 신행정도시
- 오성의료단지, 오창과학단지에서 30분 거리
- 투자가치확실, 심야보일러, 지하암반심층수. 즉시입주가능

010-2529-3939


성철 스님

성철 스님 "우주는 상주불멸…에너지와 질량은 부증불감"

'중도' 과학적으로 풀어

성철선사상연구원 13주기 세미나서 양형진 교수 분석

박영준 교수 "불교가 과학에 좌우되는 것 아니다" 논평

"불교의 근본 원리인 불생불멸(不生不滅)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중 중력과 관성은 동등하다는 등가(等價) 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 법어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 p 38)" "불생불멸 상주불멸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에너지가 질량으로 나타나고 질량이 에너지로 나타날 뿐 질량과 에너지가 따로 없습니다. (성철 스님 백일법문 중 일부 발췌)" "등가원리에서 보면 우주는 영원토록 상주불멸입니다. 즉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와 질량은 불생불멸이며 부증불감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p 49)"

성철 스님은 중도를 설명하는 법문을 하면서 과학을 많이 인용했다. 그렇다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과학은 얼마나 정합되고 있을까. 또 불교의 과학적 증명을 다룬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을 포함한 많은 법문들은 중도(불생불멸, 상주불멸, 쌍차쌍조, 연기 등)와 과학을 어떻게 연관 짓고 있을까.

성철선사상연구원(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 열반 13주기를 맞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1960년대 전후 상황과 성철 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형진 교수


박영준 교수

이날 대회에서 고려대 양형진 교수는 논문 '성철 스님 법문에서의 중도와 과학'을 통해 성철 스님의 중도 법문에 나타난 불생불멸, 부증불감, 쌍차쌍조(양변을 떠난 중도)의 중도 원리를 상대성 이론의 등가원리로 다양한 과학적 해석을 시도했다.

양 교수는 우선 "백일법문의 골수는 <화엄경>의 내용 중 '일체 만법이 나타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약 이 법을 알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불생불멸에 대한 과학적 논증으로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를 예로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하면 $E=mc^2$으로 이는 질량 m이 에너지 mc^2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질량-에너지 등가법칙).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되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에너지는 탄소와 산소에 있던 질량이 변한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핵융합과는 달리 결합 전후의 질량차가 너무 작아 측정할 수 없을 뿐이다. 이는 반응 이전에 탄소와 산소의 질량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 반응 후에는 에너지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교수는 "에너지가 없어져야 입자가 생겨나고 입자가 없어져야 에너지가 생겨나므로 생과 멸은 언제나 함께 공존해 있다"며 "생과 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 즉 불이(不二)로 표현될 수 있고 이를 물리학에서는 '보존'으로 불교에서는 '불생불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생과 멸이 분리될 수 없으니 멸이 곧 생이고 생이 곧 멸이어서 생멸이 원융해 쌍조가 되고 생멸이 사실상 없으니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어서 생과 멸이 함께 사라지니 쌍차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 교수는 또 "성철 스님은 근본불교에서 천태, 화엄, 선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중도로 이해 · 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부처님은 양변을 버린 중도를 정각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등 '초전법륜'의 중도 선언과 <숫타니파타>의 피도안품, <가전연경>을 활용해 설법한 스님의 법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논평에 나선 서울대 박영준 교수는 "불생불멸의 중도사상이 현대 과학과 잘 일치하고 있고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불교가 과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학에 근거한 서양과학의 전통은 불교의 존재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양자를 유위법에 투영해 비교 · 설명하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과학은 엄격한 수학적인 관측에 의해서 누가 그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무윤리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 진리인 불교와 영속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나의 마음, 사물 등이 우주의 연기(緣起) 속에서 존재한다는 성철 스님의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모든 소리마다 묘한 이치로다. 보고 듣는 이것 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는 법문은 경험적 진리일지는 모르나 과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불생불멸, 색즉시공 등의 불교적 진리는 양자역학, 소립자학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와 참나를 찾는 불교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기술 · 논증될 수 있는 것은 주목할 말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화엄사상 극명히 드러낸 걸작

오진희 연구원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 논문 발표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은 조선시대 유일의 삼신불로 이에 대한 면밀한 도상 · 양식 분석이 시급하다."

한국미술사연구소 오진희 연구원(사진)은 최근 논문 '화엄사 대웅전의 삼신불상'을 발표했다. 오 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삼신불의 조성배경과 양식적 특징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오 연구원은 "화엄사 사적기는 화엄사 불사 제작 배경과 불교미술의 특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며 "특히 불상대화사로 활약했던 벽암 스님과 그 제자들이 화엄사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상대화사로 활약했던 나묵은 벽암의 제자로 화엄사 불상 청탁뿐만 아니라 해인사 법보전 증영 공사(1624년), 완주 송광사 불상 조성(1641년)에도 참여해 조선시대의 독특한 불상 양식을 선도했다.

화엄사 삼신불과 같은 형식은 조선시대 후반기 불화에서 중앙에 지권인과 불형 머리칼의 본존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하고 좌 설법인 중품중생인변형의 보관형(머리칼) 노사나불, 우 항마촉지인 불형 석가불을 모신 갑사 삼신괘불탱, 개심사 영산삼신불괘불탱 등 삼신불형식이 보편적이지만 불상에서는 그 예가 드물다.

이와 관련해 오 연구원은 "이러한 불상은 조선시대 화엄종과 법화종의 융합으로 삼신불과 삼세불이 혼용되어 나타난 불상 형태로 보인다"며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은 삼신삼세불이 유행한 이 시기에 화엄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1>

법성게의 과학

법성게는 화엄사상의 정수를 가장 잘 표현한 신라 의상대사가 지은 시(詩)다. '법성원융 무이상'으로 시작해서 '구래부동명위불'로 끝나는 아름다운 게송이다. '우주 존재의 원래 성질이 둥글고 화합해 있고 두 가지 극단에 있지 않다는 것, 이러한 진리가 오래 전부터 움직이지 않고 존재하며, 이를 부처라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인도에서 존재하던 가타라고 불리던 게송이 이렇게 한자로 변환돼 지금껏 전해왔다.

화엄사상의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다른 것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생과 멸 또한 상호 변환되는 상태일 뿐'이라는 내용은 현대물리학의 존재론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불구부정'인데 왜 더러운 것은 싫은가?
무상 속 인연의 나툼일 뿐임을 알아야

요즘 필자의 가슴을 울리는 문구는 법성게 중 '불수자성 수연성(不守自性隨然成)'이라는 문구다. '자성은 지키지 않으면서,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말이다. 알쏭달쏭한 말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담긴 말이며, 놀라운 과학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불자이든 아니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반야심경의 '불구부정'이다. 즉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상징인 연꽃은 더러운 속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부처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진흙을 더럽다고 하는가. 반야심경에서는 불구부정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비슷한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깨달은 자들은 왜 몸이 아픈가. 아프다고 왜 병원에 가는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면서 왜 동료가 죽으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는가.

아마 해답은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그리되는 것이다. 나의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이 아픔을 느껴야 더 잘 지탱하도록(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없으니까) 되어 있는 인연의 과학 때문이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역시 그렇게 두려워하도록 된 인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진흙을 더럽다고 느끼는 것 또한 진흙 환경에서는 미생물의 공격에서 의해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진흙에서 생존하는 수많은 생명체에게는 진흙이 가장 깨끗하고 편안한 곳임에도 말이다.

이와 같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 죽고 사는 것에는 결코 원래 그러한 성질, 변하지 않는 성질이 없다. 단지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법칙 그리고 주어진 인연법칙(아니면 과학법칙)내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나툼(manifestation) 뿐만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성이 없다는 것은 현대 과학의 결론과도 일치한다.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의 상호 변환, 소립자의 탄생과 소멸은 어떠한 우주의 존재도 원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죽음이 어찌 삶과 다르고, 그림자가 어찌 빛과 다르겠는가. 아니 두개가 같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한 중도의 원리인지 모른다. 늦가을, 다시 필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무를 보면서, 법성게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봄은 어떨까.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매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주문



사학육성공로 봉황장 수상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정휴 스님은 11월 28일 서울 63씨티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 사학육성공로 봉황장을 수상했다.



혜국 스님 초청 법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혜 스님은 12월 8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를 주제로 혜국 스님 초청 교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정기총회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공동회장 성광 스님은 12월 13일 오후 6시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2260-3835



환경5계 제정을 위한 세미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은 12월 12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환경5계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20-1654



제6기 다선반 개설

대구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은 12월 11일 오전 10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한 잔의 차 마심을 통해 수행에 접근할 수 있는 제6기 다선반을 개설한다. (053)985-4404



제3회 시카다상 수상

고은 시인은 11월 28일 성북동 스웨덴 대사관저에서 제3회 '시카다' 상을 받았다. 시카다상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마틴슨 탄생 100주년에 맞춰 제정됐다.



2006 동국인의 밤 개최

동국대 총동창회 원용선 회장은 12월 14일 오후 6시 30분 장충동 소재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06 동국인의 밤을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송년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김성호 총동창회장은 12월 6일 오후 6시 한국일보 송현클럽 13층에서 2006년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인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총무차장=김영일 △총무행정팀장=윤영희 △사찰교무팀장=윤승환 △기념관운영팀장=황충기 △기획차장=박희승 △기획홍보팀장=김판동 △전산기록팀장=박맹수 △재무팀장=장영욱 △사회팀장=전형근 △문화팀장=박종학 △호법팀장=전창훈 △교육팀장=이상봉 △연수팀장=류창무 △포교팀장=박용규 △신도팀장=황철기 △어린이포교팀장=김병주 △종회사무팀장=양진수

이전 태고종 총무원과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은 12월 11일 서울시 사간동 법륜사 내 한국불교문화전승관으로 이전한다. (02)739-3450

대상 안관수 PD '문명을…'
불교언론인상 btn 회장 성우 스님
교계신문 최우수상 이재형 기자
교계신문 우수상 박봉영 기자


안관수 PD


성우 스님


이재형 기자


박봉영 기자

제14회 불교언론문화상 발표 … 6일 시상식

제14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마산MBC 안관수 PD의 HD 다큐멘터리 5부작 '문명을 새기다-대장경'이, 교계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재형 법보신문사 기자의 '역대 한국불교 리더 가상 인터뷰', 우수상에는 현대불교신문 박봉영 기자의 '불교의 경제와 경영', 불교언론인상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이 선정됐다.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탁연)는 11월 28일 제14회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또한 TV부문 최우수상에는 부산 MBC 박명종 PD의 '부처님 오신날 특집-참선1, 2부', 우수상에는 KBS 이장종 PD의 'KBS스페셜 禪 이야기'가,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에는 여수 MBC 오병종 PD의 '천년가람의 울림-송광사'가, 출판 부문 최우수상에는 소설가 한승원씨의 <소설 원효>, 우수상에는 곽동해씨의 <범종,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 특별상에는 사단법인 불국토와 이석범씨의 <진본 서유기>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5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아프리카 포교 위해 " 동봉 스님 국토대장정 출발



검은대륙 아프리카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는 동봉 스님(광주 우리절 회주·사진)이 101일 간의 국토대장정 고행정진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에 한국불교학교와 사찰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평화적 남북통일, 국가경제 살리기 등을 염원하는 고행정진이다.

동봉 스님은 11월 30일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101일 국토대장정' 입재식을 봉행하고 첫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대장정은 30일 우리절을 출발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와 경북-경남-전남-전북-충남-충북-경기도를 거쳐 파주 임진각에서 3월 30일 회향하는 101일간의 도보고행이다. 하루 20km씩, 총 2346km를 걸으며, 매일 <금강경> <아미타경> <초발심자경문>을 독송한다.

동봉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한국불교 최초로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등의 큰 원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자 대장정을 떠난다"며 "작은 기도가 큰 원력을 이루듯 모든 불자들과 국민들의 작은 힘을 모아 달라"고 발원했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하루 또는 3일, 5일 등 기간과 관계없이 대장정에 참여할 수 있다. 대장정은 (주)태광엠티씨, (주)태광실업, 정산컨트리클럽, (주)휴켐스,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현대불교신문사 등이 후원하며, 인터넷 붓다뉴스(www.buddhanews.com)를 통해 매일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다. (010) 4800-0882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원로회의사무처장 덕문 스님
문화사업단 국장 허운 스님
포교연구실장 도신 스님
포교연구실사무국장 묘현 스님


덕문 스님


허운 스님


도신 스님


묘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덕문 스님이 11월 30일 원로회의 새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새 사무국장에는 前 일산 정혜사 주지 허운 스님이 12월 1일 임명됐다.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과 보현사 주지 묘현 스님은 11월 27일 포교연구실장과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김두식 · 남동우 기자

불기협 회장 본사 한명우 차장
부회장 서현욱 · 남배현 차장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 제12대 회장에 본사 한명우 차장(사진)이 선출됐다.

불기협은 1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한명우 차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법보신문 남배현 차장과 만불신문 서현욱 차장을, 감사에는 금강불교신문 김종기 차장을 각각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제4회 대원상 시상식 거행



대한불교 진흥원 주최 제4회 대원상 시상식이 12월 1일 다보빌딩에서 개최됐다. 개인부문 대상 법타 스님과 김재영 법사, 단체상 불교정보센터 정성운 대표, 특별상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형진 대표, 윤재승 민족사 대표, 김홍섭 보문고등학교 교법사 등이 이날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독립운동 故 대희 스님에 대통령 표창



11월 29일 제67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강점기 전남지역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봉암당 대희 스님(1909~1975)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국가보훈처는 "대희 스님은 1928년 '조선인본위교육제 실시'와 '맹휴운동'을 주도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6만여 빈곤소외아동에게 학습지 전달



먹거리나눔협의회(공동대표 지현)는 11월 30일 서울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웅진 싱크빅으로부터 12억여 원 어치의 학습지 및 아동도서를 전달받았다. 먹거리나눔협의회는 학습지와 도서를 전국 400여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결손가정, 한부모가정 아동과 청소년 6만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 · 전의경에 김치 보시



옥천 도탈심인당(주교 의당)과 옥천경찰서 불교회 회원들은 11월 30일 소년소녀가장과 경찰서 전 · 의경 등에게 자비의 김치를 보시했다. 도탈심인당 주교 의당 정사는 "어려운 이웃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재 원장의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배달편자요법 공개강좌가 현대불교신문사 청운동 연수원에서 11월 24일 시작됐다. 본사 연수원장 문광 이홍재 박사가 직접 개발한 배달편자요법은, 경락을 조절해 질병을 다스리는 의술이다. 공개강좌는 12월 22일까지 매주 수 · 목 · 금요일 주3회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진행된다. (02)735-3034

www.burec.org

『내가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제 38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부처님 진리를 보다 다양하게 교화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각 사찰의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실기를 강습하여,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교사 및 법사님, 스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하시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 시 : 불기2550(2006)년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 삼성동 소재)
[교통편 안내]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이용) 도보 10분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교육내용 : 1) 흥겨운 몸풀기 (싱어롱)
2) 어린이 명상
3) 신 찬불가와 율동
4) 내가 만드는 겨울불교학교
● 풍선으로 법당 장엄하기
● 종이로 만드는 놀이감
● 신나는 겨울놀이
■ 참 가 비 : 35,000원 (도서벽지 및 군종은 참가비의 50%)
■ 접 수 : 전화접수 및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www.burec.org) 후 온라인 입금
국민 006-01-0801-770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문 의 :02-738-7860 / Fax : 02-738-7863(본회 사무국)

◈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 (법사, 교사) 모임 ◈
1) 일시 : 2006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2)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회비(無), 법회자료집 및 저녁공양 제공
※ 12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지도자 모임 발대식 봉행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임제록 강좌 안내


강주 無比 큰스님

삼보에 귀의 하옵고
덕망 높은 선지식을 모시고 경전 강좌를 통하여 서로를 탁마하고 경책해가는 불교 경전연구회가 1차 육조단경, 2차 선요, 3차 유식 삼십송에 이어 4차 임제록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 강 주 : 無比 큰스님 (전교육원장)
- 과 정 : 6개월
- 장 소 : 서울 미타사 內 대승암
- 일 시 : 2007년 1월 26일(매월 4째 금요일) 오후 3시 ~ 6시
- 수 강 료 : 30만원(교재 제공)
- 수강신청 : 12월30일까지 (선착순 20명 내외) 입금후 전화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58701-04-155072 (예금주 : 김영희)
-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 (지장스님) 재무 010-4500-3142 (승지스님)
- 자 격 : - 조계종 비구, 비구니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
- 사진 1매(반명함)를 꼭 제출바랍니다.

※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알림
▶ 특 강 : 12월15일 부처님 점안 복장의식에 대한 특강이 있음
▶ 불교 경전연구회 주관 함께 공부해온 도반스님들이 고우 큰스님을 모시고 인도 8대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기 간 : 양력 2007년 3월23일~4월2일 (10박11일) - 동참희망자 약간
문 의 : TEL 011-420-7838 (지장)

불 교 경 전 연 구 회 일 동



불자 세상보기

이 인 숙
위덕대 외식산업학부 교수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신문이나 매체는 식품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지 않는 곳이 없다. 먹거리는 이런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따라 그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했다.

요즘 방송에 보도되는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의 주인공인 닭고기는 1996년 미국과 러시아의 '닭고기 전쟁' 을 유발시키면서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검역 담당자들의 연례 시찰과 함께 특별품질관리 규정을 이끌어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나온 뼛조각에 대한 보도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해물질 포함여부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 등 먹거리와 관련된 보도는 명절 무렵에는 의례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과학과 식품산업 기술의 발달해가는 과정을 유추해 볼 때 미래에는 어떤 위험인자가 등장할 지 짐작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는 먹을거리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해야 하며 국가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이들 유명세를 탄 병원균 뿐 아니라 식품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농약이나 제초제, 제조 시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기타 환경오염물질, 부적절한 조리방법으로 인한 오염, 그리고 식품을 섭취한 후 식품의 성분이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물질의 반응으로 인한 경우 등 그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성은 재료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구입 또는 조리하여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식품위생감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하는 지 확인, 관리, 지도하는 체제이며,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물론 식품 가공 및 제조 업체, 고급레스토랑이나 호텔, 병원, 대형 외식업체까지 실천하는 HACCP 시스템이나 소비자 식품리콜제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식품(음식)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에서도 식품위생학은 필수 과목이며 조리실에는 조리 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WHO의 기본적인 권장규칙을 걸어놓고 있다. 일본은 2003년 건강증진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을 신규로 시행하여 식품위생법과 함께 식품의 안전 · 안심에 대한 미생물검사, 약효성분배합금지, 잔류농약, 환경호르몬과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하였고 그 실행에 분석법 등의 간이 · 신속화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식품영양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식품안전성은 학교급식과 함께 영양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학교급식은 시설과 식재료의 선택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성 확보의 걸림돌로 보고되고 있고 영양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올바른 내용의 웹사이트를 전문가의 손으로 개설하였다. 언론매체에서 이들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원, 학교, 보건소, 또는 노인대학 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모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우선하여 항상 다룬다면 그 중요성을 가나다 나 ABC 처럼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식탁의 안전이 국가 발전과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면 필자의 아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우리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감이 드는 식품안전성 정책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일원화되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참고로 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국불교의 미래는 군불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군장병 과반수 불자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조계종 군종교구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약' 을 다짐했다.

11월 30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열린 제38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매년 8만명이 수계를 받고 있을 정도로 군포교는 한국 불교의 초석을 쌓고 있다"며 "지난 1년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감회를 밝혔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군종교구의 활동을 조용하게 주시해 왔다.

종단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정스님의 진영과 교시의 군사찰 현수, 교구운영 제도화로 군사찰 현황정리, 온라인 전산망 구축, 군 신도회 활성화 등 군종교구가 1년간 보여준 활동과 성과는 군종교구 출범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불사였는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군포교 성공의 조건들

그러나 이제 막 돌을 지낸 군종교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펴나가는 일은 정작 이제부터다. 군종교구가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려면 가장 먼저 구성원들의 신행과 단합이 탄탄해야만 한다. 그리고 교구의 성패가 군법사 한사람 한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도 충만해야 한다.

군포교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숙제들도 많다. 군법사 자질 함양, 장병 심성 프로그램 계발, 비구니스님들과 천태종 등의 군법사 파송 문제 등도 해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군포교의 숙제를 군종교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현실적 한계가 많다.

우선 턱없이 모자란 재원을 확충해나가는 데는 교구 구성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함은 물론이지만, 종단과 불교계 전체의 관심과 성원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군불교 후원 만인동참만 해도 그렇다. 그냥 군법사들의 탁발행사로 여기면 안된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한 동참여부를 묻는 행사나 마찬가지다. 군포교의 명암이 지금 우리 전체 불자들에게 달려 있다. 왜냐하면 군포교는 청년불교의 마지막 보루이자 늙어가는 한국불교를 다시 세워줄 버팀목임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대통령의 발언

국왕이여, 몸소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가르쳐 보아라. 왕의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나라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 일을 급히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급히 서두르게 하지도 말라. <자타카>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한 것은 굴복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위기 때마다 승부사 기질을 보여온 노 대통령 스스로 '굴복' 이라는 표현을 써 국정 운영에 손발이 묶인 것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실제로 대통령직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으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정작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잠들고 있고 아파트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점점 더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정치권마저 '대통령 하야' 를 이야기하며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최고 지도자로서 서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이시대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국가의 위기나 멸망의 원인은 함부로 시류에 영합하려는 데에 있다. 시류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귀기울이게 되면 결코 참된 현자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정법안장>

■ 김두식(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2006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회향하며

광주불교 새희망 심는 계기… '교육불사' 중요성 실감



지난 2개월간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빛고을의 무명을 지혜의 빛으로 밝혔던 2006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005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개강을 준비하며 모두가 가졌던 불안감을 생각하면, 이번 회향에서 느꼈던 자신감이야말로 아카데미가 우리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10월 불교아카데미를 준비하던 시기의 광주지역불교계는 불교대학들의 침체와 몇 년간 대규모 대중법회 동참자 부진 등 불교대중들이 대규모로 동참하는 법회나 교육 과정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볼 때 빛고을불교아카데미의 성공을 예측하기에는 운영에 참여했던 모두가 자신감을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광주지역 불교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2005년과 올해 2006년 각각 1100여명의 수강생이 등록하고 매 강의당 평균 800여명 이상이 동참함으로써 당당하게 광주불교의 새 희망을 가능성을 열었다.

사찰이 아닌 일반 대규모집회장(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오전이 아닌 저녁 7시에 강의가 열렸고, 각각 10회(05년)와 8회(06년) 약 2개월간의 긴 강좌기간, 그리고 무료가 아닌 유료강좌였다는 점 등 그동안의 지역불교계의 경험을 비춰 볼 때 빛고을불교아카데미의 성공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지난 2년의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광주지역불교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불교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기여했고 지역불교 중흥의 기틀이 바로 교육불사임을 확신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지역불자대중들의 건전한 불교배움의 열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동안 20~30여 지역불교신행단체가 공동으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행단체들간의 연대감과 교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지역불교의 일꾼이 될 청년 불자들을 새롭게 발굴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다.

2년의 빛고을불교아카데미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자대중들의 불교배움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획이 된다면 대중의 참여는 보장된다는 점이다.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2개월여의 철저한 준비기간과 추진을 담당할 젊은 청년불자 실무팀의 구성을 통해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지역불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강사 선정에서도 법당이 아닌 일반 대중강연장인 점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한 선정, 그리고 진행 식순에서 강의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영상물의 활용 등 강의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획과 전담인력의 구성과 운영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20여 지역불교 신행단체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성공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역할분담 등을 통해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참여단체 등은 아름다웠던 지난 가을 밤의 여운을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더 오랜 기간의 기획과 준비, 그리고 더 많은 뜻있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연대의 틀을 만들고 지역불자들과 시민들을 또 한 번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자주 모이고 의논하는 희망의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해본다.

조영훈(빛고을불교아카데미 실무위원 · 광주 증심사 사무장)

'현대' 만평 심 민 섭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일반 김치보다 항암작용이 탁월한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항암작용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병술년은 천태산 황토 맹종죽염으로 김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씁쓸한 맛을 느끼지만, 숙성이 되면 최고의 김치맛이 날 뿐더러
항암작용이(정제염 30%, 죽염 66%) 일반김치보다 매우탁월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급되었던 황토맹종죽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공장도 가격 그대로를 책정하였습니다.

- 양치, 맛사지 및 김장용 3번구운 황토맹종죽염 380g 1만원(생활죽염)
- 1000℃이상 고열로 용융, 제조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체질개선용. 아홉번구운 맹종죽염(380g 10만원) 주문시 올 바른 죽염 사용법 설명서를 동봉해 드립니다.
- 천태산 죽염 : 전화 055)382-5515, 011-870-3951 / 팩스 055)384-1553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의 實相과 理解

황토맹종죽염이란 본래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어 고열에 구워 만들어내는 민속 향약으로 먼 옛날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인체의 건강 질병예방과 치료에 널리 응용 되어 온 신비로운 건강식품이다. 천태산 진우도인이 제조하는 천태산 황토맨종죽염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천태산에서 천일기도중에 천태지자 대사의 수기로 진우도인이 신비의 죽염 제조 공법을 더욱 정밀히 개발 심화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궁합논과 연계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데 정령을 모았다.

보편적으로 죽염을 청죽과 염을 조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있으나 천태산 황토 맹종 죽염은 황토와 송진 첨가는 물론 대나무를 일반적으로 쓰는 왕죽과 분죽이 아닌 특수한 맹종죽을 주재료로 하는데 있다. 위 4가지 물질을 배합하여 1300℃ 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아홉번을 합성 반복 결정체를 만드는 법제 방식으로 탁월한 공능을 갖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천하절경 성지순례 도량 천태산 천태사 성지순례 오세요.



아홉번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 (1000℃이상 9번)
세번 구운 천태산 황토맹종죽염 (1000℃이상 3번)

러시아 불교 '꿈틀'

러시아연방 공화국들이 최근 전통사원을 재건하고, 전통 의식을 복원하는 등 러시아불교가 '꿈틀' 거리고 있다. 인터넷 언론 '파율(Phayul.com)'은 11월 26일자 기사를 통해 '러시아불교 발전의 장애들은 제거됐다'란 제목으로 탄트라 수행의식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보도한데 이어, 러시아 언론 '투바온라인(Tuva-online)'은 '수트홀스키 지방 테베하이아에 사원을 건립한다'고 전했다. 수백전부터 티베트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바이칼 인근 부랴트, 투바, 칼미크 등 공화국들의 불교중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칼미크共, 3년전부터 탄트라 의식 복원
120m 만트라 조성한 투바共, 사원 건립 박차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스님들이 포교 주도

지난 10월, '가던 쉬드랍 초익홀링(Gaden Shedhorling) 불교사원' 건립 10주년을 맞아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올초에 높이 9m의 유럽최대 불상과 '유럽불교센터'를 수도 엘리스타에 조성한 러시아연방 칼미크 공화국. 이번에는 수천명 국민들이 수도 엘리스타의 새 사원인 '석가모니 금사원(The Golden Abode of the Buddha Shakyamuni)'에 모여 장중한 탄트라 의식을 거행했다고 '파율'이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칼미크의 수석 라마 텔로 툴쿠(Telo Tulku) 림포체는 "우리는 칼미크에서 대대손손 전승돼온 오랜 불교 전통의식을 복원하는 꿈을 키워왔지만, 그동안 러시아 역사의 암흑기를 거쳐 지금까지 단절됐다"며 "탄트라 수행과 의식이 지유드메드(Gyudmed) 수도원 스님들의 도움 덕분에 3년 전부터 복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복원된 의식은 불법의 정신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일명 '토르그약(Torgyak).' 이 의식에서는 매년 저무는 해의 말미를 기리기 위해 칼미크에서 3일간 기도를 했던 제사장 엘로(Yelo) 림포체가 특별히 참석하기도 했다

'파율'은 특히 "지유드메드 수도원의 티베트 스님들은 15년 교육과정의 탄트라 의식수행을 밟아온 수행자"라며 "지난 5년간 매년 칼미크 공화국에 초대된 이들 지유드메드 수도원 스님들은 남부 러시아 공화국의 불교부흥을 지켜보는 것을 기뻐했다"고 전했다.

총 120m 길이의 세계 최대 만트라를 조성한 투바공화국도 불교사원 건립 중이다. '투바온라인'은 11월 8일 사원 건립을 위한 초석을 놓는 상량식을 거행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은 "투바 공화국 수도 키질 시의 드미트리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불교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 단체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바 공화국은 이미 사원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테베하이아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금활동을 벌여 미화 2,500달러를 조성했다.

러시아불교의 중심지인 부랴트 공화국도 최근 10년간 불교건축 공사를 진행, 사찰 20여 곳을 새로 건립하거나 복원하는 등 불교 중흥에 나서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부랴트 공화국이 지난 2월 울란-우데의 근교에서 새로운 사찰 '데바진(Devazhin)'을 개원했다"며 "부랴트 공화국 정부는 부랴트내의 불교사찰 건설 및 복원을 위해 올해 연방 예산에서 약 100만 루블의 지원금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데바진' 사찰 주지 바이르 스님의 말을 인용, "2만 5000여 명의 신도들이 기와불사에 동참한 덕에 사찰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4개월간의 외벽공사가 끝나고 몽골과 부랴트 조각가들이 40여 구의 불상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러시아연방 공화국들에서 불교 부흥 붐이 일어나자 현지 언론들은 그 원인에 대해 "러시아불교를 이끄는 주도층이 달라이라마 등의 티베트 스님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언론은 또 "러시아 개방을 기점으로 왕성한 불교포교 활동을 벌여온 티베트스님들이 최근에는 사원 건축 중심의 외형적 불사는 물론 탄트라 의식 복원 등 무형분야에도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칼미크 공화국에 최근 열린 '토르그약' 의식의 경우, 달라이라마가 2004년 11월에 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봉행됐을 정도로, 티베트 불교가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 당시, 깨달음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는 상징물인 '토르마(torma)'를 사용한 토르그약 의식에서, 12년 넘게 정신적 지도자를 친견할 기회가 없었던 수만 명의 러시아 불자들은 엘리스타 사원에 운집했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참선 방해된다" 성기 자른 태국스님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려는 생식 목적을 위해서만 성욕이 일어나고 성관계를 맺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적 욕구가 터져 나오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미 원시 구석기 시대의 암각화에서도 이 문제를 과장해서 표현해왔고,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이 성 문제 때문에 숱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역사상 수많은 성인 · 철학자들이 "성적 욕구를 억제 · 자제하라"고 가르쳐온 것도 어찌 보면 그것의 자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지 모른다.

서양 문학사에서 '불후의 고전'이라는 평을 듣는 <데카메론>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에서도 신부 · 수도사나 수녀의 문란한 성 문제가 거론되었고 야담집에서는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하였다.

부처님 '비파 줄' 법문에 비춰보면
연주 안된다고 줄만 꽉 조이다 결국
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일 뿐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의 옛날 스님들의 일화를 전하는 어록이나 행장 등에도 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전해지는 것을 보면, 세속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행자의 길에 나선 스님들이나 독신을 선언한 가톨릭 성직자들의 경우에도 이 문제 해결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요즈음에도 이 문제는 소설과 영화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나 <만다라>에서도,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는 성욕 때문에 고뇌하는 스님이 등장해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숙제'를 안겨주었다.

이런 사정은 상좌부 불교권에 속하는 동남아 불교국가에서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11월 22일 <로이터통신>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참선 중에도 성욕이 일어나서 고통을 겪던 35세의 태국스님이 칼로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고, "나는 세속의 온갖 욕망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의사의 봉합수술 제의도 거절하였다.

어찌 보면 웃음거리로 들리는 이 짧은 뉴스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 성 문제는,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당위적으로만 말할 수도 없는 복잡 미묘한 배경이 있다.

"참선에 방해가 된다"며 성기를 잘라내고 봉합 수술을 거부한 이 스님의 결정이 옳은 것일까? 명상이나 참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지경에 이를 정도라면, 그 스님이 설사 가부좌를 하고 명상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혹 마음은 안정되었지만 육체적 결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스님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극단적 행위가 과연 부처님 법에 맞을까? 부처님 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가? 인간의 기초적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다면, 명상이나 참선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파 줄'의 법문에 비추어보면, 이런 스님들의 행위는 '비파 연주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줄을 꽉 죄어 결국 끊어버리고 마는 극단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이 극단적 행위자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풍조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좋은 곡을 연주하기에 딱 맞게 '비파 줄'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비파 연주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제자를 가르쳐온 스승도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마찬가지로, "욕구를 끊어버리겠다"며 극단적 행위를 하는 스님들은 훌륭한 수행자가 아니며 이렇게 밖에 가르치지 못했던 지도자들도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없다.

'참선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성기를 잘라낸 태국스님 이야기를 전한 <로이터 통신>의 짧은 기사가 우리 불교계에 던지는 '물음'이 만만치 않다.

■ 자유기고가

---

interview

인순 법사 탄생 100주년 맞아
전기 낸 작가 **판슈앤씨**

"'인간불교' 주창한 인순 법사, 생명력 충만한 실천가"

"스님의 일생은 '생 · 명 · 력 · 충 · 만(充滿生命力)', 이 다섯 글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을 사셨던 스님은 조산아로 태어나 강한 체력의 소유자는 아니셨지만, '인간불교(人間佛教)' 사상을 널리 펼치셨던 대만 근대불교의 아버지셨어요."

'인간불교'의 주창자 인순(印順) 법사(1906~2005).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사상과 행적을 담은 사진집 <법영일세기(法影一世紀)-인순도사 100세>를 최근 펴낸 작가 판슈앤(潘煊)(사진)씨는 '불교는 세간(世間)에 있음을 깨달으라'는 인순 법사의 인간불교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인순 법사의 사상과 일생을 13만자로 된 <인순도사전>도 펴냈던 판슈앤씨. 11월 23일, 타이페이 번화가 한 빌딩 오피스텔에서 만난 판슈앤씨는 인순 법사에게 받은 '홍웨이(宏暐)'란 법명을 소개하며, 스님의 마지막 유발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스님의 전기를 쓰게 된 것은 정말로 우연이었어요. 사실 전기 발간은 대만 '천하(天下) 문화출판사'의 중요한 출판 사업 중 하나였지요. 당시 불교계에서 일하던 저는, 아흔이 훨씬 넘으셨던 스님을 2001년부터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해 전기집을 출간하게 됐어요."

판슈앤씨가 펴낸 <법영일세기>는 인순 법사의 100년 행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와 사진은 물론, 일대기까지 표로 구성했다.

"원래는 스님의 10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됐던 책인데, 스님이 원적에 드신후 책이 나와 매우 안타까워요. 청대에서 중화민국까지 100년을 사셨던 스님은 육체적으로 갖은 병고에 시달리고, 전통 불교방식과 부딪쳐 공격과 반대도 받았지요.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찡이앤(證嚴) 스님의 자제공덕회, 추완따오(傳道) 스님의 학술 편찬 사업, 짜오후이(昭慧) 스님의 호생(護生)의 환경보호 운동 등으로 현재도 이어져오고 있어요."

판슈앤씨는 '실천'을 강조했던 인순 법사의 가르침과 수행법도 설명했다.

"스님은 늘 실천한 만큼 성취하게 된다고 하셨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은 생각만으론 안 된다. 진정 실천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염불의 '염(念)'자는 생각하며 잊지 않는다는 뜻이니, 그저 입으로 읊지 말고, '마음'으로 외라고 하셨어요."

이어 판슈앤씨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인순 스님의 생전 모습도 회상했다.

교육부 문예창작상, 불광 문학상 등을 수상한 판슈앤씨는 현재 각종 불교단체에서 강연하고 있다.



대만=이상미 통신원



아·름·다·운
삶·사람

향기 도반의

국립의료원 자원봉사 15년
이청자 보살



‘펑펑’ 퍼줘서 ‘퍼순이’ 예요

호스피스·상담 등 일주일 빠듯
남편 연금통장 받아 ‘활동비’로
“마음·건강·경제력 봉사 3요소”
힘 닿는 한 봉사하는 삶 발원

“자원봉사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돕고자 하는 ‘마음’ 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몸’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이에요.”

국립의료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15년째 하고 있는 보현경 보살(본명 이청자 · 64)은 자원봉사자의 기본 요건을 이렇게 정의한다. 처음에는 몸과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봉사하는 날이 늘어가면서 재정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법당에서 상담봉사를 하다 보면 퇴원할 때 교통비가 부족하거나, 입원비가 부족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법당은 법우회에서 운영하는데 자금여력이 없잖아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 조금씩 보태줍니다. 그 힘든 사정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교통비 등 소소하게 드는 비용부터 보다 많은 이와 나누기 위한 돈에 이르기까지 씀씀이가 여러 곳이다. 남에게 잘 퍼줘서 ‘퍼순이’요, 큰 돈 갖다가 작게 부숴버린다고 ‘바순이’라고 남편이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

자원봉사에 몰두하는 부인에게 더 열심히 하라며 남편 지수 거사는 연금통장을 내밀었다. 남편의 연금을 보현경 보살은 거리낌 없이 펑펑(?) 쓴다. 그만큼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많다.

보현경 보살이 처음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90년 초 국립의료원에서다. 일주일에 한 번 공급실에서 거즈 등을 접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타종교 자원봉사자들이 없었다.

보현경 보살이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것은 1994년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제1회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다. 영가를 위한 염불봉사인 원왕생 교육도 받았다. 매주 월~토요일 병원으로 출근하듯 봉사에 몰두했다. 호스피스, 상담 봉사, 영안실 염불 봉사 등, 보현경 보살의 일주일은 봉사로 빠듯하다.

병실을 돌며 매일 30~40명의 환자들과 마주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을 위해 몸도 주물러주고, 대화 상대도 했다.

“건강이 무쳐 안 좋았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워낙 바쁘니까 아플 틈이 없어요. 아프다고 누워있지 않고 바쁘게 봉사하면 아픈 것도 잊고 좋아요.”

아플 틈이 없다고 하던 보현경 보살이지만 매일 30~40명의 환자들을 대하면서 두 번이나 쓰러졌다. 한 번 더 쓰러지면 일어설 수 없을 거라 했다. 봉사도 좋지만 건강이 안 따라주면 그나마도 못한다는 생각에 요즘 보현경 보살은 환자들을 병실이 아닌 법당에서 만난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상담역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법당에 머물다가도 연락을 받으면 호스피스로, 염불봉사자로 바로 변신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돌아가기 3시간 전까지 부인과 내 손을 잡으며 도반으로 지내달라고 부탁하신 한 거사님이에요. 그 분이 돌아가신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병원 법당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 하면 부인이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정말 고맙죠.”

초창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던 터라 활동이 쉽지는 않았다. 돈은 얼마나 줘야 하냐, 가족이 아프냐 등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도 색안경을 쓰고 비난하기 일쑤였다. 봉사자라고 우습게 보는 이들도 많았다.

너무 힘이 들어 성덕 스님(방생선원)을 찾아가 울기도 여러 차례. 그때마다 스님은 다른 말씀 없이 “보살님 그래도 하실래요?”하고 묻기만 했다. 당장 그만 둘 마음이다가도 그 질문만 받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자신도 모르게 답변을 했다. 성덕 스님은 그렇게 보현경 보살을 이끌었다.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같이 활동하는 다른 봉사자의 모함을 받았다. 1년 반이 지나 그 봉사자가 그만 두고서야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을 귀띔해줬다.

“부처님이 제 눈과 귀와 입을 가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나를 모함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내게 고난을 주는 이가 지나고 나면 나의 선지식”이라는 보현경 보살은 힘이 들고 지쳐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마다 선지식들과 스님들이 힘을 준다고 말한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동국대 석림회 의장이던 재안 스님과 인연이 닿아 동국대에 재학중인 스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국립의료원을 방문하게 됐다.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학기 중에는 매주 스님들이 찾아와 병실을 둘러보며 환자들을 다독인다.

“재가자가 천 마디 만 마디 하는 것보다 스님의 먹물 옷 한 번 보는 것이 환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스님들 오시는 날은 환자들이 더 먼저 기다려요.”

보현경 보살을 봉사로 이끌었던 성덕 스님이 항상 강조하던 “불자라면 불자답게, 봉사자면 봉사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아둔다.

보현경 보살이 생각하는 봉사자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선 하심(下心)해야 한다. ‘나’라는 상이 있으면 힘들다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아야 하는 것도 봉사자다운 사고방식이다.

보현경 보살은 요즘 법명을 ‘부동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옹 스님께 받은 ‘부동심(不動心)’이라는 법명을 초심자인 제가 감히 쓸 수 없었는데 원교사 계환 스님이 이제 그 법명을 쓰라고 권유해주셔서 원교사에서만 ‘부동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불자여서 더욱 행복하다는 보현경 보살은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 갈 때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열심히 힘닿는 그 날까지 봉사하면서 삶을 회향하고 싶다”고 소망한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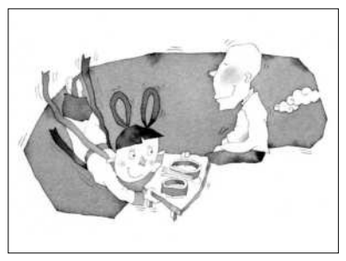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8> 천공(天供)

서점에 들르니 같은 세대의 소설가가 써 놓은 <어머니의 수저> 라는 음식이야기 책에 손이 갔다. 가지고 와서 시간 나는대로 몇 페이지씩 읽어내렸다. 거기에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이 나온다. 평생 바람만 피운 어느 플레이보이 노인네에게 임종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가 누구냐?' 고 물으니 '매 끼 정성다해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던 그 여자'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먹고사는 일은 승속을 떠나서 참으로 큰일이다. 오죽하면 '생사일대사' 는 '밥먹는 일' 이라고 하겠는가. 외국에 나가 오랫동안 살던 스님이 대중처소에 와서 제일 좋은 일이 '내 손으로 밥 해먹지 않는 일' 이라고 했다.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북소리 종소리에 맞추어서 큰방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다. 하긴 남이 차려줄 때는 차려주는 일의 고마움을 모른다. 그 때는 그것도 내 복이려니 하고 그냥 '남을 위해서 먹어주는 것' 처럼 여겼다. 그것도 하기 싫어 큰방공양에 빠지면 어른스님에게 '차려놓은 밥도 안 먹는다' 는 지청구를 듣기 마련이다. 결론은 항상 승려노릇이란 '예불공양 잘하는 일' 이라고 하면서 끝맺는다. 그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 귀밑털이 희끗희끗해지는 나이가 되어보니 정말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천공 받았다는 자장 스님
원효 스님에게 자랑하려다
공부 경지 확인하고 존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중을 떠나 사는 스님들에게 한 끼 한 끼 해결은 바로 수행과 다름 아니다.

토굴에서 밥해 먹으며 혼자 살아보니 살림하는 마을여자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준비 할 시간이고, 어영부영하다보면 저녁시간이고, 저녁 먹고 설거지 마치고 나면 잘 시간이라고 했다. 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이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귀찮아서 하루에 두 끼 그것도 나중에는 한 끼만 저절로 먹게 되더라고 했다.

그러나 그 한 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아지기 마련이다. 그럴 때면 '진짜 열심히 정진하면 천신이 하늘에서 공양을 갖다 준다고 하든데…. '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선녀가 매 끼니는 아니더라도 하루 한 끼 정도라도 밥을 가져오는 상상은 스님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꾸어본 꿈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천공(天供)을 받았다는 선사들이 많다. 신라의 자장도 그렇고 중국의 도선도 그랬다. 그런데 중생심은 그 천공받는 일을 자랑하고 싶기 마련이다. 꼿꼿한 교과서적인 두 스님은 동시대의 경쟁자이면서 자유분방하게 사는 원효나 규기가 내심 못마땅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천공받는 것' 을 보여주면서 '승려노릇 좀 잘해라' 라고 훈계하려고 했는데 웬걸 그날은 천공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다.

도선은 현장법사의 수제자인 규기를 존경하면서도 한편 그의 수행관을 의심하였고, 규기 역시 도선의 앞뒤가 꽉 막힌 그 소견머리를 얕잡아보았다. 하지만 그가 천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내심 부럽게 여겨 스스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어느 날 도선의 처소를 방문하여 천공을 함께 받고자 하였다. 하지만 진종일 그와 있어도 천공이 오지 않았다. 규기가 떠나고서야 비로소 천공이 왔다. 도선은 "어찌하여 때맞추어 가져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천신을 꾸짖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오늘 규기 스님과 이야기 할 때 백호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들어올 길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도선은 규기를 마음으로 존경했다. 자장 역시 천공이 오지 않자 원효가 돌아간 뒤늦게 온 천신의 '호법신장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 고 한 변명을 들은 이후 원효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 역시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천공으로 인하여 서로의 공부경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니 밥은 단순한 밥만은 아니였다.

그나저나 이 일요일 아침을 거르고 있는 나에게 어느 선녀가 천공을 갖다줄 지 기다려보자.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수행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인!



경전공부를 하고 있는 여래선원 불자들. 이곳 불자들은 경전공부 뿐만 아니라 참선, 염불선, 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가자들이 이끄는 수행처 부산 여래선원

이름난 산에 이름난 절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은 역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여래선원(원장 황갑규)은 '수행이 밥먹고 잠자는 일상처럼 생활이 되게 해야 한다' 는 재가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문을 열었다. 개원후 불과 1년 만에 누구나 쉽게 찾아와 참선과 경전 공부로 스스로 삶의 지표를 세워나가고 있는 도심 속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여래선원은 '명산명찰' 이라는 말 대신 '이름난 도심 가운데 이름난 도심수행도량이 있다' 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가는 선구자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도반들이 내는 회비 · 보시금으로 운영
열쇠 100여개 복사해 수시로 드나들어
지난해 15명 시작 … 60명으로 늘어나

▶사랑방 같은 도심 수행도량

여래선원은 2005년 8월 문을 열었다. 북구 모라동의 운수사에서 10여 년간 참선과 경전 공부를 이어오던 도반들이 주축이 됐다. '도심 속에서 수행하며 불법을 펴보자' 는 원력으로 마음을 냈지만 스님들도 실패를 거듭하는 도심포교당을 재가자들만의 힘으로 여법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과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포교당 개원을 결심하고 나니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주위 여건이 따라주었다. 여러 도반들의 보시와 참여로 수정역 1번 출구 바로 옆 금강빌딩 4층에 50평 규모의 선원이 마련됐다. 일과 후 쉽게 찾아 정진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수행처가 문을 연 것이다.

여래선원엔 여느 도심 포교당처럼 상주하는 스님은 없다. 오랫동안 참선과 경전공부를 이어온 재가 선객들이 선원 대중을 이끌어간다. 원당암 달마선원, 해운정사 선방 등에서 10년 이상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정진해 온 황갑규(55 · 현담) 거사와 대학시절부터 경전 강독과 수행에 진력해 오며 경전 공부를 지도해온 한의사 김진일(47 · 정명) 거사가 공동 선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오랫동안 수행해온 교수, 교사, 한의사 등의 도반들이 도량의 든든한 울타리다.

여래선원은 운영방식도 독특하다. 도반들이 내는 회비와 보시금으로 운영되며 격월로 보시금과 지출내역을 정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한 열쇠를 100여개 복사해 하나씩 가질 수 있게 한다. 수행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나 주인이 되는 공간이다.

황갑규(55 · 현담) 선원장은 "하늘 아래 이런 수행처가 있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시작한 시도였는데 막상 이 곳을 찾는 분들 모두가 주인의 마음으로 스스로 수행하고 다른 이들이 수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도심포교당의 희망이 보인다"고 자랑했다.

▶선교쌍수(禪敎雙修) 원칙 확고

11월 27일 월요일. 여래선원 경전 공부가 있는 날이다. 8시부터 시작되는 공부 시간에 맞추기 위해 일과를 마친 도반들이 서둘러 선원에 들어선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경전 공부는 법화경에 이어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를 시작했다.

경전 공부는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 참선을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준다. 경전 공부는 불법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연기법에 대해 정견을 갖추게 해 주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정견과 서원에서 참선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여래서원 입문자들은 반드시 경전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김진일 거사는 "경을 바로 보면 그 것 자체가 선이며, 선을 잘 하면 그것 자체가 경이 된다"며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바른 정진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전 공부로 바른 지견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로 서로 스승이요 도반

여래선원에는 스승이 따로 없다. 모두가 스승이고 도반이기 때문이다.

"불교집안의 공부인은 '오직 모를뿐' 이므로 묻고 답할 것조차 없다. 그러나 점잖은 선비처럼 입을 다물어 버리면 불교가 망한다. 누구든지 몽둥이를 먼저 맞아야 부처님한테 입은 은혜를 갚는 것 아니겠느냐?"

황 선원장은 선원장 소임을 '몽둥이 맞는 짓' 이라고 한다. 몽둥이를 하루에도 수 십 번씩 맞는다는 황 선원장의 말에서 치열한 수행 열기가 묻어난다.

황 선원장은 일대일 대화를 통해 각자가 얽매여 있는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아 주고 올바른 참선법을 지도해준다. 앞서간 선배들은 스스로 몽둥이를 각오하고 입을 열어 후배들을 이끌어주며 도반들은 서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 정견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여래선원에 온 초심자들도 직접 참선 공부를 경험한 선배들의 자상한 지도 덕분에 공부에 큰 도움을 받는다. 15명으로 시작됐던 도반이 어느덧 60여 명으로 늘어난 것도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분위기 덕분이다. 오랫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불법을 공부해온 도반들의 수행열기가 서로의 공부를 탁마해주는 좋은 스승이 되고 있다.

"무작정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인줄 알면 더욱 더 참선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지적한 황갑규 선원장은 " '도' 는 곧 '쓺' 이므로 가정이나 직장 생활 곳곳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생활선(生活禪)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여래선원은 매주 월요일에는 경전 공부, 매주 수요일에는 법담, 매주 목요일에는 참선 및 염불선, 매주 토요일에는 철야 참선 정진, 일요일 예불 및 법담을 진행하며 도심에 불법의 튼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051)362-033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여래 아토피
천연 연고비누
천연생약 25종의 성분으로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을 사용치 않는 순수 생약으로만 제작한 여래아토피 천연연고비누는 각종 특이피부,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두피 가려움증, 비듬, 두피영양부족으로 오는 진행성 탈모증 각종 피부 체질 개선과 피하속 혈행을 촉진시켜 혈액순환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사용방법 ▤
1) 전신에 거품이 나도록 1~2회 비누칠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2) 부드러운 타올로 적당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 준다.
3)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여래아토피 무보시 체험방 운영 : 약효의 효능을 확인하시는 기회를 드리고자, 불자님들께 무보시로 약사여래광불의 가피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02)429-5093
011)9166-2575

六 壬
受講生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전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반명함판 사진 4매
◆모집인원 : 00명
◆수 강 료 : 30만원
(하나은행 207-910003-34305 한미교육교류재단)
◆교육기간 : 12주(3개월) 매주 토요일 六壬 오전 10시 ~ 12시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숭인 1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개 강 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접수문의 : 교학과 02) 766-1321 ~ 2
담당교수 이춘목(고려육임학회 회장) 011-1763-3567
◆강의내용
※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
※ 결혼, 질병, 구재, 주택, 시험, 소송
◆특 전
– 전 과정 수료 시 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본 교육 수료 후 고려육임학회 회원 가입
– 교육 수료 후 창업 준비시 창업컨설팅 무료 상담
중 앙 대 학 교 위탁교육기관 코드 바
중 앙 H R D 교 육 원
한 미 교 육 교 류 재 단 부설
한 미 H R D 교 육 원
www.kafee.co.kr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신행으로 '本業' 업그레이드하는 동국대 일산병원 불자들

일하며 공부하며 '大醫王'의 길로…

어느 한 사람도 여유롭지가 않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의 일상은 늘 분초를 다툰다. 긴장의 연속, 그로 인한 스트레스.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쉽지 않다. 동국대 일산병원 불자들. 그들의 마음 속엔 부처님이 있다. 자신조차 잊을 만큼 바쁜 걸음이지만 어딜 가든 부처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심은 대단하다. 연우회라는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신행을 하고 있는 일산병원, 불자들. 이들은 지금 '대의왕(大醫王)의 길'을 가고자 한다.



불교대학 강의를 듣고 있는 일산병원 불자들. 이석현 병원장(앞줄 맨 오른쪽)과 이원철 한방병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도 강의에 참석했다.

예불 · 월례법회 · 초청법회가 신심가꾸기 원동력
의료지원 · 소외계층 방문 · 도서대여 등 활동 '보람'

▶진지함, 그 이상의 강의시간

11월 27일 동국대 일산병원. 오후 3시 30분이 되자 제1기 불교대학 강의 시간을 안내하는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 시간 뒤. 이석현 일산병원장과 이원철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50여 명이 불교대학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 세미나실에 자리 잡았다.

지난 11월 8일 시작돼 매주 수요일 강의가 열렸으니, 이날이 네 번째다.

병원에서 업무시간에 불교대학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종립학교 병원이라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 의미있는 것은 강의 내용이 병원이라는 환경을 고려해 불교와 생명의료윤리, 생명복제와 불교, 뇌사 · 장기이식 · 안락사와 불교, 낙태 및 사형제도와 불교 등의 강좌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석현 병원장과 함께 나란히 앉아 강의를 듣고 있는 김응중 교수(49 · 흉부외과 과장)는 청강생이다. 연우회 구도부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불교공부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학적 문제를 불교적으로 접근하는 강의라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불교대학 회장을 맡고 있는 노미경 수간호사(45 · 신생아 중환자실)와 총무를 맡고 있는 우종필 계장(38 · 재경팀)도 "병원에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며 흐뭇해했다. 특히 노 수간호사는 "12차례 강의가 모두 끝나면 1기생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양한 동아리활동 신심 UP

이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병원 5층에 마련돼 있는 법당에서 예불을 올린다. 그리고 매월 한 차례 정기법회를 갖는다. 또 분기별로 초청법회도 연다.

지금까지 현해 스님(前 동국대 이사장),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을 차례로 모신 가운데 법회를 열었고, 오는 12월 말에도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동아리인 '차연회'는 얼마 전인 11월 20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는 한편, 법사실에서 수시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관계를 다지게 된다. 또한 차 문화가 불교문화인 만큼 이를 통해 병원 내에 차 문화를 알리면서 불교문화를 고양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

일산병원 불자들의 봉사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연우회 봉사부에서는 인근 소외계층과 독거노인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또 교수(전문의)들은 중앙신도회와 함께 하는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를 통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어르신 개안수술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50여명으로 구성된 종교봉사단은 환자 위문 및 도서대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법공양 단체인 연지회(회장 이양희)는 매월 신간 20권을 마련하면서 불서 보급운동을 펼치고, 병실을 돌며 환자들에게 염주와 법요집도 나눠주고 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힘'

이렇게 활발한 신행이 이뤄질 수 있기까지는 일산병원 지도법사 중제 스님의 역할이 절대적. 지난해 1월 연우회를 구성한 중제 스님은 예불과 직원상담, 환자 방문 등을 통해 신행분위기를 만들어나갔다. 불교대학 운영도 스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무반응이었던 불자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고, 이제는 스님과 불자들이 하나가 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신행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중제 스님은 "모든 활동을 불교적 소양과 마인드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신행으로 연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전국불자교정인련 "내년 화두는 조직강화"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가 조직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포교에 나선다. 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변동윤)는 11월 14일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사업안을 확정했다.

사업안에 따르면, 연합회는 조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포항 · 청송 · 순천 · 장흥 교도소 등 6곳의 지회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연차적으로 벌여나가고 지부(서울경기 · 충청 · 영남 · 호남)와 지회 간 합동법회를 실시해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 지회마다 두고 있는 포교사를 활용해 교도소 경비교도대 대원들을 대상으로 정기법회를 여는 한편, 연합회와 각 지회가 현재 벌이고 있는 '1지회 1양로원 · 고아원' 사업도 '1지회 2복지시설' 개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개설한 연합회 카페(http://cafe.daum.net/kyogeongbuddshim)를 활성화해 인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30대 직원들과 70대 어르신들의 '가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이호걸 부장

한 조직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이호걸(43) 부장의 하루는 업무를 조정하고, 직원들의 정서를 살피고, 복지관을 찾아온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일로 채워진다.

어떤 조직이든 일을 하다보면 서로가 불만을 갖기 마련이다. 이럴 때 이 부장은 무엇을 강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 명쾌하지는 않지만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맡겨두고 해결하는 것이 이 부장의 방식이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따금씩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그럴 때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복지관 사정을 잘 아는 어르신에게 불만 있는 어르신들을 설득하도록 도움을 청한다.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7년 간 근무하다 2003년 광진노인복지관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복지관이 막 개관한 때라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때 관장인 화평 스님이 일주일에 한 번 직원들이 나란히 서서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이 부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직원들과 함께 생활한복을 입고 복지관 입구에 서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어르신들이 반갑게 대해주었고, 그러면서 복지관 내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린 날에는 법회도 가졌다. 직원 모두가 불교신자는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0대 초중반의 직원들, 평균 70세의 복지관 어르신들. 세대차이로 갈등이 있을 법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서로를 챙겨준다. 그래서 먼 곳에서도 광진노인복지관을 찾아 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죠. 어르신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보람이 느껴져요. 우리는 모두 행복공동체가 아닌가요?"



이호걸 부장(오른쪽)이 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부장은 복지관이 행복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직원들에게도 늘 이 점을 강조한다.

이 부장은 지난해부터 영화사 불교대학에 나간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강의에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빠지지 않는다. 늘 해왔던 공부지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광진노인복지관의 슬로건은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행복한 어르신'이다. 이 부장의 하루는 이 슬로건대로 나누고 배우고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한 땀으로 채워진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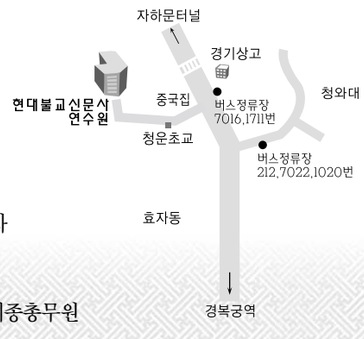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중학생 영어, 수학 방학집중특강

중학생 불자 영어 특강교실

귀의 삼보하옵고,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5조원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여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을 영어교육에 들이는데비해 그 결과는 아사아에서 꼴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74%가 사교육을 통해 따로 영어를 배운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첫 수업을 받은 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반 아디들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영어를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현실이며 영어의 조기 교육과 적극적인 교육이 영어 교육에 기여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통아일보사설 참조)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에서는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이번 겨울 방학동안 중학생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 수학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특강에서는 (사)신교연이 자체 제작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겨울 방학일정에 맞춰 영어와 수학성적을 단시일에 견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영어프로그램 진행 중에 영어경전암기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약도참조)
■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2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공개강좌 무료
■ 본 강좌일시 : ◎06년 12월 25일(월) - 2007년 1월 24일(수)
◎1개월. 월 - 수, 주 3일
◎오후 1시 - 오후 5시(하루 4시간)
■ 수 강 료 : 30만원(교재비포함)
■ 문 의 전 화 : 핸드폰 011-9765-6999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도보로 200미터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 ■ 주관 : (사)신교연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새싹불자창작 "등(燈)" 제작 체험교실

귀의삼보 하옵고,
비바람이 거세어 걸어놓은 모든 등이 꺼졌는데 유일하게 남은 작은 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은 가난한 부인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들었기 때문이 강한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시어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든 등의 공덕을 칭찬 해 주실 만큼 제작 등의 공덕은 큽니다. 창작 등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등이 아니라 창작자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실한 신심을 담아 만드는 아름다운 등입니다.
미래는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에서는 (사)신교연과 공동으로 이번 겨울방학동안 어린이불자들이 스스로 디자인을 설정하고 설계하고 스스로 제작하여 불심을 담아 불을 밝히는 창작 등 제작체험교실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생기발랄한 어린불자들의 무한한 불심과 창의력이 넘치는 창작체험 마당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함께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들의 동참은 창작 도우미로서 동참은 환영합니다.**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54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약도참조)
■ 대 상 : 초등학생 반. 중학생 반
■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2월 23일(토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 본 강좌일시 : ◎1차 : 2006년 12. 25 (월) - 12. 29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2차 : 2007년 1. 1 (월) - 1. 5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3차 : 2007년 1. 8 (월) - 1. 13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4차 : 2007년 1. 15 (월) - 1. 19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5차 : 2007년 1. 22 (월) - 1. 26 (금) 1주일간.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 1주일 전 과정 : 5만원(제작교재비포함)
※ 본 강좌에서 제작한 창작 등은 전시회에서 수상작을 정해 수상합니다.
■ 문 의 전 화 : 02)735-3034, 핸드폰 011-9765-6999
■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길건너 청운초등학교 뒷골목 도보로 200미터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부설연수원 ■ 주관 : (사)신교연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현대불교신문사 부설 연수원 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9> 으뜸가는 정진이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사의 바다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머나먼 여정이다. 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부처님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되 어떤 곤란이나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는 마음이 있어야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화를 내지 않고 참아내는 마음, 이 참마음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진이다. <선가귀감> 49장에서는 말한다.

守本眞心 第一精進

'본디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니라.

'본디 참마음'은 부처님 마음을 말한다. 헛생각을 떠나 있는 것이 '참'이요 신령스럽게 밝은 것이 '마음'이다. 헛생각은 오염된 중생의 마음이요, 오염된 마음을 떠나 신령스레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다.

아직 중생이지만 부처님의 삶을 좇아서 부처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정진이다. 정진(精進)을 <선가귀감> 언문주해에서도 "정(精)은 부처님 마음에 조금도 다른 잡념이 섞이지 않는 것이요, 진(進)은 그 마음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그 마음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精은不雜홀시오 進은不退홀시라]"라고 하였다. 서산스님은 말한다.

若起精進心 是妄 非精進. 故云 莫妄想 莫妄想. 懈怠者 常常望後 是自棄人也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헛된 생각이니 올바른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양 선사가 이르기를 "헛생각 하지 말라 헛생각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늘 뒤를 바라보는데 이는 스스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처님 세상을 따로 두고서 그곳으로 가겠다고 마음 내는 중생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무명으로 인(因)하여 중생의 시비분별로 만들어진 것이니, 허깨비와 같은 '나'와 '부처님 세상'이라는 경계에 집착하는 중생들의 '헛생각'에 불과하다. 중생의 생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은 허망한 것으로서 중생계에 머물러 벗어나지 못하니 올바른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양(汾陽 762~823) 선사는 누가 무슨 말을 묻든지 한결같이 대답하기를 "헛생각 하지 말라 헛생각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참마음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

자꾸 게으름 피우면 모든 공부 거기서 중단

올바른 정진이란 부처님의 참마음을 잊지 않고 그 근본을 지켜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참된 정진이므로 그밖에 따로 정진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이것은 헛생각으로서 참된 정진일 수 없다. 그래서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이는 헛된 생각"이라고 한 것이다. 정진이란 끊임없이 물이 흐르듯 부처님의 참마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꾸 공부를 뒤로 미루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정진이 중단되면 모든 공부는 거기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부처님의 삶'이므로 열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한다. 첫번째, 삿된 소견을 지닌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부처님 공부를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부러지지 않는 금강같은 부처님의 보배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다.

두번째,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그를 거두어 보살피는 것이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받을 부처님의 아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하늘의 신장들이 언제 어느 곳이든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 사람은 뒷날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실 귀하신 분이므로 하늘의 신장들이 늘 부처님처럼 우러러 보고 존경하기 때문이다.

네번째, 한번 들은 법은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다. 부처님의 법은 한번 인연을 맺어놓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반드시 꽃을 활짝 피우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아직 듣지 못했던 법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에 대하여 싫증을 내지 않고 언제나 즐거워하므로 일찍이 듣지 못하던 법을 지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말문이 트이는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모든 법의 이치에 정통하므로 다른 사람이 묻는 대로 거침없이 답변하여 어떤 의심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 고요한 삼매를 얻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여 세상살이 어떤 일이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다.

여덟번째, 있던 병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없어지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므로 언제나 몸이 가볍고 편안하여 있던 병도 사라지고 온갖 괴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아홉 번째, 먹는 음식을 언제나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므로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열번째, 진흙탕 속의 푸른 연꽃과 같아지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생사의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진흙탕 연꽃처럼 그 마음이 맑고 순수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불유교경(佛遺敎經)>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대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떤 일도 어려울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해야만 한다. 비유컨대 오랜 세월 작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지면 단단한 돌도 뚫리듯 부지런히 정진하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자꾸 게을러져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면, 이는 마치 불씨를 얻으려고 나무를 비빌 때 아직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나무 비비던 일을 그만두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불씨를 얻으려고 해도 불씨는 얻을 수 없듯 끝내는 성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이를 정진이라 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시방삼세(十方三世)

절집에서 예불할 때 이런 말을 읊조립니다.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승가야중~" 여기서 시방삼세란 뜻은 무엇일까요? 불자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불교용어, '시방삼세'(十方三世). 하지만 그 연원과 깊은 뜻은 잘 알지 못하면서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방삼세는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초월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한꺼번에 존재하며 그 인과 역시 윤회를 하며 시공간에서 서로 교류하며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먼저 시방이란 용어는 동서남북 사방과 건(乾)·곤(坤)·간(艮)·손(巽)의 사우(四隅) 또는 북서 남서 북동 남동의 사유 및 상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시방세계는 곧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삼세(三世)는 과거, 현재, 미래, 전세, 현세, 내세 등 시간의 흐름을 뜻합니다. 과거세(過去世)는 지나간 때를, 현재세(現在世)는 현재 있는 때를, 아직 오지 않은 때를 미래세(未來世)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삼세는 일체의 존재가 생멸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각각 차별을 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세를 법의 상태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법이 생겨서 작용하는 때를 현재라 하고, 법이 없어서 작용이 끊어진 때를 과거라 하며, 법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고 작용하지도 않은 때를 미래라고 합니다.

삼세는 불교의 가장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因果應報)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진심으로 안아주기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2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70강 일념지경(一念持經), 아인돈진(我人頓盡)

32상을 애착 갈구만 할 것인가

32상을 애착 갈구만 할 것인가정말 혜능은 독창적이다. 그의 32상 해석은 그동안의 우리 해석과 다른 길을 간다.

여래는 보통 사람의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서 늘 있으니, 다시 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경전은 이 역설 하나를 고구정녕 알리고자 한다."

그런데, 그런데 혜능은 이 통상적 해석에 담긴 진부함과 태만을 뒤통수에 불이 번쩍 나게 두들긴다.

(혜능 13-4)

"三十二相者, 是三十二淸淨行. 於五根中, 脩六波羅蜜, 於意根中, 脩無相無爲, 是名三十二淸淨行. 常脩此三十二淸淨行卽得成佛. 若不脩三十二淸淨行, 終不成佛. 但愛著如來三十二相, 自不脩三十二行, 終不見如來."

"32상이란 32가지의 청정(淸淨)한 행동을 말한다. 오근(五根)의 다섯 감각기관으로 육바라밀, 여섯 가지 피안으로의 수행을 해 나가고, 의근(意根), 즉 의식의 수준에서는 무상무위(脩無相無爲)를 닦아 나간다. 이를 32청정행이라고 한다. 늘 이 32청정행을 닦아야만 즉, 성불을 성취할 수 있다. 32청정행을 닦지 않으면 종내 성불을 이룰 수 없다. 여래의 32상을 애착 갈구하되, 스스로 32상을 닦지 않으면 종내 여래를 볼 수 없다."

(부연 13-4)

그는 하나도 실천, 둘도 실천을 다그친다. 내가 앞에서 적은 역설은 그저 한가한 희론(戱論)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재치는 있으나, 깊이는 없는 구두선이 되고 말 우려가 다분한 것이다. 혜능은 이 사태를 180도 돌려세워 놓는다. 그는 이렇게 깨우치려는 듯하다. "32상이란 32개의 청정한 행동이다. 여래의 표징같은 한가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목숨걸고, 불교인으로서, 법답게 닦아야 할 평생의 사업이다. <금강경>이 '32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32의 청정행, 브라마차리야를 찬양은 하되, 열망만 할 뿐,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성취시키려 하지 않는 태만과 퇴전(退轉)을 경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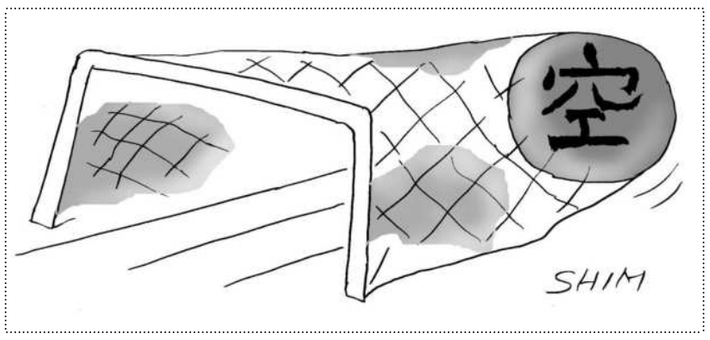
그렇다. 책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불 속의 활갯짓으로 하자면 천하를 한 손바닥에 요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일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한발 나서는데 온갖 장애와 복병들이 발목을 잡고, 길을 가로막는다. 사업을 하는 자는 위대하다.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자칫 무책임하게 떠들기 쉽다. 실무에 관련된 일일 경우, 남의 제안과 시도에 쉽게 한 둘 결점과 미비를 찾아 헤집어대는 못된 버릇을 삼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용>은 "말은 내 행동을 돌아보고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돌아본 다음, 입을 떼는 조심스러움이 인품과 능력의 가치를 가르는 큰 갈림길이다. 무아란 실천적으로 보자면, 비판으로 자동 모드 변환하는 자신의 오랜 에고의 관성을 홀당하는 일이기도 하다. 싸그리 불평을 쏟아놓기보다 보완의 방책을 어드바이스하고, 더 나은 대안을 설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32의 청정행을 입으로 떠들기는 쉽다. 가령 성공한 사람을 선망하기는 쉽고, 또 아낌없이 존경을 표하기도 쉽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32청정행을 목숨을 걸고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사람은 더욱 귀하다. 혜능은 중생들의 오랜 습성인 게으름과 태만을 되돌려 반야바라밀의 사다리를 걸어 올라가도록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혜능의 설법은 요약하면 이렇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그 자각을 실천하라. 모른다고? 붓다의 말씀, 그 핵심은 심플하니, 다만 그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라. 여기에 무슨 복잡한 체계며 이론이 필요한가."

혜능은 그 요점을 잘 모를 사람들을 위해 친절한 설명을 잊지 않았다. 하나는 '5근 중에 6바라밀을 닦으라'이고, 하나는 '의근 중에 무상무위를 닦으라'이다. 6바라밀은 감각을 길들이는 훈련이고, 무념무위의 수련은 상념-의지를 길들이는 훈련인데, 이 둘은 수레의 두 바퀴나 새의 두 날개처럼 협력 동시해야 한다.

6바라밀은 익히 들어보셨을 터인데 <대승기신론>의 '수행신심분(修行信心)분(分)'의 설법을 들려주기로 한다. 처음 바라밀이 아시다시피 '보시'이다. 줄 줄 모르면 이 문에 들어설 수 없다. 자기것만 챙기는 인색한 성격으로 불법을 구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러시아로 가자면서 남쪽으로 기수를 돌리는 것과 같다. <기신론>에는 세 가지 보시가 적혀 있다. "만일,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진 재물을 여건에 따라 베풀지니, 그로써 자기 속의 인색함과 탐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기뻐한다. 재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들을 무외(無畏),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준다. 만일 붓다의 위대한 진리를 구하는 자 있으면,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침의 방편을 베풀라. 이때 명예와 이익, 존경따위를 바라고 이 일을 해서는 안된다. 오직,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회향보리(廻向菩提)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 하나 념념(念念)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 하나 쉽지 않고,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하는 수행인데, 그 청정행을 닦는 마음가짐이 바로 무상무위(無相無爲)이다. 무상이란 거듭 말하지만, 나의 욕망과 에고의 이해관계를 통해 사물을 가르고 편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무위란 나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입각해 사태를 편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당연, 쉽지 않다. 그러나 훈련해 나갈 수 있고, 그만큼 그는 자유와 평정을 얻는다. 작은 포기는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진짜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무상무위를 적극적으로 수련하려 할 것이다. 1차적 즉물적 계산이 계산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혜능 13-5)

"世間重者, 莫過於身命. 菩薩爲法, 於無量劫中捨施身命, 分與一切衆生, 其福雖多, 亦不如受持此經四句之福. 多劫捨身, 不了空義, 妄心不除, 元是衆生. 一念持經, 我人頓盡, 妄想旣除, 言下成佛, 故知多劫捨身不如持經四句之福."

"세간에서 중시하는 것은 목숨만한 것이 없다. 보살이 법을 위해 무량한 겁의 세월 동안 목숨을 내놓고 일체중생에게 나누어 주는데서 얻는 그 복덕은 아주 많다. 그러나 이도 이 경전의 사구게를 수지하는 복덕만 못하다. 여러 겁에 걸쳐 목숨을 내놓더라도 공(空)의 뜻을 모르고 망심을 제거치 않으면 여전 중생인 것이다. 일념으로 경전을 지니고 아(我)와 인(人)의 상이 돈진(頓盡), 몽땅 사그라지면, 언하에 성불하리니, 그래서 알겠다. 여러 겁에 몸을 내놓는 것이 경전 사구를 지님만 못하다는 것을…."

(부연 13-5)

보시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가치는 아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덕성으로도 남의 재난에 팔 걷어부치고 나서는 용기로도 아직 잔은 채워지지 않았다. 최종관문은 '자기 존재의 최종적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보시를 하는 나도 없고, 보시를 받는 너도 없다. 구하는 것도 내 손이 아니고, 구함받는 사람도 그 얼굴을 볼 수 없다. 안팎이 비어있는 마음, 즉 공(空)의 '태도' 혹은 '자세'로서 반야바라밀은 완성된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혜능이 문득 들었던 그 처음의 소리가 불교, <금강경>의 최종적 설법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건없는 사랑이야말로 우울증의 묘약





사랑은 우울했다
배기교 지음
열린박물관 | 8900원

'사랑'

사랑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아픔과 행복을 함께 준다.

왜 그럴까?

서로 달랐던 두 사람의 영혼이 언제부턴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행복하지만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이치 때문일까.

저자는 사랑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길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호 의존하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깨달음이라고. 사랑이 괴로운 것은 감각과 기억에 의해 생긴 오해와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오해와 집착하는 사이에서 괴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기교씨의 첫 번째 장편소설 <사랑은 우울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불완전한 두 남녀는 거짓 없는 솔직한 속삭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통은 우울에서 출발한다.

우울은 세상에 대한 단절이며 자신에 대한 포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 김승미는 우울하다.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단절되어 있다. 우울증 때문에 괴팍해진 여주인공은 자기 집에 하숙하러 온 세파에 물들지 않는 촌스러운 남자를 만나고 세상에 대해 문을 연다.

여자는 도시에 찌들지 않은 남자에 푸근함을 느끼고 남자는 성깔에 가린 여자의 순수함을 좋아한다. 애교가 전혀 없는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고 연인으로 만든 다음 마음껏 성질을 부린다.

남자는 여자가 심하게 대하지만 자기를 통해 영혼의 숨을 쉬는 것을 알고는 바보처럼 순종한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녀를 더 사랑할까 생각한다. 남자는 여자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싶어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마음껏 기댄다.

여자는 서서히 자기의 매력과 재능을 알아간다. 우울증이 치유될 즈음 여자는 세련되고 지적이며 부유한 남자를 알게 된다. 여자는 새로운 남자를 통해 소비의 매력에 빠져간다. 남자는 점점 소외되다 여자와 멀어진다.

이번에는 남자가 우울증에 빠진다. 연적의 등장과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남자의 우울증이 극으로 흐를 때 남자는 여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말없이 도시를 떠난다.

이별을 인정한 남자는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다 그녀를 위해 철쭉을 심은 지리산을 찾는다. 잘 자란 철쭉을 보며 남자는 자신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내면이 정화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사랑이란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발견한다.

<사랑은 우울했다>에서 작가는 우울증의 묘약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누구나 고통 받는 존재임을 안다면 서로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신분 성별 학력 장애로 차별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고도 얘기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짓이며, 그 까닭은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란다.

사랑은 우울증의 치료와 관계있다는 것이 작가의 믿음이다. 완전한 평화를 얻는 첫걸음은 사랑이며, 그것은 다른 생명과 관계를 맺는 방법 중 하나라고.

이 소설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는 모든 연인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돌아보게 한다. 또 스스로의 삶에 비춰 보기도 하고 곁에 있는 연인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준다.



소설의 무대이기도 한 지리산 천황봉에 올라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 작가 배기교씨.

작가는 말한다.

"살아 있는 존재들은 우울증을 거쳐야 하며, 일생 동안 조증과 울증을 반복한다."

한편 소설 속에 삽입된 '철쭉의 전설'은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한층 강화시킨다.

별 왕자와 꽃 공주의 애잔하면서도 비극적인 사랑은 우주의 존재에 대한 변증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어둠과 밝음, 행복과 불행, 악과 선과 같은 대립축은 서로가 서로를 유지시켜 주는 양면이다.

현실에서의 사랑이 행복과 불행, 진실과 오해, 그리고 서로 원하는 욕망이 평행선처럼 이어가는 부조리는 주인공 나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후회없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 존재의 내밀한 곳에 깊은 상처딱지처럼 내려앉아 있는 우울의 본질. 그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작가가 제시하는 사랑은 결국 매력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다. 매력이 사라져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배기교씨는 대구 경북고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건인네트 기획실을 거쳐 넷더스 대표이사, SCG 그룹 SP 본부장(이사), 동양시스템즈 차장, 강동구청 기술고문 등으로 일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사랑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거든 상호 의존하는 존재의 본질 깨달아야"

네티즌 강추

소리와 음악으로 상처난 영혼 치유하기



소리치료 이정실 역, 학지사

몇 년 전에 <모짜르트 이펙트>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었다. 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서술한 개론서였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음악이 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 더 깊은 치료의 메카니즘이 궁금했었다. 이 책은 나의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우리는 소리의 세상에 살고 있다. 소리는 들릴 수도 있고 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음악적일 수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친숙하거나 새로울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주거나 즐거울 수 있고, 건강을 망칠 수도,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소리와 음악이 가지는 원리들을 바탕으로 소리와 음악을 활용하여 자기 성장과 치유, 나아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과 소리에 대해 여러 전통들, 종교적 혹은 민족적 접근방법들을 다양하게 안내한다. 또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연습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영식, bibliotherapy.pe.kr)

인도가 낳은 위대한 영혼 투카람의 삶



성자 투카람 저스틴 애버트 지음,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한마디로 위대한 책이다. 이 책은 인도가 낳은 위대한 영혼, 투카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삶의 중반부에 재난을 겪게 된 투카람은 세상의 삶을 버리고 전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다. 투카람의 영적인 삶은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듯이 성장한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존재의 법칙으로만 자라나서 마침내 완전한 나무가 된다. 하지만 투카람을 안내한 스승은 그의 내면에 있던 자신이 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투카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투카람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누구나 세상일에 무관해지고, 박타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 정말 그 말처럼 우리의 가슴에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들게 해주는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에 묘사된 투카람의 삶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 여부에 관한 문제를 벗어 버린다. 우리의 심정에 호소하며 우리를 영적인 이상으로 이끄는 인간적인 삶의 묘사를 즐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있는 그대로, krishnadass.com/shop)

책속의 밑줄긋기

할머니는 북에 두고 온 네 살 난 딸 복순이를 만난겁니다



○…"얘야, 너 지금 몇 살이냐, 그리고 이름은?"

할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어서 말해 보라고 독촉합니다.

"4살 박장미."

"그래그래. 이름이고, 나이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지."

할머니는 북에 두고 온 네 살 난 딸 복순이를 생각하며 보육원에서 여자 아이의 가슴에 풀각시를 안겨 줍니다.

"이 풀각시 너 주려고 내가 만들었단다. 네가 이 풀각시의 주인이야."

할머니는 지금 딸 복순이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여자 아이는 풀각시를 안고 좋아서 입이 함박만큼 벌어집니다.

할머니는 여자 아이를 살며시 품에 안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너는 내 딸 복순이야."

여자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눈물에 젖은 할머니의 얼굴에도 엷은 미소가 피어납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풀각시> 본문 31쪽에서, 김선주 지음, 청개구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참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괘(384효 또는 144효)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입해 봄으로써,
하락이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효,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자미두수 CD

삭망일 균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옵션기능과,
자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효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 김재윤,
2006년 3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효, 육임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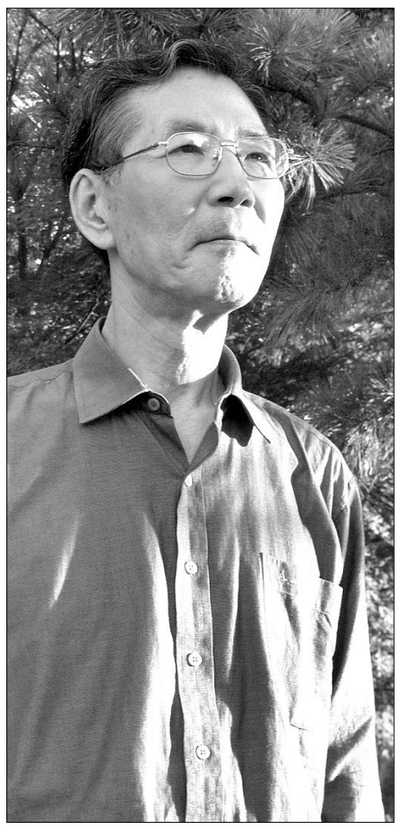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입문 123의 번들 CD를 보완하였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 CD 1매, usb락,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하락리수와 자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존재론적 마음혁명 제시한 원효 스님





원효의 대승철학
김형효 지음
소나무 | 2만원

금강삼매경론 · 대승기신론 바탕
원효 사상의 철학적 구조 규명
"無私와 至公은 대승 사고방식"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가운데 한사람인 김형효 교수가 한국 지성사에서 가장 빼어난 봉우리인 원효 스님의 철학에 도전했다.

김형효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정년퇴직하며 대미를 장식하는 논문주제로, 명성에 비해 실제 철학적 내용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원효 대사를 선택한 것.

김교수가 발간한 <원효의 대승철학>은 <금강삼매경론>과 <대승기신론 소 · 별기>를 텍스트의 두 중심축으로 삼아, 원효 사상의 철학적 구조를 규명한 것이다.

김 교수는 원효의 대승사상을 철학적으로 밝히면서 그의 사유가 마음의 혁명, 즉 존재론적인 혁명의 길을 닦은 것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 것은 그동안 인류가 마음의 존재론적 혁명을 무시하고 오직 세상을 새로 수리하려는 소유론적 혁명에 탐닉했던 것을 비판하고, 존재론적 혁명이 하이데거가 말한 철학의 종말임과 동시에 미래적 사유의 도래를 말하는 것.

김 교수는 "원효의 대승사상이 1400년 전에 있었던 낡은 철학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원효의 저작들은 인류의 본원적 고민과 질문에 대한 빼어난 철학적 성찰"이며 "원효의 대승철학은 21세기에도 유효하다. 아니 오히려 21세기 인류의 갈구에 답한 오래된 미래의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강조하는 원효가 신라사회에 보여주려고 한 사고방식은?

김 교수는 "원효사상의 특징은 형식적이고 주관적인 경직된 태도인 교조주의에 얽매인 사고방식의 파괴에 있다"며 "세상사를 어떤 가치의 집착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은 곧 무애원융(無碍圓融)한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므로 원효는 지도층에게 일체의 사심(私心)을 갖지 말고 공공(公共)한 마음으로 세상을 공평무사하게 대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다.

원효가 대승사상을 강조한 이유는?

김 교수는 "원효가 현실 역사에서 늘 순수주의라는 도덕적 명분으로 현실의 벽을 쌓는 것을 경계했다"고 설명한다. 즉 "현실을 연기법적으로 보지 않고 늘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아 변증법적 투쟁을 강화시킨다."고. 김 교수는 "현실을 두루두루 안고 포괄하려는 입장보다 오히려 현실을 적과 동지로 나누어 투쟁하는 사고방식에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 이것을 원효가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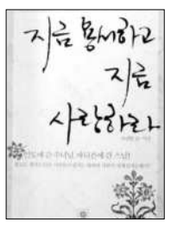
김 교수는 "인간은 물질적 경제와 정신적 도덕을 모두 갖추어야 생활할 수 있는 사실적 존재이므로, 어느 하나가 부실하면 행복할 수 없다"며 "원효 사상에서 미래를 여는 존재론적 사유와 사실주의적 세상보기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원효가 대승사상을 정리하면서 대승사상이 무사(無私, 심리적 마음가짐)와 지공(至公, 사회적 마음가짐)의 두 축으로 짜깁기를 시도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대승사상은 일반 백성들을 대승의 차원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지도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무사하고 지공한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무사와 지공은 대승의 사고방식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교는 달라도 우리 심장은 함께 뛰었다"

삼소회의 세계 성지순례기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라
조연현 지음
비채 | 1만900원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

바로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즉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는 얘기다.

고통은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데서 출발하고 행복은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찾아온다.

종교와 생각이 다르고, 머리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수도자로 살아가며 평화롭고 다툼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가톨릭, 불교, 성공회, 원불교의 여성수도자 모임인 삼소회 회원들이 종교간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세계 종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순례단이 다녀온 곳은 전남 영광의 원불교 성지, 인도 바라나시의 녹야원, 부다가야의 석가모니 대각지, 델리 찬드니초크,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 런던 이슬람 중앙 성원, 이스라엘 그리스도교 성지와 이슬람 성지, 이탈리아 아시시, 바티칸 교황청 등이다.

삼소회의 세계 종교 성지순례여행을 기록한 책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라>는 한겨레신문 조연현 기자가 동행해 19일 동안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순례의 여정을 따라가며 수도자들의 끈끈한 연대와 우정, 숨겨진 일상과 유쾌한 대화, 서로 다른 신앙에서 비롯된 아픔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여성 수도자들의 순례는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위태로울 것 같던 여행이었다. 하지만 4대종교 성직자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 아름다운 여행으로 만들었다. 인도에 간 수녀, 바티칸에 간 스님이 한결같이 "종교는 달라도 우리의 심장은 함께 뛰고 있습니다"고 외친데서도 알 수 있다.

삼소회원들의 여행은 출발할 무렵부터 쉽지 않아 보였다. 상대방 종교의 전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상대 종교를 배워 나가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눈 순례단은 '용서는 자신에게 베푸는 최고의 자선, 사랑은 상대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김원우 기자**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名句 시리즈



영축산에서 꽃을 든 것은 상근기에게 보인 것이다.
물에 뜬 나무가 눈 먼 거북을 만난 것과 어찌 같겠는가.
음광 존자가 가만히 미소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맑은 향기를 누구에게 주었으랴.

<선문염송> 중에서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비스님 지음 | 불광 | 9000원

한국불교 전등강맥을 잇고 있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은 <선문염송>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불교의 선법은 한송이 꽃에서 출발했다. 영축산에서 범천왕이 세존에게 설법을 청하며 연꽃을 바치자 세존은 연꽃을 들어 대중들에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가섭존자만 참뜻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이에 세존은 가섭존자에게 "정법을 개달은 눈과 열반을 체득한 묘한 마음이 있다. 이것을 가섭존자에게 부촉하노라"고 한데서 유래했다'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선 시리즈 제 3집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1부 한 물건도 없다, 2부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3부 남자는 남자며 여자는 여자다, 4부 한 주먹에 철옹성을 무너뜨려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팔만사천법문에 달하는 불법의 요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추렸다. 그런다음 간단한 명구를 싣고, 명쾌한 해설을 덧붙였다.

무비 스님은 "일상생활 틈틈이 이 작은 책을 거울삼아 혼탁한 마음을 비춰본다면,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 자유, 대 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곡 사야도의 12연기 강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 탄 다잉
조영미 역
행복한숲
1만5000원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또 생겨났으면 결국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 것이 불교의 핵심교리인 연기법이다.

연기법은 부처님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뒤에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완전한 법칙이다.

이 연기적 구조에 의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이 위빠사나이다. 그래서 연기법이 없는 위빠사나 수행은 할 수가 없다. 역대의 많은 선지식은 연기법과 사념처 위빠사나 수행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았다.

연기법을 알아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잘못된 견해를 제거하는데 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무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모곡 사야도(Maha Thera Mogok Sayadaw, 1899~1962)의 12연기법과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법문을 모곡센터 위빠사나 보급회 회장인 우 탄 다잉((U Than Daing)이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모곡 사야도는 미얀마의 대학자이면서 위빠사나 수행까지 겸한 위대한 장로였다. 사야도는 어느날 문득 자신이 소를 몰고 가면서 한 번도 소에서 짠 우유를 마셔보지 못한 목동에 비유하며 위빠사나 수행에 정진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11km 가량 떨어진 아마라뿌라의 민구라 따익 사원에서 비구들을 상대로 아비담마(abhidhamma) 강의를 30년간 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바이로차나1	공파 스님, 1만원, 맑은소리맑은나라
· 관세음보살의 기도	정찬주, 9800원, 솔과학
·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	이태원, 2만5000원, 운주사
· 라마크리슈나	로맹 롤랑, 1만원, 정신세계사
· 새벽향기	이정우, 9500원, 씨앗을뿌리는사람들

도서주문 (02)2004-8219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화제의 신간 다시보는 新 양택풍수실기론

최고의 주택에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큰인물이 난다!
새로운 건축 인테리어는 이렇게 한다.

훌륭한 건물과 이상적인 주택

풍수지리는 엄연히 음택론(陰宅論)과 양택론(陽宅論)의 두 분야로 성립되어져 있다. 근래에 와서 동양은 물론 서구 등에서도 양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양택이 오늘날의 '훌륭한 건축물'을 뜻할 분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관공서, 기념 건축물들과 함께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숙식을 하고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인 '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모든 만병은 음식! 주방이 길하면 사람도 길하고, 주방이 흉하면 곧 사람도 흉해진다.
- 주역 양택삼요 64괘로 볼 수 있다.
- 이사법 자세히 설명

전국 서점 판매중!

한국풍수지리 연구원장 김석주 지음 / 신국판 / 424쪽 / 정가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5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가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서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 사륙배판/이선종 지음/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임,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화려함 덜어내고 인간미 더하다

시애틀미술관 소장 영산회상도 국내 전시 계기로 본 '조선불화' 특징



美 시애틀미술관 소장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영취산에 올라 수백 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설법하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장엄할까. 국립중앙박물관(02-2077-9000) 불교회화실이 공개한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영산회상도(靈山會相圖)'에서 그 장엄함을 엿볼 수 있다.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은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불화이다.

11월 21일~2007년 1월 21일 열리는 이 전시에서 공개된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은 아홉 폭의 삼베를 꼼꼼하게 이어 만든 높이 380cm, 폭 321cm의 삼베 바탕 위에 그려진 불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사업의 첫 번째 수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지원사업은 해외 한국 문화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5년부터 해외 주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를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개된 시애틀미술관 소장 조선불화는 60여년간 수장고에 보관되던 것을 2002년 부임한 큐레이터 시라하라씨 신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존처리한 작품이다. 화면의 녹색 안료가 많이 없어지고 필선마저 흐릿해진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온 '…영산회상도'는 보존처리를 거쳐 고국민들과 만나고 있다. 서울 전시가 끝나면 2007년 상반기 재개관하는 미국 시애틀미술관으로 돌아가 한국의 대표 미술품으로 전시된다. '…영산회상도' 공개를 계기로 조선불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본존불 둥글게 에워싸는 중앙집중식 구도로 변화
고려시대 즐겨쓰던 화려한 문양 대신 다양한 색 활용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화 역시 고려시대에 비하면 침체기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 중종 명종 대의 불화들은 고려불화의 기법적 특성을 이어받으면서도 높은 품격을 선보이는 명작들로 인정받는다.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탱화는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에 더욱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괘불을 비롯해 104위 신중, 칠성, 산신탱화가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감로탱이 신선함을 선사한다.

족자 형식으로 대변되는 고려시대 탱화는 조선시대로 넘어와 가로 길이가 길어지면서 본존을 둥글게 에워싸는 중앙집중식 구도로 변화한다. 직지사 석가모니 후불탱의 경우 높이의 제약으로 인해 고려불화와는 다른 도상의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중앙집중식으로 주존불을 강조한 것이다.

서민의 정취를 느끼게 했던 질그릇이나 소박한 백자처럼 조선시대 불화 역시 고려시대보다는 덜 화려한 대신 좀더 인간적이고 친숙한 상호를 선보이는 쪽으로 변모한 것도 조선불화의 특징이다.

조선불화가 고려불화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색채의 다양화다.

고려불화는 붉은색(朱), 녹청색(綠靑), 군청색(群靑)의 삼색을 기본으로 색을 절제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불화는 다양한 색채가 불화를 좀더 화려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비해 문양이 적어지는 대신 황토색 분홍색 하늘색 등 서로 대비되는 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채운(彩雲)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조선시대에서도 적녹색을 주조로 쓰던 전기와 달리 푸른색을 주조로 쓰던 후기가 서로 색상의 변화를 보인다.

필선은 직선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서양 화법의 수용과 더불어 원근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보다 경직된 화면 구성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고려시대의 귀족불교적 성격과 달리 보다 서민화 대중화된 불교는 조선시대에 와서 특성별 전각의 성격과 명칭을 확정지었다. 덕분에 전각별 다양한 탱화를 생산해 내는 결과를 드러냈다.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탱화, 불법을 보호하는 신중을 그린 중단탱화, 중생 영혼의 극락왕생을 비는 하단탱화 등이 기본적인 구분이다.



직지사 석가모니 후불탱. 고려불화의 2단 구조가 무너지고 주존인 석가모니불 중심으로 보살 제자 나한들이 둘러싼 조선불화 특유의 중앙집중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탱화 외에 몇 점 남이 있지 않지만 후불벽화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사찰 벽화의 원형은 수종사 금동불감 후면불화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영산회후불벽화 역시 전기의 작품.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백의관음도(보물 제1315호), 고창 선운사 벽화 등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후불벽화이다.

감로탱(甘露幀)은 조선시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불화다. 동시대를 전후해 중국 일본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수륙재나 사십구재 때 쓰이는 의식용의 불화이다. 감로탱은 모든 중생의 영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극락으로 왕생케 하는 내용과 함께 그 시대 생활상을 담고 있어 문화사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단추를 달며

바늘귀에 실이 잘 들어가지 않는 밤
문득 이불 깁던 등 굽은 실루엣
내 모습 어머니 같아 손톱 물고 앉았다
세월을 펄럭이며 바람결 흘러가고
빨랫줄에 햇살 함께 너울대던 하얀 홑청
올올이 건너온 시간, 숨바꼭질 하던 아이
풀 먹인 이불 대청마루 위에 뒹굴면
바싹 마른 풀꽃 향기 은근한 품속에서
엉덩이 찰싹 불이던 소리, 그 목소리 듣고 싶다

'유심' 첫 시조백일장 장원
김선화씨 '단추를 달며'



계간문예지 <유심> 겨울호가 운치 있고 여유로운 시조 한 마당으로 채워졌다. <유심> 겨울호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만해 스님의 시 사상을 계승해 처음으로 시조백일장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2006 만해축전에서 현대시조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근배 시인은 유심시조백일장 심사위원을 맡아 "장원 '단추를 달며'는 269편의 응모작 가운데 단연 탁월하다"며 "바늘에 실을 꿰어 단추를 달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는 지극히 평범한 발상을 김선화씨는 조각보를 누벼가듯 살아있는 언어로 또렷이 그려내 가슴에 들이밀고 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장원을 따낸 김선화씨(사진)는 "주옥같은 시와 시인의 세계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다"며 "'단추를 달며'는 치매에 걸려 아기가 되어서도 용기를 주는 어머니를 그리며 지은 시"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차상은 김용희씨의 '제부도에서', 차하는 권영희씨의 '물한동 가는 길'이 차지했다.

<유심> 겨울호는 원로 시조시인 '백수 정완영 시인과의 대담', 박찬일 시인의 '정완영론', 이지엽 정수자 홍성란 시인의 '현대시조 100주년 기념 특별좌담-이제 하나 되어 겨레의 시를 계승 노래하라' 등 시조에 집중했다.

대담에서 올해 미수를 맞은 정완영 시인은 "인생은 하나의 미열을 앓는 것이다. 자고 나면 근심이 생기고, 가보고 싶은 곳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미열을 앓는 것이 인생이라면 '예술은 그 통증이다', 몸부림치는 것이다"라고 시조 창작을 표현한다. 하루 10시간씩 시조창작에 매달릴 정도로 시조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 노 시인의 젊은 창작열을 엿볼 수 있다. (02)730-2551 강지연 기자

영산재 학술세미나, 12월 11일 신촌 봉원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제4회 불교학과 영산재 학술세미나를 12월 11일 오후 1시 신촌 봉원사 범음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명복 교수(동국대 법학과)가 '불교와 법-불교와 인간'을, 김흥우 명예교수(동국대 연극과)가 '연극적 측면-불교의례와 연희적 측면'을, 김갑기 교수(동국대 국문학과)가 '영산재의 국문학적 측면'을, 장휘주 박사(서울대 국악과)가 '반 짓소리 연구'를, 최로덴 박사(티베트불교고등연구소 객원연구원)가 '티베트 불교의식의 수행적 의미'를, 이애주 교수(서울대 체육학과)가 '불교와 무용'을, 능화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이 '영산재 전승'을, 이미향 박사(일본 용곡대)가 '한 · 일 불교음악'을 각각 발표한다. (02)392-3234 강지연 기자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맑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조계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 · 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천연물엿 웰빙자연당 1.1kg × 2병 = 1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숯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숯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⑩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 동국역경원장) / 능엄경(11월 25일)

벼락같이 도둑 잡듯 정신 차리고 공부하세요

<능엄경>은 많이 읽히는 경인데 돌아가신 나의 은사(耘虛 老師)스님께서 일생동안 이 경을 전공하셨습니다. 범어의 원 이름은 '수랑가마(Suramgama)'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필경견고(畢竟堅固) 건상분별(健相分別)'입니다.

'필경견고'란 끝까지 견고한 것이 금강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번뇌도 다 파하도록 강하고 어떤 번뇌에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건상분별'은 씩씩한 재상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임도 없고, 판단의 착오도 없고, 시행의 과오도 없다는 것이지요. 공부가 이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필경견고'는 본질면에 붙인 이름이고, '건상분별'은 실천면에 붙인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 닦아 나갈 때 분명 성불할 수 있다는 두 측면을 합쳐서 '수랑가마'라고 합니다.

<능엄경>은 아난존자라는 덕 높은 분이 어쩌다가 마등가(摩登伽)라는 여자 주술사(呪術師)에 홀려 들어갔는데, 그녀는 주술로 남자의 정신을 빼놓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평소 공부한 것이 좀 있었기에 잠시 최면에 걸렸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정신을 차렸지만 부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꿇어앉은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말합니다. "평소 경만 외우고 마음 닦는 공부를 못해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닦는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요. 부처님 말씀 외우는 데는 내로라할 정도였지만 모습이 아주 우습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난존자가 공부하는 법을 일러 달라고 청함에 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방여래께서 보리를 이루신 묘사마타(妙奢摩他)와 삼마(三摩)와 선나(禪那)와 최초방편(最初方便)입니다.

사마타라는 말은 범어로서 고요할 정(靜)으로 번역합니다. 시끄러운 경계를 극복하여 고요하게 만들고, 나쁜 마음을 길들여, 착하게 하고 모든 차별된 현상을 평등하게 보아 나가는 그런 공부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삼마는 꼭두각시 환(幻)으로 번역합니다. 환이란 있는 것을 없는 듯이, 없는 것을 있는 듯이 관찰하는 공부입니다. 말하자면 요술쟁이가 아무것도 없는데서 별 것을 다 만들어내듯 하는 것이 환입니다. 마치 빈병에서 비둘기도 나오게 하고 비둘기 궁둥이에서 국수도 나오게 하는 게 환이요 마술인데, 번뇌를 다 때려잡아 아무 것도 없어진 뒤에는 다시 끝없는 중생세계로 뛰어들어 울고 웃으며 그들을 자기의 일처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마타가 철저한 자기수행이라면 삼마는 중생을 위해 있는 그대로 활동하는 공부입니다.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 교화해야 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교화하는 것이 바로 삼마이며, 중생을 교화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마타만 주장하면 결벽증(潔癖症)에 걸리고 삼마에만 걸리면 남의 사정만 보다가 자신의 공부를 잘못되게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놓치지 말고 현실에 잘 적응하여야 중생교화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선나는 이 두 가지, 즉 집안살림과 바깥살림을 균형있게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공부하는 데는 '절대 묘책(妙策)'입니다. 그래서 천태(天台)의 지관(止觀)도 이것에 기준했고, 모든 경에서도 양극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에도 머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맨 나중의 최초방편이란, 그 여러 공부 가운데 가장 최초에 해야 할 공부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최초란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공부의 과정마다에서 최우선적으로 마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능엄경> 10권중, 제1권부터 제4권 중반까지는 사마타의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중에도 제1권은 진(眞)과 망(妄)을 바로 알라는 법문이니, 마치 여관집에 무수한 사람이 드나들어도 주인은 늘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듯이,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오가는 마음은 망상이요 사시사철 제자리에 변치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주인이며 참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제2권과 제3권 전체에서는 어디서나 불성(佛性)을 만나 깨달으라 하셨으니 색리교청(色裏膠淸) 해중함미(海中鹹味), 단청 속의 아교풀, 바닷물의 짠맛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가 여래장이라고 하고, 나아가서는 오온(五蘊) 육입(六入)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 칠대(七大)가 원래 여래장(如來藏) 묘진여성(妙眞如性)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제4권 전반(前半)에서는 이상의 사마타 삼마, 두 법문 말씀에 의해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설법제일'로 알려진 부루나존자(富樓那尊者)가 여쭙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본래 여래장이라면 범부도 여래장, 성현도 여래장, 산도 여래장, 강도 여래장이어서 모두가 동일할 터인데 왜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한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똑같다면 즉 본래 평등한 여래장이라면 산하대지나 범부는 왜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의 질문을 섭적의난(攝跡疑難:윗말에 터 잡아 질문함)이라 하는데 하나의 경전이 성립되는데 꼭 있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는 앞뒤 말씀이 모순처럼 보이는 일을 방지하면 경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원래부터 여래장이라면 이는 천연적으로 부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천연이라면 자연이요, 자연이라면 인연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써 평소 부처님이 주장하시던 인연에 배치되고 도리어 자연외도(自然外道)와 같게 되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연외도(自然外道)란 모든 현상이 어떠한 원인이 있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다는 사견(邪見)을 가진 외도로서,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신 외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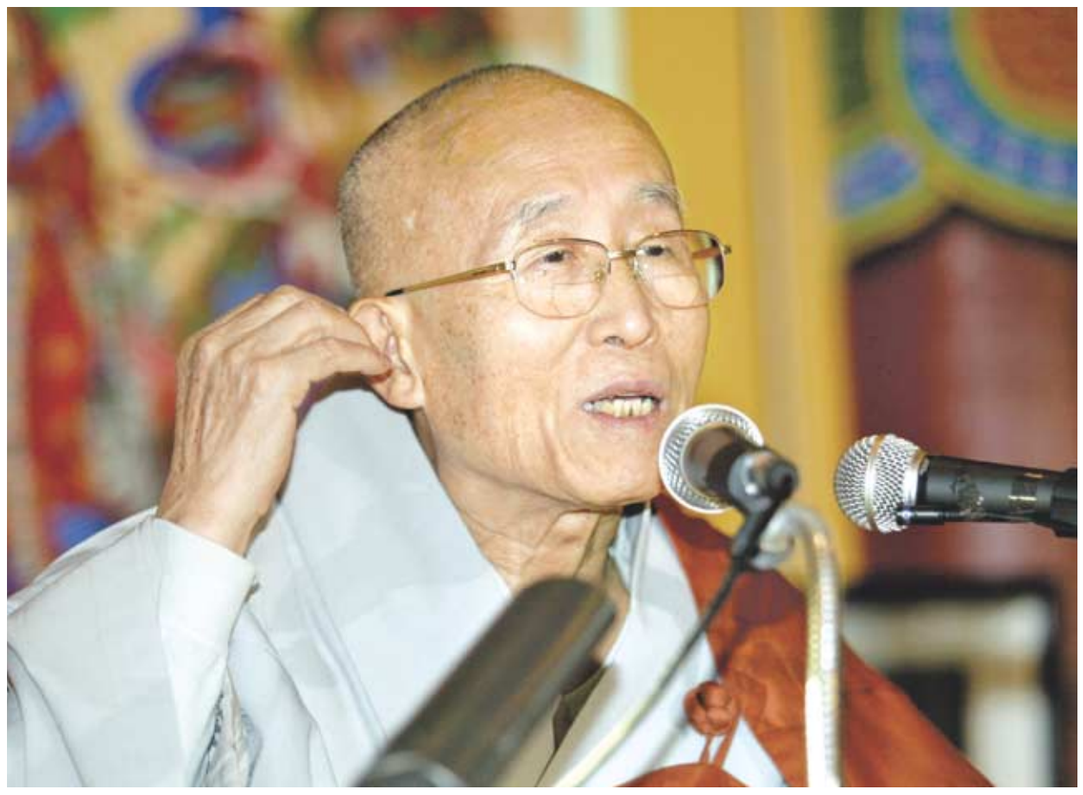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셔서 어디로 가야 생로병사의 고통을 면할까 하시고, 유명한 수행자들을 두루 찾아다니시다가 처음 한 수행자를 만나 이 문제를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브라흐마나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신론입니다. 즉 신에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 자연외도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냥 두면 언젠가는 저절로 고통이 끝날 것이니, 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도리어 잘못이니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놔두면 다 된다"는 얘기와 "우주만법이 본래가 여래장"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질문을 던져서 사마타의 수행법을 오해 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셨으니, 세상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는 말을 썼지만 여래장자리에는 꼭 인연이라야 된다는 생각, 자연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자체가 망상이니 따지려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분별심을 쉬면 참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4권 후반부터 제8권 중반까지는 두 번째 물음 삼마에 답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흔히 수도분이라 부릅니다. 즉 견도분에서 터득한 진리의 세계를 실제로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토막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기초를 바로 잡으라'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수행의 기조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심인심(審因心) 심업본(審業本)'입니다. 심인심이란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라고 하신 내용이요, 심업본이란 그 목표를 성취해나가는 방법이 합당한가를 정확히 살펴 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월운 스님은 '확실한 진리에 의해 닦아나가면 성불할 수 있다'는 <능엄경>에 담긴 뜻을 강조했다.

불성에 대한 본질적 믿음과 실천 설명한 경전
분별심 쉬고 '참모습' 보기 위해 계율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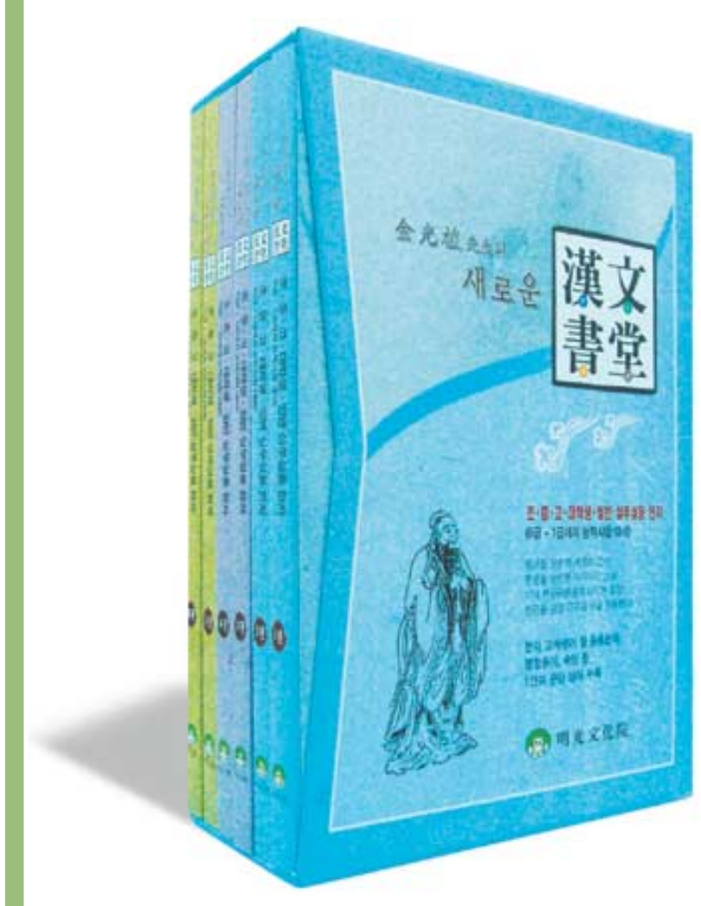
가을에 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팥이나 똥딴지(돼지감자)를 가지고 가서 심으면 과연 콩이 나오겠습니까.? 거두려고 하는 씨가 맞는지를 항상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심인심입니다.

둘째는 '요점을 바로 잡으라'입니다. 즉 공부하는 길, 또는 방법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5권 초부터 제6권 초에 이르기까지 육진 등 25법이 모두 원통에 통하는 문이나 그중에도 깊고 원만하고 통하는 길은 이근(耳根)밖에 없다고 소개합니다.

셋째는 제6권 중반부터 내섭(內攝)이니, 삼학과 계율을 소개해 자기의 힘으로 닦아나가는 길을 보여 주셨으니 이는 율종의 이론입니다.

넷째는 외섭(外攝)이니, 부처님의 권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피력으로 해탈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밀교의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번지 전화 02)737-0695/02)2004-8219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⑩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 • 동국역경원장) / 능엄경(11월 25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논리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불교의 종합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강조한 것 중 내 힘으로 닦아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계율인데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계율을 두 어깨에 잘 짊어지고 나가면 영원한 진리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열반경>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닦아나가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권능을 믿고 수행으로써 그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이것을 능엄주라 합니다. 능엄주를 믿고 외우면서 부처님이 나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고, 부처님 가피력으로 능엄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수행은 계율을 잘 닦고, 사마타 삼마 선나 즉, 정과 혜를 균등하게 닦고, 그리고 능엄주를 외워서 잘 닦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 형태든지, 어떤 경계에 가든지 무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어떤 급변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도 경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을 맞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둑을 잡으려고 맞붙었다가 신체에 해를 입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둘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도둑이 왔으면 자는 체 하며 살피다가 기회가 왔을 때 벼락같이 뒤통수를 쳐서 도둑을 잡아야 합니다. 공부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많은 불자들이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게 병이에요. 삼천배를 하면서도 용심(用心)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전 많이 읽고, 불사에 동참 많이 하면서도 마음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에 치중해서 무한한 경지를 포용하고, 이렇게 공부하다보면 얼마쯤 가서 징조가 나타난다고 <능엄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밖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불교 말고, 하루 한 번씩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불자라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점에 서서 나는 왜 불자인가, 나는 왜 불자이어야 하는가, 나는 불자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힘이 생기고, 때려죽일 놈을 만났어도 때릴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체험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능엄경 제7권 후반에 '증과분'이라 하여 경초의 네 가지 물음 중 셋째 선나에 답하신 법문이 있는데 이를 교가에서는 증과분이라 하여 51단계의 깨달음 세계를 소개해 주셨거니와 나는 감히 주장하노니 이 어리석은 범부가 부처님께 매달리다가 한 생각 쓸 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깨달음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범부성불 눈높이성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에 오래 다니고 웬만큼 기도를 했다는 불자들이라도 제대로 감정 관리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알다보니 공부가 좀 됐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불자들 아는 게 너무 많아 '병'…마음관리 필요
자랑하는 불교 말고 가르침 생활속에 구현하길

최초방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경초의 네 번째 물음, 최초방편에 답하신 '변마장(辨魔障)'이라고 해서 마구니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가 되는 만큼 마구니가 드세진다는 것입니다.

돈 실컷 벌겠다고 마음먹으면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마구니가 와서 자꾸 유혹합니다. 비위에 거슬리게 달려드는 마구니는 역마라 해서 식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마는 홀딱 반하게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의 지옥이나 육체의 괴로운 모습을 보이고 마의 처참한 모습을 일러주어서 모든 수행자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 주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해나가다 좋은 일이 생기면 공부가 잘 되나보다 하고 자만하지 말고, 이게 마구니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도영험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여기에 홀딱 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최초방편이 왜 최초방편이냐 하면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최초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이 최초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마에 걸리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기가 한 공부에 속아서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구니의 모습이 더 진하고 강하게 옵니다. 이것을 일러 도고마성(道高魔盛) 즉, 도가 높을수록 마구니도 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가 높아진다는 것은 공부가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십변마장, 다시 말해 마구니가 50종이라는 얘기인데, 왜 50마냐 하면 색 수 상 행 식이 오온(五蘊)인데 오온 하나하나가 공부과정입니다. 본래 맑았던 여래장에서 한 생각 미혹할 때에 식음(識陰)이 생기고, 상음(想陰)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색음(色陰)이 생긴 것입니다. 식음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색음까지 생겼지만, 끊어나갈 때에는 색음부터 끊어나가야 합니다. 몸뚱이부터 길들여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색음이 몸뚱이인데, 색음을 통제해나가는 데는 계(戒)밖에 없어요. 계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체질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힘을 계체(戒體)라고도 하고, 계향(戒香)이라고도 합니다.

맨 먼저 색음을 눕히고, 수음, 내지 식음까지 때려눕히면 마치 새벽의 동녘하늘처럼 환한 빛이 난답니다.

우리가 예불할 때 계향 정향 혜향 하는데, 계향(戒香)은 색음(色陰)을 때려눕힌 사람에게서 나는 향이고, 정향(定香)은 수음(受陰)을, 혜향(慧香)은 상음(想陰)을, 해탈향(解脫香)은 행음(行陰)을,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식음(識陰)을 때려눕힌 뒤에 생기는 향기예요.

오음(五陰)마다에 10가지씩의 마구니가 있어서 합하면 50가지인데 상음마에는 또 100가지가 있어요. 다 따져보면 140마나 되는 엄청난 마가 있어서 별의별 마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140마에 나오는 말 중 공통된 것이 있는데, "마구니가 붙은 걸 모르면 큰 탈이 나지만 알면 수행에 도움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마구니가 붙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도둑'을 맞고, '도둑'이 왔다는 것을 알면 적당한 시기에 쫓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말은 도둑이 온 것을 알 수 있도록 늘 챙기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바로 사마타 삼마 선나를 잘 간직하기 위한 최초의 기능이예요.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생을 마감할 무렵 즈음해서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지키면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어 생활 속에 구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계를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이해관계는 나에게 있는 법입니다. 이해관계가 눈앞에 나타나면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데, 그것을 고치고 나아가는 힘이 계율을 지키겠다는 신념입니다. 계를 설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계를 받은 뒤에 계를 잘 지키고, 계 설해 준 사람, 즉 계사를 닮으라는 뜻입니다. <능엄경>의 못다 한 이야기는 계를 받으면서 이어집니다.

그동안 '봉선사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강설대법회에서 9명의 법사님들이 법문을 하셨는데 공통점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흘리는 것이 많지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들이 설쳐도 겁날 것이 없다' 이렇게 지키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계라는 말씀입니다.

능엄경 제10권에 '실제이지(實際理地)에는 불수일진(不受一塵)이나 불사문중(佛事門中)에는 불사일법(不捨一法)'이라 하셔서, 경 전체를 간추린 말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리자리에는 먼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중생을 교화하는 부분에서는 한 법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청정한 여래장자리에는 원래 무명이 없었지만 하루아침에 까닭 없이 생긴 뒤에는 너와 내가 생겼는데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지 하나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능엄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잊고 온 '고향', 가야할 '고향'이 분명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생활화되고 의식화되고 체질화되도록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계 받는 일이고, 계를 받은 뒤에는 잠시도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꽃을 피우면 분명히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질의

자력·타력은 상부상조 관계



정진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질문] <능엄경>은 우리 중생 누구나가 본래 갖추고 있는 여래장(如來藏)의 묘진여성(妙眞如性)을 드러내주는 경이라고 설하시면서 신심을 닦고 계율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능엄주를 권하면서 신주력(神呪力)의 가피를 구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얼핏 이 두 부분이 상치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월운 스님] 일부 상근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거나 스스로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되돌아가려는 희망과 방법에는 여러 기지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근기의 문제입니다.

불교의 믿음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접근해서 체험을 얼마만큼 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능엄주의 경우 내 본래부처를 찾는 일에 부처님의 신력을 빌어 찾겠다는 얘기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능엄주를 욀 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데, 그 이유는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움직여 부처님 법에 이탈되지 않는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고, 크게 보면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정신집중을 하는 데에만 위신력의 도움을 받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병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병을 알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체가 부처님 진리를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력에도 타력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타력에도 자력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상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력에 의해 타력을 빛내고, 타력에 의해 자력을 빛낼 수 있습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800여 불자들 '戒' 지키는 삶 다짐
강설대법회, 수계법회로 회향



월운 스님의 <능엄경>을 주제로 한 법문에 이어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를 회향하는 보살계 수계산림이 해인총림 율원장 무관 스님을 계사로 모신 가운데 진행됐다.

무관 스님은 "청정하고 묘한 계를 받는 것은 믿음을 갖겠다는 다짐이며, 이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모체이자 선의 뿌리를 기르는 것"이라며 보살계 의미를 설했다.

이어 수계산림에 참석한 800여 불자들이 호궤합장을 하고 참회진언을 외는 가운데 연비의식(사진)이 진행되면서 봉선사 설법전은 연비향으로 장엄됐다.

연비의식이 끝나고 난 뒤 무관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보살계를 수지했음을 알리며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팔지 말라는 등의 '십중대계(十重大戒)'를 하나하나 불렀고, 불자들은 이 열 가지 계를 받아 지키겠다고 서원했다.



'눈 맛' 즐겁고 '차 香' 좋~다

12월 다화·차도구展 등 茶 관련 행사 잇달아 열려


선화가 수안 스님의 '차맛 좋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차와 건강' 展에 전시되는 단계석 다반.


수묵화의 대가 송영방의 '초의대사 끽다도'.


서양화가 이성주의 '계산무진(溪山無盡)'.

날씨가 추워질수록 찻잔에는 손이 더 많이 가지만 바깥나들이는 줄어들게 된다. 올 겨울에는 차 향기 물씬 풍기는 전시와 행사를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 찻자리 그림인 다화(茶畵)와 차도구 전시, 다례(茶禮)·다무(茶舞) 공연 등 12월에 차 행사가 잇달아 열린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서울 윤 갤러리(대표 윤용철)가 마련한 '3인 3색의 색깔있는 다화전(茶畵展)'이다. 12월 한 달 동안 한국화가 송영방(4~11일), 서양화가 이성주(13~20일), 선화가 수안 스님(23일~30일)의 다화를 연이어 전시한다. (02)738-1144

윤용철 대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소개돼 왔던 다화를 장르별로 선별해 전시하고, 다화와 어우러지는 골동품과 현대 다기, 꽃꽂이를 함께 연출함으로써 격조 있는 찻자리를 펼쳐보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동국대 예술대 학장을 역임하고 산수화, 인물화, 불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펼쳐온 수묵화의 대가 송영방 화백은 차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 풍속화 같은 다화(茶畵)를 선보인다. 개울물이 흐르는 숲속에서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는 초의 스님을 그린 '초의대사 끽다도',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이 초당에서 만나 다담을 나누는 장면이 담긴 '다담(茶談)' 등 이야기가 담긴 다화와 매화를 소재를 한 절지화 등 2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서양화가 이성주는 '차완(茶碗)'을 소재로 한 다화를 내놓는다. 그림의 배경에 서화와 글씨를 도입하고 차완을 중심적인 이미지로 삼고 있다. 자칫 낯설게 느껴지는 이러한 이미지의 조합을 통해 '비현실적'이지만 신선한 조화미를 느끼게 한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배경으로 한 '명선(茗禪)' 등의 작품에서는 추사의 글씨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격조를 느낄 수 있다.

선화가 수안 스님은 일정한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천진무구한 선화를 전시한다. 찻잔이나 화병, 좌선하는 스님과 어우러진 글씨가 담백한 시각적 이미지를 준다.

미술평론가 신항섭씨는 "서화는 차와 더불어 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체로,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정신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차와 상통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차와 서화가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의 가치를 빛내주는 상승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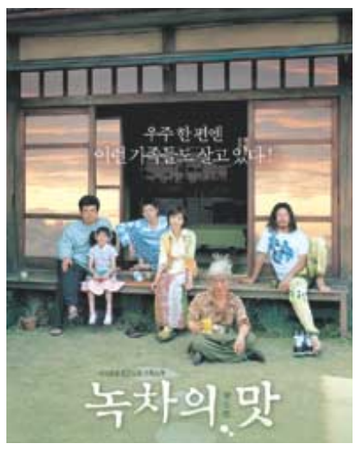
한국차문화협회 부천지회(지회장 박경엽)가 12월 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차예술 공연'은 각종 차 예술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자리다. '다례, 다악, 다무의 향연'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1부에서는 행다시연회와 자연과 어우러진 사진 전시회가, 2부에서는 규방다례·어린이 효도다례·명상차와 명선다무·초의선사의 다선삼매 등 다채로운 차 공연이 마련된다.

이 밖에 진주교방굿거리춤, 남도민요, 좌북놀이와 진도북춤 등도 선보이는 '종합 공연 연회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경엽 지회장은 "우리 가락, 우리 소리가 행다 공연과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032)662-4462

한편 보이차전문매장 푸어재(대표 황보근)는 12월 13~23일 서울 학고재에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차와 건강'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정품 보이차와 중국 광동성에서 생산되는 휘록응회암(輝綠凝灰岩)인 단계석(端溪石)으로 만든 다반(茶盤) 등이 선보인다.

황 대표는 "소장 가치가 높은 중국 맹해차창의 '영청보리수묘기념차'와 '불연차(佛緣茶)'는 물론 오방색(五方色)을 두루 갖춘 단계석 다반은 차 생활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시 의의를 밝혔다. (02)725-5002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日 독립영화 '녹차의 맛' 개봉
녹차 통한 따뜻한 가족 이야기

2003년 제작된 일본의 독립영화 '녹차의 맛'이 11월 23일 서울 종로 스폰지하우스(시네코아)에서 개봉했다.

산간 마을에 사는 엉뚱하지만 가슴 따뜻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극적이진 않지만 오미(五味)를 간직하고 있는 녹차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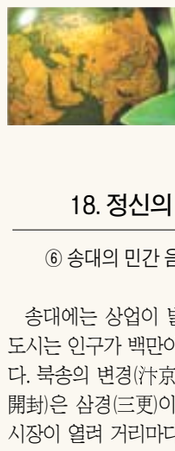
이시이 가츠히트 감독이 각본을 쓰고 우리에게 초난강으로 알려진 쿠사나기 츠요시, 영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감독 안노 히데야키 등이 출연한다. (02)2285-2090

동아시아 차문화연, 연구생 모집
2007년 1월 15일까지 우편 접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가 우리 전통 차문화를 연구할 제5기 연구생을 모집한다. 연구생에게는 기초과정 2년, 연구과정 3년 동안 고전강독 및 제다실습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만 35세 미만으로 우리 차 문화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통씩을 2007년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http://cafe.daum.net/dctea)도 가능하다. (02)504-6162

瑞榮普洱
진년보이·진년오룡·철관음·오룡차
대홍포·화차·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18. 정신의 음료

⑥ 송대의 민간 음다(飮茶)

송대에는 상업이 발달해 번창한 도시는 인구가 백만이 넘을 정도였다. 북송의 변경(汴京, 지금의 개봉開封)은 삼경(三更)이 지나도록 야시장이 열려 거리마다 많은 상인과 짐꾼들, 수공업자와 관원, 문인들이 북적거렸다.

상인들이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고, 음주와 오락, 휴식을 위한 장소가 필요했다. 이때 다양한 형태의 다방(茶房), 다사(茶肆), 다옥(茶屋)이 생겨났다. 다방, 다사, 다옥 등은 지금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관(茶館)의 옛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다방은 단지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상거래를 하는 장소였다. 규모가 큰 다방에서 작은 곳에 이르기까지 상인들과 노인, 젊은이, 부녀자들의 오락 장소가 되어 성시를 이루었다.


송(宋) 유송년(劉松年)의 명원도시(茗園賭市)

경치 좋은 곳에 다리를 만들어 이곳을 거닐며 달빛과 함께 차를 마시며 선인(仙人)의 경지를 모방한 곳도 있었다. 유교의 천인합일(天人合一)과 자연관을 추구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상류문화로 인식되었던 차가 민간의 문화로 확산되는 과정의 한 면이다. 시끄럽고 번잡한 대중문화 속에서 교역과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매체로써 음다의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은 민간 요(窯)에까지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형태의 다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남송의 임안(臨安, 지금의 항주)에는 크고 작은 업종의 점포들이 한곳에 모여 있어 술집과 다방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사대부들의 모임인 계사(契社)에서는 서화(書畵)를 걸어놓고 감상했으며, 생화(生花)를 꽂아 놓는 등 장식에 매우 세심하게 신경을 쓴 곳도 있었다.

특히 기생들은 전문 찻집을 겸(兼)하여 영업을 하면서 차와 민간문화 활동을 연결하기도 했다. 다병(茶甁)을 들고 다니며 차를 파는 행상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문인들을 위해 차를 끓여 주었던 사람들과 다방의 차심부름꾼으로, 차를 끓여 팔기도 했지만 흉사나 길사가 있으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들은 동네를 왕래하면서 중매쟁이 역할과 때로는 물건을 배달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일을 돕기도 했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선물하고, 이사를 온 사람은 옆집 사람을 초대하여 차를 마시는 등 차는 이웃과 친목을 위한 주요 물품이었다. 소수민족들에게 차는 귀중한 필수품으로써 남녀가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 신부의 가족들에게 차를 올려 예를 표했으며, 이러한 절차를 '하차례(下茶禮)'라 한다.

한편 목축을 주업으로 하던 북방 민족들은 항상 야채가 부족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아미노산등을 공급하여 여러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원 사람보다 더욱 차가 필요하였으며 그들에게 차는 생필품이었다.

송나라는 소수 민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차를 이용했으며, 더욱더 차가 귀하게 된 북방 민족은 이것을 빌미로 국경을 넘어 와,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북방의 소수민족과 늘 싸워야 하는 중원은 '다마무역(茶馬貿易)'을 통해 군비(軍備)를 확충하고, 전매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의 재정을 확충했다.

이처럼 송대에는 대중적인 차 문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정치·군사적인 목적으로 차를 적극 이용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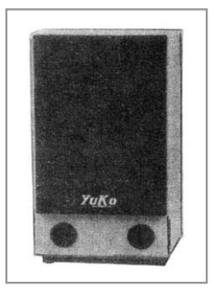
다방 성행은 차가 민간 문화로 확산되는 과정
차 대중화 동시에 정치·군사적으로 적극 이용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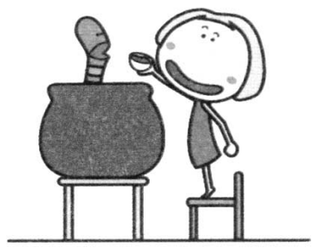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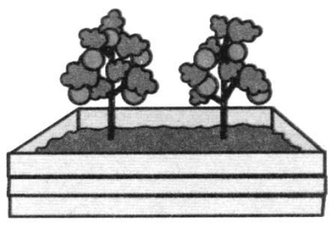
‘쓰레기 줄이기’는 냉장고 정리부터…

에코붓다가 제안하는 가정 내 ‘쓰레기 제로’

“쓰레기 줄이기요? 공감은 하지만 실천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자는 환경캠페인 ‘빈그릇운동’을 펼치고 있는 에코붓다가 11월 28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 Zero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빈그릇운동’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다. ‘빈그릇운동’을 시작으로,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더 나아가 일반쓰레기까지 줄이는 ‘쓰레기 제로 운동’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에코붓다의 도움말로 가정 내 쓰레기 줄이는 법을 알아본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도와주는 지렁이. 지렁이의 분변토는 좋은 거름으로 쓰인다. (사진제공=에코붓다)



보통 시장이나 슈퍼 등에서 장을 볼 때 평균 7~8개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된다. 투명망이나 방수망을 미리 챙겨 장을 보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자기컵을 들고 다니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왼쪽). 여성이라면 일회용 생리대 대신 면 생리대로 눈길을 돌려보자(오른쪽).

> 냉장고에 뭐가 들었나 써서 문에 붙이자
> 장 볼땐 구입표 작성해야 충동구매 예방
> 과일 · 야채 껍질째 먹고 설거지에 쌀뜨물 활용

▷ 쓰레기 제로 운동이란?

‘쓰레기 제로 운동’이란 단순히 가정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쓰레기 제로 운동은 우리가 엄청난 양의 자원을 소비하고,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폐기물을 배출해 냄으로써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무분별한 소비행태에서 벗어나고, 자연에 대한 ‘대량 채취→대량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다.

에코붓다는 “쓰레기 제로 운동은 소비주의 극복을 위한 과정 중심의 운동이자, 내가 먼저 실천한다는 생활자 운동, 생태계와 사회의 관계성 회복 운동이라는 의의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쓰레기 제로 운동의 목표는 ‘적게 쓰고 적게 가짐으로써 자연과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대안적인 생활양식과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 냉장고 정리하기

에코붓다 주부활동가 김월금씨는 2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가정, 음식물쓰레기 제로를 위한 6단계 실천’ 주제발표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법을 소개했다.

김씨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로 ‘냉장고 정리’를 제안한다.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들어 있는지를 파악해 식품 목록을 적어 냉장고에 붙여 두면 식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철 식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입해 냉동실에 보관하면 맛과 영양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제때 먹지 못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 장보기

장을 볼 때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지 목록을 작성해야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장바구니를 챙겨가는 것은 필수. 여기에 더해 과일이나 야채를 담기 위한 투명망과 방수망, 두부나 생선 등 젖은 식품을 담을 플라스틱 통을 챙겨 가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돼 경제적이다. 한 번 시장을 볼 때 평균적으로 7~8개의 비닐을 사용하게 되는데, 비닐은 매립시 썩지 않을 뿐 아니라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 퓨린 등 각종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사용을 줄여나간다.

▷ 조리하기 및 음식 차리기

가정 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음식을 조리할 때다. 감자 · 무 · 고구마 등은 깨끗이 씻은 후 상한 부분만 제거하고 껍질째 조리한다. 호박이나 가지 등의 꼭지도 잘게 썰어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다. 과일은 식초물에 담가 농약을 제거한 후 껍질 째 먹는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수박은 껍질을 나물이나 장아찌 등으로 활용해서 먹을 수 있다. 요리를 할 때는 냉장고에 남아 있는 오래된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음식은 먹을 양만 조리한다. 쌀뜨물이나 야채 데친 물, 국수 삶은 물은 설거지를 할 때 활용한다.

음식을 낼 때는 식탁 위에 반찬과 밥을 뷔페식으로 내고 개인 그릇에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렁이 먹이로 준다. 에코붓다는 집안에 지렁이를 키우는 화분을 둠으로써 남은 음식물을 지렁이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지렁이의 분변토는 다시 화분의 거름으로 쓰고 있다.

▷ 생활쓰레기 줄이기

이 밖에도 화장실에서 뒷물하기를 생활화해 화장지 사용을 줄이고, 여성의 경우 면 생리대를 이용함으로써 일회용 생리대 배출을 줄인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문구용품 등을 정리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종이컵 · 나무젓가락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과다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가정 내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41〉

더덕김치와 더덕잡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도반님들과 함께 3000배를 하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감기 몸살에 걸려서 가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있었답니다.

혼자 자취방에 누워 있으려니 쓸쓸하기도 하고, 아직 제 불심이 모자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큰 가르침에 감사합니다”라고 되뇌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밝고 환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게 가끔 상담을 청해오는 보살님께도 저는 “뜻도 모르는 어려운 경전을 읽기보다 내가 하기 쉬운 공부, 내 마음에 와 닿는 공부를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소하거나 밥을 짓거나 길을 걸으면서도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하다보면 그것이 바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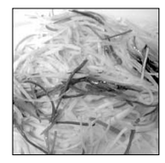
사찰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사찰음식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분들께 전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며 재미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찰음식을 강의하는 공양간에는 불자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직 반야심경이나 발원문을 낭송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공양간이 커지면 불자들만의 모임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기 전 반야심경도 독송하고 발우 공양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쯤이면 저도 3000배쯤은 문제없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겠지요?

■ **만드는 법**



〈더덕김치〉 재료: 더덕 5뿌리, 소금 약간, 양념장(고춧가루 1작은술, 고추장 1/2큰술, 물엿 1작은술, 식초 1작은술, 홍시 1큰술) 통깨 약간

① 더덕은 포를 떠서 소금물에 15분 정도 담가둔다.
② 포를 뜬 더덕은 가늘게 채 썬다.
③ 분량의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④ 더덕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⑤ 더덕을 양념장에 버무리고 고명을 뿌려 완성한다.



〈더덕잡채〉 재료: 더덕 5뿌리, 포도씨기름 약간, 홍고추1개, 청고추 2개, 오이 1/2개, 소금 약간, 양념장(소금 약간, 흰후추 약간, 통깨 약간, 설탕 약간, 참기름 약간)

① 더덕은 포를 떠 소금물에 15분 정도 담가둔다.
② 포를 뜬 더덕은 가늘게 채 썬 뒤 프라이팬에 약간의 기름을 둘러 볶는다.
③ 청고추와 홍고추는 곱게 채 썬 뒤 냉수에 여러 번 헹궈 물기를 빼고 기름에 볶는다.
④ 오이는 돌려 깎기 해 소금에 절인 후 세척해 물기를 빼고 기름에 볶는다.
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양념에 버무린다.

▶다음 주에는 도토리 호박소 부꾸미와 미역튀김 자반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命理學의 새 지평을 여는 四柱解說의 革新書

體用 四柱原理 要解
체용사주원리요해

金靈震 著



비롯된 命理學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體用法을 創案하였다. 많은 착오가 발견되었으며 이런 점들을 시정하여 日干自我說 및 神殺論에서 다섯째 神·殺로써 사주를 논하는 등이다. 이상의 이론들은 현실적으로 셋째 六親 배정의 불합리 넷째 十身을 근거로 한 길흉론 첫째 日干을 자기로 고정시킨 것 둘째 日干을 기준으로 한 身强·身弱의 분별 命理學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모순과 불합리함을 몇 가지 발견하였다. 평소 四柱와 六爻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사례를 체험하고 연구하며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부호로 설정되어 있는 우주 내의 자신의 좌표이다. 이 부호에 함축된 내용을 연구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 발전 시킬 수 있으리라.
- 머리말 중에서

신국판 / 고급양장(커버) / 314면 / 값 20,000원

화은각 (100-846)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290-2 죽전빌딩 6층 T_(02)2269-1399
불교서적 및 일반 서적류 기획, 편집, 출판 / 팜플릿 등 고급 인쇄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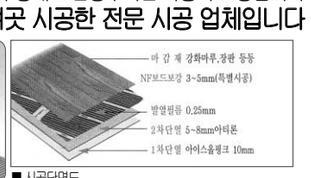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 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요통, 좌골신경통, 관절통, 오십견, 견비통, 팔저림, 목디스크, 요실금, 코골이, 무호흡증, 수족냉증, 위장병, 비만, 불면증, 당뇨, 고혈압, 갑상선, 우울증, 초조불안, 두통, 안짱다리, 생리불순, 생리통, 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현공풍수
양택사(陽宅師)과정
모 집

“뜻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모집인원 : 50명
◆강의일정 : 12주 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개 강 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강의내용
※ 현공풍수의 이론에 입각한 양택
(주택, 아파트, 공장, 사무실, 관공서 등)의 부지선정, 건물의 배치, 좌향, 통로, 방문, 가구 및 집기 등의 배치방법, 현장실습5회 이상 실시
◆수 강 료 : 30만원
◆문 의 처 : 담당교수
곽민석 011-758-7630
박상건 011-246-1079
◆특 전
-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평생회원
- 풍수 양택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신지식 보수교육
-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양택사와 교류

중앙대학교 위탁교육기관 코드 바
중앙 HRD 교육원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다시 태어나도 가수로 포교하고 싶어요”

노래하는 포교사 송춘희 법사 ‘가요인생 50년’ 책으로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이유?



‘수덕사의 여승’을 부르던 20대때의 모습.

50년. 한 사람의 생애에서 반세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긴 시간을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살았다면 그 또한 흔한 일이 아니다. ‘수덕사의 여승’ ‘영산강 처녀’ 등 민요풍 노래로 가요계를 휩쓸었던 불자가수 송춘희 법사가 가요인생 50년을 회고하는 책을 내고 11월 28일 일흔 번째 생일 파티를 겸한 조촐한 축하의 자리도 마련해 지인들과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화려한 가수생활을 부처님 법 전하는 일로 회향하고 있는 송 법사가 낸 회고록의 제목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가수가 되리라>(도서출판 답게).

“왜 다시 태어나도 가수가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찬불가를 부르며 세계인을 상대로 포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저녁노을이 아름답다고 했든가? 일생을 노래와 포교 그리고 봉사의 길을 걷고 이제 황혼기를 맞은 송 법사가 아름다운 이유는 지난 50년의 가수생활이 ‘보살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원로 작곡가 반야월 선생은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노래로써 마음의 양식을 소복소복 담아 준 여장부”라고 송 법사의 보살행을 증언했다.

‘영산강 처녀’를 작곡한 송운선 선생은 “세상풍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글서글한 웃음과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잃지 않고 대중과 함께 해온” 점에 박수를 보냈다. 그밖에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문화로 바뀐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현역”(작곡가 김점도)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가수”(방송인 송해) “늘 기둥같고 큰언니같은 선배”(가수 김상희) “큰 불심으로 직접 보살의 삶을 행하시는 분”(가수 남진)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실천으로 보여 주신 선배”(가수 박일서)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끝이 없다.

#50년간 1000곡 부른 ‘한류’ 원조

꿈 많은 소녀 송춘희는 대학을 못간 것이 못내 서글퍼 낙담의 세월을 보내다가 동네에 들어 온 악극단에 들어가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 등에는 어린 동생을 업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오디션을 보러갈 정도로 순진무구했던 소녀는 악극단의 고달픈 생활에서도 늘 즐겁고 발랄하게 지냈다. 매사에 철저하고 야무진 탓에 주변의 사랑을 받았고 연예인으로 뜰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찾아왔다. 찾아 온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소녀는 6년 만에 라디오 드라마 ‘남산골 샌님’(1963년) 주제곡을 히트시키며 가수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해 일본 거류민단의 초청으로 일본에서 공연을 해 교포와 일본인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일본에 ‘한류 열풍’을 일으킨 원조인 셈이다.

베트남으로의 월남파병 장병 위문공연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해외 공연 길을 누비던 송 법사는 지난 50년 동안 1000여곡을 불렀다. 물론 ‘뜬 노래’도 많다. ‘수덕사의 여승’ ‘영산강 처녀’ 등은 발표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랑을 받고 있으며 노래비도 세워졌다.

#남을 위한 길 자신을 위한 길

캐나다 공연 길에서 만난 광옥스님(봉덕사 주지)과 미국에서 만난 숭산스님(前 화계사 조실)은 송 법사의 인생을 바꿔 놓은 스승들이다. 광옥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 교리를 접했고 숭산 스님은 ‘백련화(白蓮華)’라는 법명을 지어주며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불교를 배우는 과정에서 송 법사는 나누고 베푸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됐고 교통사고와 위암 수술 등 고난을 극복하며 보살의 길을 더 열심히 걷는 원력을 세웠다.

불교를 접하기 전에도 송 법사는 보살행을 했다. 예를 들면, 월남 파병용사 위문공연 때 빨래 해 둔 속옷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다. “전투에 나가는 장병들이 여자의 속옷을 가지고 가면 살아 돌아온다는 말을 믿고 훔쳐 갔을 것”이란 말을 들은 송 법사는 다음 공연 때 속옷을 100장이나 준비해 갔다. 다른 가수들에게도 각자 100장씩 준비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1991년 백련장학회’를 만들어 불우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호국 적성사 등 여러 군법당 건립을 주도해 온 송 법사. MBC 10대 가수상을 비롯 가수로서의 최고상도 여러 번 거머쥐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행을 펼쳐 법무부 장관 표창패와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패, KBS 선행상, 교정대상 등에서 화관문화훈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들이 송 법사의 이력을 장엄해 준다.

그러나 송 법사는 지난 50년을 돌아보며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며 아쉬워한다. 그 아쉬움은 남은 나날들도 이웃을 위한 나날로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임연태 기자

군 부대 · 교도소 등 봉사로 ‘바쁜 나날’ 장학회 15년째 운영



노래하고 포교하며 살아온 50년을 한권의 책으로 묶고 남은 날 더 정성껏 봉사하며 살것을 서원하는 송춘희 법사. 사진=고영배 기자



대한불자가수회

전국불자노래자랑 개최

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12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극장은 불자 가수들의 잔치 한마당으로 변화한다.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흥국 · 사진)는 11월 28일 불자가수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및 제5회 대한불자가수회 가요제 전국불자노래자랑 결선대회를 12월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법어를 하고, 홍승기 사장(불교방송)이 축사를, 대한가수협회 남진 회장이 격려사를 한다.

2부 무대는 김흥국씨를 비롯한 불자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3부는 12명의 가요제 결선 출전자들의 경연무대로 준비된다. 가요제에서는 블보상 법보상 승보상 보현상 정진상의 5명을 뽑아 가수협회에 등록시키는 등 가수가 되는 길을 마련한다.

김흥국 회장은 “15년 전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공중파도 놀라게 하면서 창단했던 불자가수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법회와 공연무대 준비에 더욱 정성을 다했다”며 “불교방송 홍승기 사장의 도움으로 불자가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로를 모색중인만큼 불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2006 숨은 예인 한마당’



임현미씨가 선보이는 ‘마고할매’.

서울여성플라자가 아트홀 봄에서 12월 15일 오후 7시30분 ‘2006 숨은 예인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무대에서는 전주산조예술제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성 스님의 퍼포먼스, 범능 스님의 소리마당, 무용수 임현미 김옥희씨의 춤을 선보인다.

바라춤 등 불교 의식무와 의례를 연구해 온 범성 스님은 2000년 전국무용제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스님은 무용뿐만 아니라 전주술박물관 관장을 맡고 있는등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남대 국악과에서 피리를 전공한 범능 스님은 ‘광주 출정가’ ‘꽃아 꽃아’ ‘섬진강’ 등 주옥같은 노래를 발표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님의 소리를 한껏 즐길 수 있다.

2002년 평론가가 뽑은 젊은 안무가로 선정됐던 무용가 임현미씨는 한국 춤의 호흡과 정서로 현대춤을 추는 춤꾼으로 평가받는다. ‘전통 현대탈 학예굿’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끈 김옥희씨는 짙은 해학이 깔린 감각적인 춤사위로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꾸민다. (02)810-5025 강지연 기자

국립창극단 창극 ‘청’ 공연

인천에 심청의 효심이 울려퍼진다. 국립창극단의 창극 ‘청(淸)’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2월 9~10일 공연된다.

2006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처음 공개된 ‘청’은 11월 국립극장에서 창극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국가브랜드 공연이다

기존창극에서 볼 수 없었던 7.5도로 기울어진 무대를 선보이는 ‘청’은 간결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물씬 풍긴다. 음악에서도 기존 창극의 한계를 극복했다. 관현악곡으로 극 전체를 아우르고 그 위에 전통적인 수성음악이 절묘한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창 안숙선과 차세대 주자인 유수정이 도창으로 극을 이끈다. (02)762-9190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신상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譚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보 이 차

해발 3,000M이상 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2년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불교 다이어리북 (2007년)

매일매일 음력, 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가는 날이 표시 되어있어 편리한 2007년 불교 다이어리 북



가격 : 7,500원

· 사이즈 : 표지 14.5×19.5cm, 속지 13×19cm
· 사찰 및 단체명 (레이저 음각)
인쇄 : 100권 이상 무료,
100권 미만시 6만원 추가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 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태양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이다!

오늘은 우주의 섭리나 태양의 섭리나 별성의 섭리가 인간의 혹성의 섭리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거론할까 합니다.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태양이 광대무변하게 비춰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티끌 같은, 한 개의 촛불 같은, 그런 조그마한 한 티끌의 불씨 자체보다는 못하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온 누리를 태양보다도 더 깊고 무변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땅 속이나 물 속이나 어디 아니 미치는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태양의 근본도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근본이 전체 한데 합쳐서 한마음의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번 태양계의 뜻을 살펴봅시다. 지난번에는 지구에 관한 건을 잠깐 거론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문제를 볼 때에 거기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삼계(三界)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는 활력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태양의 그 근본 자체가, 그 중심이 삼각으로 원형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태양은 근본적으로 그 안을 본다면 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불덩이 같으니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불덩어린 줄 아시는데, 그렇게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속에 찬 게 없으면 더운 것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안이 뜨겁다면 바로 바깥으로 찬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몸을 통해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뚱그렇게 있다면 양면으로 다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접착풀이라고 얘기했죠? 접착풀 같은 물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뜨거운 물은 아닙니다. 찹니다. 그것을 자아내는 반면에 한 계단이 있으면 거기엔 유리막 같은 것, 즉 말하자면은 유리막 같은 것이 돌면서 바로 그 물을 바깥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끼고 도는 망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물을 망사로 내보내는데 그 망사는 쇠입니다. 쇠망입니다, 금속 쇠망. 내보냄으로써 거기에서 그 물로 증기를 일으켜서 바깥으로 화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한켜는.

여섯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없는 여섯 계단이 있어서 내보내는데 하나는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바깥 껍데기가 세 껍데기가 있는가 하면 안 껍데기가 여섯 껍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알른알른한 막 또는 망 같은 문제. 자아내는 그 자체는 세 계단이 되기까지는 찹니다. 그러나 네 계단 째 돼서는 뜨거운 것을 자극해서 바깥으로 화기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작업을 안쪽에서는 하고 하의 바깥 껍데기에서는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는 불길이, 즉 말하자면 뜨거운 김이 나가는 걸 바깥 계단 쪽에서는 잡아당기면서 가운데서는 조절을 합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는 조절을 하면은 바깥 껍데기에서는 그걸 정돈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력이 바깥으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았다면 터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정돈이 되지 않았다면, 정수에, 즉 말하자면 체내의 모든 것이 중심으로 들지 않는다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태양도 인간의 역할처럼 꼭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뇌로 인해서 모든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깐 무전통신기가 항상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발전기가 항상 돌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혹성이 만약에 사흘을 돈다면 그건 일 초를 돌고 있습니다. 움죽거리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태양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다." 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체가, 예를 들어서 태양의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타 죽고 없어지죠? 물질이라는 건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도 바로 그 뜻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생명이 아니, 체 없는 생명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뜨겁겠습니까? 그것은 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따뜻한 태양 빛을 내리쬐어서 만물을, 곡식을 익혀 여러분 입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하다면 만 백성을 다 한 팔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잘 낸다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참….

우리는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 지구에서도 지금 인간이 되려고 무척 애쓰는 게 있습니다. 모습을 차츰차츰 바꿔가면서 가다가 보니까 인간을 봐야만 자기가 그 모습을 타고나겠기에 인간을 납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납치해서 그 모형대로 그걸 봤으면 바로 자기 몸을 그대로 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은 있으나 바로 봐야, 먹어봐야 또는 들어봐야 모든 것을 알겠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 경쟁으로써 발전을 이룬 겁니다. 우린 인간 되는 것도 경쟁을 해서 인간이 됐고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경쟁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량이라는 자체, 우주 전체의 한 도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저쪽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도 그렇지마는 세계적인 문제에서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를 먹으려 하고 저 나라에서 이 나라를 뺏으려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내의 우리 사정은 더 치열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 한생각이 그렇게 넓고 묘하고 또 생동력 있게 나갈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대인이라면 우리는 앉아서 호국불교를 할 수 있고 앉아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앉아서 우주에 상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몸이 나서서 호국불교를 하고 우주에 상응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하나가 지금 미국을 가려도 그렇고 소련을 가려도 그렇고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그렇게 몸뚱이가 다니면서 펴는 시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한생각으로써 우주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게 더불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대무변한 이 법을 상실하고 배척하고 자기 자신의 그 광대한 능력을 아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시 안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이끌어온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고 또 자기 능력을 아주 포기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주 대천세계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등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미생물로부터 큰 짐승으로 이렇게, 물에서도 나고 화(化)해서도 나고 그 후에는 알로 낳게 됐고 태로 낳게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비유를 해서 지금 지구에서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인공위성을 띄운다, 우주정거장을 세운다' 이러는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서 우주에 상응도 하지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서류도 올리지 않고 우주정거장을 세운다면 우주정거장은 파괴될 수 있는 우려가 십중팔구입니다.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그 섭리에 서로 상응을 할 줄 모른다면, 바로 회의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바깥으로 권위를 쥐고 있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은, 부딪치면 부딪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타버리고 나가고 부서집니다.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물질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지혜를 넓힐 수도 있고 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첨단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이 자체도 무시해서는 아니 되죠. 모두가 이 육신을 받았기에 진화력을 가지고서 창조해 온 거 아닙니까? 거듭거듭 거쳐 가면서 물에서 나오면 추워서 털옷을 입고 또 털옷만 입어도 그건 살기가 부적당하고 괴로워. 그래서 점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꾸자꾸 괴로운 거를 떨어버리고 자꾸 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데서는 여기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이치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워낙 많은 생명들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한 일억년 전이라고 본다면 아마 우리 귀도 이만큼 길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진화를 했겠죠. 미생물에서부터 거쳐온 것이 다 조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나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조상이요, 전자 후자가 다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과거다 미래다 할 것 없이, 우리가 전자에서부터 쭈욱 계산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라오면서 진화돼 왔으나 그 살던 습에 의해서, 그 착에 의해서 습이 조랑조랑 조랑조랑 달려서 지금 여기 와서 돌돌 말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에나 생시에나 그 붙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인연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끊을 수도 없고 칼로 벨 수도 없어요. 무의 칼이 아니라면 끊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무의 줄이기 때문에, 무의 인연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던 습의 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랑조랑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 지금 여기에 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서, 과거에 있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각나는 대로 일심에서 나가는 거 일심으로 든다. 일심으로 들면 일심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가고 든다. 그러니 네 주인공을 발견해라! 네 주인공을 발견할 때는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절대로 둘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자고 깨고 먹고 하는 것이 전체 참선이지 참선이 따로 있어서 결제 해제가 있고, 참선이 따로 있어서 앉아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명상은 명상이라는 이름이 있고, 좌선은 좌선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떠나서 진실한, 인간이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바로 참선이라는 뜻입니다.

> "모든 것을 조그맣게
> 독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 독 바깥으로 훌쩍 넘어나가서
>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림 · 최주현

그것이 중심으로서 만법이 나오고 만법이 드니 주인공에 모든 거를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은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게 있으면 안되는 대로 '당신이 하는 거니까' 하고 놓고, 모든 것을 그렇게 놓다 보면 대의정이, 미지수의 그 어마어마한 의정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지 남이 화두를 줘서 의정을 내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남이 줘서 언제 이루겠습니까? 남이 주는 화두를 가지고, 남이 강제적으로 하라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 불덩어리 저쪽을 뛰겠습니까? 저쪽이 바로 여깁니다. 요기 앉은 방석에서 한 번 돌아앉기가 그렇게 어렵단 얘깁니다.

한 번 이렇게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우주를 넘나드는 일입니다. 이거 한 번 이렇게 움죽거리는데 과거생이요, 한 번 움죽거리는데 미래생이라 이거야. 현재에 내가 앉았는 데 과거생도 미래생도 있는 것이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여기에는 절대로 어떠한 것이 붙을 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삼천대천세계의 생명들, 물의 생명, 불의 생명, 돌의 생명, 모래 생명 전체가 하나의 공(空)에 들었으니 그 공에 들은 한 점의 마음이 우주에 상응하고, 모든 것을 같이 돌고 있으니, 비유해서 물감이 열여덟 개라면 '어느 물감이 진짜냐?" 하고 물을 때 어떤 것이 진짜라고 말 못하듯이, '내가 이 우주의 근본, 대인(大人) 부처요.' 하고 나설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그맣게 독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독 바깥으로 훌쩍 넘어나가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나름대로. 지구가 독이라면 나라를 세워서 독 안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있고, 또 나라를 세워놨으면 자기 집을 독 안을 만들어 놓고, 자기 몸을 독 안으로 만들어 놓고, 몇 겹으로 독 안을 만들어 놓고 거푸거푸 거쳐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습니다. 생각을 해서 한 번도 뛰어넘어보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상 우리는 해탈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문이 있습니까? 문이 없어서, 하나도 문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문이 많아서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한생각에 달린 거지.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한번 훌쩍 뛰어넘어서 저 허공으로 무중력 상태로 나가보십시오. 그 마음, 한 점의 마음으로써 우주세계를 한꺼번에 듭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바로 한 점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의 강한 생동력입니다.

우리의 섭리가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태양계나 다른 혹성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천세계라고 봅니다. 여기를 우주로 말하자면 중간 우주다 이 소립니다. 상 우주가 있고 중간 우주가 있고 소 우주가 있어. "대

☞30면으로 계속

우리 섭리가 우주 섭리와 더불어 같이 돌아간다

☞29면에서 계속

천세계"라는 것이 그런 데서 말이 나온 거라. 대천이 있으면 중천이 있고 소천세계가 있어, 우주세계. 우주세계에는 헤아릴 수가 없이 은하계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은하계 본부가 세 개라면 이 세 개의 은하계가 있기 때문에 은하계와 혹성들이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광대무변한 섭리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렵니까. 나는 말로다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말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부문에 대해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똑바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청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핼리혜성만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걸 한마디로 꼬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세 가지의 소임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거 하는 사람입니까?'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모두가 광대무변하게 벌어진 이 세계, 때에 따라서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데 조그마한 어떠한 물체가 자꾸 커지다가 보니까, 이 지구에서도 사람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왔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현상이, 예전에 몇천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도 없어지는 수가 있고 물에 나갔다가도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덤불 안에 들어가서도 없어지는 수가 있고, 그것은 말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커지면 커질수록 드문드문하지마는 그것이 있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에 인간이,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 얼마든지 모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간 되기 이전, 밑으로 연쇄적으로 내려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절에 아주 열심히 다녔답니다. 이거는 들은 얘깁니다만, 그 얘길 듣는 순간에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보통 있는 얘기야.'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못 잊어서 말입니다. 자세히는 못 들었지마는 이렇게 그냥 얘기하죠. 자식은 그 어머니가 개로 태어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강아지가 따라 들어와서 영 나가지를 않아요. 내쫓으면 또 들어오고 내쫓으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니까 어머니가 강아지더랍니다. 강아지가 말을 하기를 "내가 니 에미다." 하더랍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또 변해서 자기 어머니로 보이면서 강아지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 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강아지를 내쫓지 않고 어머니로 모시고서 발도 씻겨주고 옷도 해 입히면서 목욕도 날마다 시키면서 절로 모시고 다니며 대장경도 좀 보게 해드리고 각 절마다 구경을 시켜드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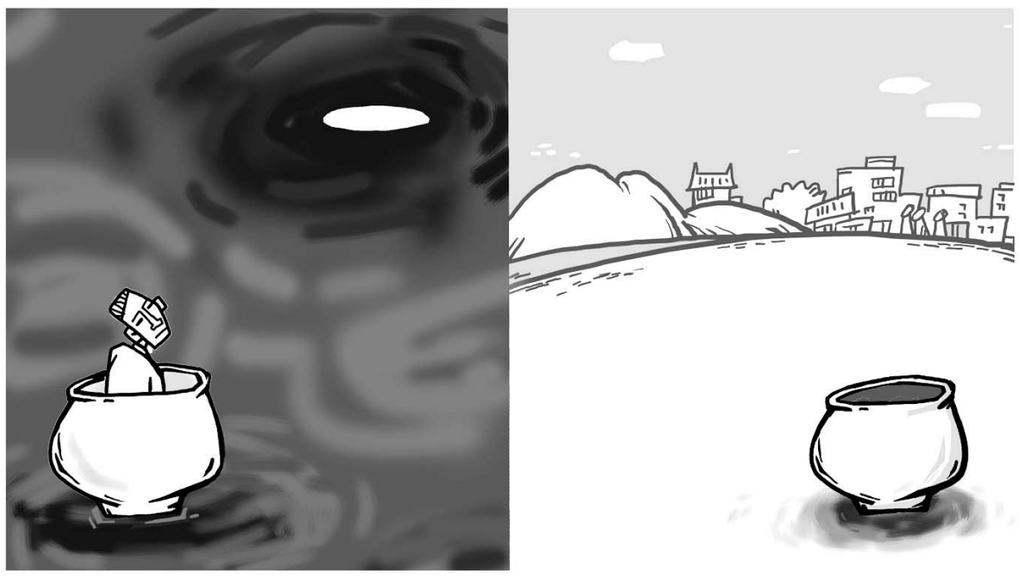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무리 태양이 광대무변하게 비춰준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티끌 같은 불씨 자체보다는 못하다!

자식은 효자로서 세상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건만, 어머니는 사람으로 살던 마음만 있고 개의 허물을 썼으니 사람과 개의 허물 쓴 거는 정반대로 갈라져 있다 이겁니다. 세계가 다른 거야, 개 세계하고 사람세계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살다가 죽어서 그렇게 옮겨가도 모습을 달리 했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형제가 그렇게 됐는지 부모가 그렇게 됐는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 원수는 도끼 가지고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아는 자신의 자성불은 모든 전체, 대의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보면은 하나도 남이 없고 하나도 죽일 게 없고 하나도 살릴 게 없고 모든 게 그대로 자연입니다. 전부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정말 간절합니다. 이 뜨거운 피가, 여러분의 피나 뜨거운 이 마음의 피나, 솟구치는 이 피가 바로 여러분의 피며 내 피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한탄도 했습니다. 예전 얘깁니다. '임이여! 무지렁이 같은 나를 이렇게 가르쳐서 모두가 둘이 아닌 것을 알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렵니까?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고 한탄을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남 못 듣는 데서 노래도 했고, 노래가 시도 됐고 시가 노래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방곡곡에 아니 다니는 데 없이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지요. 내가 왜, 문패도 번지수도 없이 이렇게 갈까? 아하! 이것은 어딘가가 물이 돌고 돌고 돌듯이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마음 아닌가?

우주 만물 만생이, 유생 무생이 다 같이 이렇게 돌고 있거늘 어찌 환상으로 보이는 귀신을 보면 마다하고 달아나갈까. 그리고 무섭다고 하나. 그렇게 달아나갔기 때문에 해치지 않나. 동심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 우리 부모형제가 죽은 영들인데, 내 몸 내 마음 내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자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덥석 껴안고 위로해 주는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하는 거라. 모두가 둘이 아닐지언대 광대무변한 법, 그 법칙에 의해서 자연으로서 돌아가는 향기로운 그 꽃내음을 온 누리에 안 풍길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다니면서 하고 말로 하기보다는 한생각으로서 우리 국내를 지키며 또는 세계를 조정하면서 우주에 상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좀 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항상 넓게 지혜롭게 생동력 있게 살게끔 언제나 내가 돼주는 그런 마음, 마음새를 가지고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이 어찌 남의 아픔이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왜 신 한 짝을 머리에 이고 갔을까요? 뜻이 그렇게 묘한데도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무생의 이치를 모르고 유생의 껍데기만 보고선 좌우하는 거야, 결정을 짓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에이그!' 말만 듣고 또 그 사람이 돼보지도 않고 결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싸워야 하고 증오해야 하고 미워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 일로 대국적인 일도 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만한 불씨가 전체 큰 불씨가 될 수도 있고 큰 불씨가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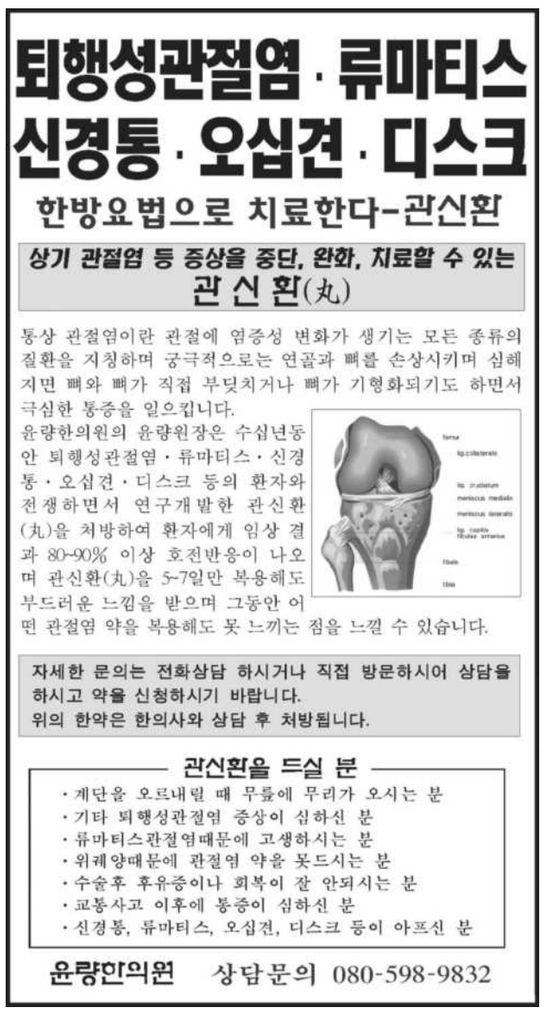
예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친 거는 화두법이다 좌선법이다 또는 묵조선이다 간화선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도 모두 근래에 난 거지 전자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첫 번에 우리가 들어올 때는 문이 좁아도 나가면 문이 넓고 벌판이 돼야지, 길 없는 길이 돼야 하고 발 없는 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뛰어넘으려면 불도 있고 가시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뛰어넘는데 어찌 있는 발로만 뛰어넘으려 하십니까? 그리고 길이 있는 데로만 가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십니까? 길 없는 길이 있고 발 없는 발이 있고 손 없는 손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는 한 점의 마음에서 그 양면을 다 쥐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오장육부에 정맥 동맥을 다 가지고 있듯이.

그럼 오늘 이것으로써 끝마칠까요.

※위 법문은 1986년 3월 16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상)

이경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그림 · 문병성

나는 최근까지도 불자가 사주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일부 스님들은 공공연하게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해주었고, 개인적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사랑과 결혼을 하면서 겪은 일들과, 불교와 진정으로 만나면서 알게 된 짧은 지식을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에 대해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감정상의 문제라 소개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직도 사주나 궁합이 결혼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어느 늦가을, 외로운 마음에 나간 미팅에서 그를 만났다. 테이블에 앉으려는데 바닥에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동전을 줍는데 "그거 제 건데요"하며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만약 오늘 미팅이 잘 되면 이건 하늘의 뜻이겠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사춘기 때부터 이상형을 상상하곤 했는데, 똑같진 않았지만 그에게서 문득문득 이상형의 실루엣이 겹쳐짐을 발견할 때의 설렘은 참으로 신선하고 반가운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으로 1년을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은 '좋은 인연'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집에서도 둘 사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우리의 만남에 호의적이었던 엄마가 그의 생년월일을 알아오라고 하셨다. 두 언니의 결혼 때도 형부의 생일을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결혼에 필요한 통과의례로 생각한 나는 주저 없이 그의 생년월일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불자로서 신심이 대단하였다. 특히 남편과 자식을 위해 새벽기도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전국 방방곡곡 소문난 기도도량은 빠짐없이 찾아다니셨다. 심지어는 자식 도시락 싸주고, 남편 아침을 챙기는 것보다 기도도량에 가기 위해 버스시간을 맞춰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까지도 생길 정도였다.

그렇게 신심 깊은 불자였지만 엄마는 사주팔자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사주가 좋으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느 스님의, 아들 둘을 낳아야 부부가 백년해로 할 수 있다는 말에 연이어 딸을 두었으면서도 아들 둘을 기어이 낳았을 정도였다.

궁합 나쁘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결혼 반대
우리 두 사람은 만날수록 서로 신뢰 쌓여
식구들에 죄짓는 생각 들어 마음 닫기 시작

물론 궁합을 보면서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고, 좋은 궁합은 다른 부족한 점들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

엄마는 궁합을 무시하고 결혼한 이모가 온갖 고생을 하며 살자, 모든 게 궁합이 안 맞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 짓곤 하셨을 정도였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불교와 사주궁합의 특별한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불자집안은 큰 결정이나 결혼에 있어 사주와 궁합을 보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궁합을 보고 오신 엄마의 얼굴이 어두웠다. 그와 나의 궁합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제법 큰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시험에 합격해도 결혼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셨다. 이 말은 궁합이 안 좋으니 당장 헤어지라는 의미였고, 좋은 궁합이 결혼의 필수라고 생각하던 가족은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전에 우리의 만남에 호의적이던 감정은 반대가 되었고, 나와 비슷한 가정환경의 가까운 친구도 이 말을 듣고는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할 정도였다.

나는 다른 곳에서 궁합을 봐서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친구와 혹은 엄마와 무수히 많은 점집을 드나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좋은 이야기로 듣는데, 엄마는 한 번 인식이 되어서인지 나쁜 이야기만 들으시는 것 같았다.

분명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해석이 달랐으니 말이다. 어쨌든 다시 간 곳에서도 '찰떡궁합' 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

결국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엄마의 추가 설명으로 인해 가족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져 갔고, 가족 중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친구마저 말렸고, 주변에 어떤 이가 궁합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좋았고, 딱히 헤어지자고 말할 명분도 궁합 이외에는 없었다. 한 번은 궁합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연락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매듭을 짓고자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만나러 가는 동안 내리는 함박눈에 그만 마음이 풀려 결국 재미있게 놀다가 궁합 이야기는 흐지부지 되어 버렸다. 그 후에도 몇 년을 만나는 동안에도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서로 헤어질 정도의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상대를 더욱 신뢰하는 마음만 깊어갔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편치 않은 마음으로 인해 죄짓는 기분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가족에게는 그에 대해 얘기하기 힘들어지게 되었고, 내 스스로 마음을 닫기 시작했다.

엄마는 이제 그와 만나는 눈치만 보여도 싫은 내색을 하셨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급기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집안의 결혼 반대로 고민하던 남녀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남의 일 같지 않게 들렸다. 그와 헤어지고 궁합 좋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았지만 다른 사람과 잘 살 자신이 솔직히 없었다. 지금 돌이켜 보니 이런 마음들이 바로 인연이라는 증거였는데도 그때는 그것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릴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에 답답해했을 뿐이었다.

궁합 때문이었을까? 그는 몇 년간 준비하던 시험에 간발의 차이로 자꾸만 실패하였다. 시험이라도 합격했어야 당당하게 그와의 만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 때의 나를 돌이켜 보건데 공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에 그가 맞춰주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다.

그렇게 일반 직장에 들어간 그가 우리 가족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청년 취업난에 나라가 들썩이던 상황에서 취업을 한 것만도 기특한 일인데 오히려 시험에 떨어진 실패자라는 낙인까지 찍혀버린 것이다. 궁합문제에 이어 시험 실패자와의 만남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사찰명 : 칠봉사
- 주 지 : 묘련화(임점순)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435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제주 무량사
- 주 지 : 영오(양두영)
- 주 소 : 제주 외도1동 2215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 15여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할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칠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농협 705-12-337974 (예금주 : 이준식)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0) 덕룡산 불회사

깊지도 높지도 않으나 생태적 느낌 좋은 도량


불회사 뒷숲은 다양한 수종이 혼합된 혼효림이다. 산불이 가람으로 번지는 걸 막기위해 내화림을 인공조성한 것이다.

"저 넓은/법계 속 불회(佛會)에 나아가/감로법우(法雨) 내리기를 비나이다/무명토(無明土)에 깊이 묻혀/번뇌열에 달구어져/선아(善芽)가 말라붙은/중생의 밭들을 적시소서!/아,/보리(菩提) 열매 영그는 날/깨달음의 달 밝아라!"

균여대사의 향가집(鄕歌集)에 실린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의 '청전법륜가(請轉法輪歌)'이다.

전남 나주 덕룡산 기슭에 자리한 불회사(佛會寺)의 사명(寺名)에는 보살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 법을 설해주기를 발원하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다.

기록상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여러 문헌이나 사료 등을 종합해볼 때 불회사 창건주는 인도스님인 마라난타 존자가 확실해 보인다.

마라난타 이후 고려 말에 원진국사가 사세를 크게 일으켰다. 본래 사명 '불호사(佛護寺)'가 조선 순조 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듯하다.

불회사 일주문에서 큰 절까지는 500m 가량. 새로 지은 일주문 부근에 도암선사 부도가 있어서 사역을 짐작케 해준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덕룡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고 있다. 계류 건너편엔 논밭들이 자리하고, 민가 주위로는 대숲이 둘러있고, 산능선까지는 소나무가 우점하는 혼효림이다.

일주문 왼편으로는 편백숲이 천왕문까지 쭈욱 이어져 있다. 주민의 이야기로는 조성한 지 60년이 넘었다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30년생 안팎이다. 그 사이에 베어내고 다시 심었는지는 모르겠다.

이 구간에서 관찰된 초본으로는 여뀌류를 비롯해 물봉선, 층층잔대, 까실쑥부쟁이, 흰고마리, 참취, 쑥부쟁이, 미역취, 털며느리밥풀, 눈괴불주머니, 용담 등이 관찰되었다. 특기할 만한 나무로는 이목(異木) 끼리 연리(連理)를 이루고 있는 두 그루의 보호수이다. 수령 6백년의 느티나무와 고로쇠나무가 몸을 섞은 부부수(夫婦樹)이다. 덩치 큰 남편 느티나무 뿌리가 수컷의 거시기처럼 부인 고로쇠나무 뿌리 속으로 깊숙이 박혀 있다.

이 구간에는 노부부 돌장승도 큰 볼거리이다. 중요민속자료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노장승들 역시 임진왜란 후 민간신앙의 불교습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웃한 운흥사 장승과 마찬가지로 사찰의 수문장으로 존재한다.

사적비 뒤로 불회사의 중창주인 원진국사의 부도가 있다. 사람들이 탁본을 한답시고 탑신에 먹물을 시커멓게 묻혀 놓고 갔다. 돌 속에 스며든 먹물은 비가 와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저 상태로 몇십년 몇백년이 갈 수도 있다. 식자(識者)들의 이기적 몰상식이 개탄스럽다.

진여문 홍예다리 아래 계류는 물이 말라서 갈겨니와 버들치들이 군데군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계류의 물이 마른 것은 가뭄 탓도 있지만, 절에서 위쪽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서식환경이 더 나빠진 것이니 절에서 물고기의 생태환경을 수시로 살펴볼 일이다.


불회사 원진국사 부도탑. 탑신이 탁본 먹물로 시커멓게 물들어 훼손이 염려된다.

근래 불회사는 불사를 하여 가람배치를 쇄신하였다. 대양루의 계단을 오르면 덕룡산을 배경으로 팔작지붕을 한 대웅전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용머리와 내부 천장에 나타난 물고기는 백제 불교의 바다 전래설을 암시해주기도 하지만, 환경측면에서는 사찰 화재의 벽사물로 이해된다.

대웅전 뒤로는 인공으로 조성한 숲들이 수종을 달리하며 내화띠[耐火樹林帶]를 이루고 있다. 천왕문과 시운당(요사채) 중간 쯤에 서서 대웅전 뒷숲을 보면 숲의 빛깔만으로도 내화수림대가 확연히 구분된다.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며 잔디, 차나무, 동백나무, 비자나무, 대나무, 소나무 혼효림이 자리하고 있다. 바라볼수록 멋진 숲이다.

겨울을 성충으로 월동하는 네발나비, 뿔나비, 노랑나비, 청띠신선나비 등이 보인다. 늦가을에 보이는 나비들은 거의가 어른으로 겨울을 난다. 하지만, 오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온 나비들은 영하의 겨울이 눈앞에 닥쳐도 요란을 떨지 않는다. 인간과는 달리, 은둔할 곳을 미리 허둥지둥 찾아다니며 점찍어 두는 일도 없다. 눈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나 나무 틈은 어디든 있다. 가서 죽은 듯이 날개 접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

불회사 해우소는 수세식이다. 들어갈 때 슬리퍼로 갈아 신도록 되어 있다.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는 것과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가는 것은 이용자의 마음자세를 달리 해준다. 슬리퍼를 신으면 해우소라도 '실내'라는 느낌을 준다. 다른 해우소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진국사 부도탑 마구잡이 탁본으로 먹물자국 투성이
대웅전 뒤 다양한 수종으로 형성된 내화띠 멋진 숲 이뤄
국내서 가장 넓은 야생 차밭에서 비로다(榧露茶) 생산

명부전 옆으로 좁은 산길이 나 있다. 스님들만의 포행길이다. 포행길은 대웅전 뒤 내화수림대를 휘돌아 계곡의 저수지[洑]로 내려오는 코스이다. 포행길은 올올창창한 숲길이다. 차나무, 동백나무, 비자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포행숲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비자나무와 동백나무이다. 불회사 비자나무는 어림으로 2천3백 그루나 된다고 한다. 높이가 10미터, 가슴높이 지름이 평균 40센티에 이른다. 이 정도 크기라면 수령이 2백년은 조이 넘는다. 동백숲은 대웅전 뒤로 활처럼 휘어져 조성되어 있다.

이 포행숲에 가끔 너구리들이 나타난다. 배설한 지 몇 시간 안 되는 너구리 배설물이 말랑말랑한 형태로 숲길에서 발견되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배설물을 흙으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지만, 너구리와 같은 개과는 그냥 놔둔다.

불회사가 앉은 덕룡산은 해발 376m에 불과하지만, 산역이 넓고 촌락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서식하는 포유류의 종이 다양하다. 불회사 삼거리인 하평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겨울이면 멧토끼, 고라니, 멧돼지를 비롯해 삵까지 일주문 아래까지 나타난다고 한다.


연리(連理)를 이루고 있는 느티나무와 고로쇠나무


청띠신선나비

비로헌 주위로 몇 마리의 직박구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불회사 조류로는 박새, 쇠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쇠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직박구리, 어치, 까치, 꿩 등이 관찰되었다. 시기상 여름 철새들은 떠나고 겨울산새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비로헌을 지나 계곡으로 내려서면 저수지 형태의 계곡보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숲의 모습이 좀 다르다. 인간의 간섭이 절제되어 자연성이 두드러진다. 하층식생도 다르고, 숲을 이루고 있는 수종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다. 소나무에서 활엽수로 천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목본으로는 장년의 소나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개옻나무, 붉나무, 팽나무, 검양옻나무, 누리장나무, 가새뽕나무, 왕버들, 비목, 단풍나무, 느티나무와 같은 활엽수가 혼재하는 모습이다.

이 구간의 관목으로는 차나무가 으뜸이다. 불회사의 야생차는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불회사를 창건할 때 중국 강남으로부터 가져와 심은 것이 퍼져서 야생화가 되었다고 전한다. '다도면(茶道面)'이라는 지명도 거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비자나무 숲 아래 넓게 자리한 불회사 차밭은 우리나라 사찰 차밭 가운데 가장 넓다고 한다. 스님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야생차를 돌보고 있다. 불회사가 자랑하는 비로다(榧露茶)가 바로 이 차밭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지역의 초본은 비자나무 숲이 하늘을 가려서 빈약하다. 천남성, 맥문동, 이삭여뀌, 쇠뜨기, 소리쟁이, 꽃향유, 삿갓나물, 미국자리공 등이 보인다.

등산객 출입도 없는 이 골짜기에 외래식물인 미국자리공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저수지 공사 때문이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계와 외래인들이 여러 날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래종들은 자연환경이 파괴된 곳을 희안하게도 잘 찾아서 들어온다.

덕룡산은 깊지도 높지도 않지만, 생태적으로 느낌이 좋은 산사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은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납니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봉행 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하며 숙식을 비롯한 모든 경비는 각자부담 원칙으로 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주 11월 30일 - 12월 6일 [179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1월30일[목]	우리절	-	경기광주시	18km
12월 1일[금]	광주시	-	조안면	26km
12월 2일[토]	조안면	-	대성리	19km
12월 3일[일]	대성리	-	가 평	23km
12월 4일[월]	가 평	-	의암역	19km
12월 5일[화]	의암역	-	소양호선착장	17km
12월 6일[수]	소양호	-	양구 광치	74km

제 2주 12월 7일 - 12월 13일 [12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2월 7일[목]	광 치	-	원통읍	21km
12월 8일[금]	원통읍	-	용대리	18km
12월 9일[토]	용대리	-	소똥령	17km
12월10일[일]	소똥령	-	건봉사	18km
12월11일[월]	건봉사	-	죽 왕	21km
12월12일[화]	죽 왕	-	속 초	20km
12월13일[수]	속 초	낙산사	홍련암	15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